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0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October Vol.262

OPERA IN  
CONCERT



2013

#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거장들의 만남



2013. 11. 5(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 유리 시모노프(Yuri Simonov)

| 협연 : 안드레이 가브릴로프(Andrei Gavrilov) \_Piano

|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링크(1588-7890), 부산은행 전지점

|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 2013년 러시아 음악의 최고를 만날 수 있는 러시아 음악 축제가 열린다.

러시아 작곡가들의 곡들을 러시아 최고의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필하모닉과 '현존 최고의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가브릴로프와 마에스트로 유리 시모노프가 들려주는 러시아 음악의 최고봉



## 지휘 : 유리 시모노프 Yuri Simonov

'차이코프스키를 탁월하게 해석하여 호화스러운 낭만적인 기풍을 고양하면서도 설득력을 잃지 않는 훌륭한 지휘자'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훌륭히 해내는 것이다. 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항상 최고 수준의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나는 내가 팬들에게 쓸모 있는 날까지 지휘대 앞에서 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인 것이다." -유리 시모노프



## 피아노 :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현존 최고의 피아니스트'라는 평을 받는 연주자  
필립스 선정 '20세기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 한사람  
전설의 러시아 피아니스트 30인으로 선정

No wonder it is called "Bravissimo".

그의 연주 라흐마니노프 3번은 러시아 영혼에 대한 끊임 없는 대화.

그는 번덕스러운 자신만의 음색으로 청중들을 홀린다. 망치로 두들기듯 강력하고 또한 거미줄처럼 가늘고 정교하며 깨끗하다. 그의 연기는 "Bravissimo"라 불리만 하다.

- Peter Buske

## 프로그램

Glinka - 'Waltz-Fantasy' for Orchestra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3  
Rachmaninoff - Symphony Dances





The 24nd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프레이스페인으로 부서의

# 초청

## Program

정희영 명경지수 (明鏡止水)

Weber Clarinet Concerto No.1 in F minor Op.73

Tchaikovsky Symphony No. 5 in E minor, Op. 64

예술감독 김원명(경성대교수) 지휘자 이효상(T.I.F 상임지휘자) 작곡가 정희영

2013. **10.10**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한국음악협회부산광역시지회, T.I.F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롯데마트사하점, 부산원음방송, 팝부산, 홈플러스장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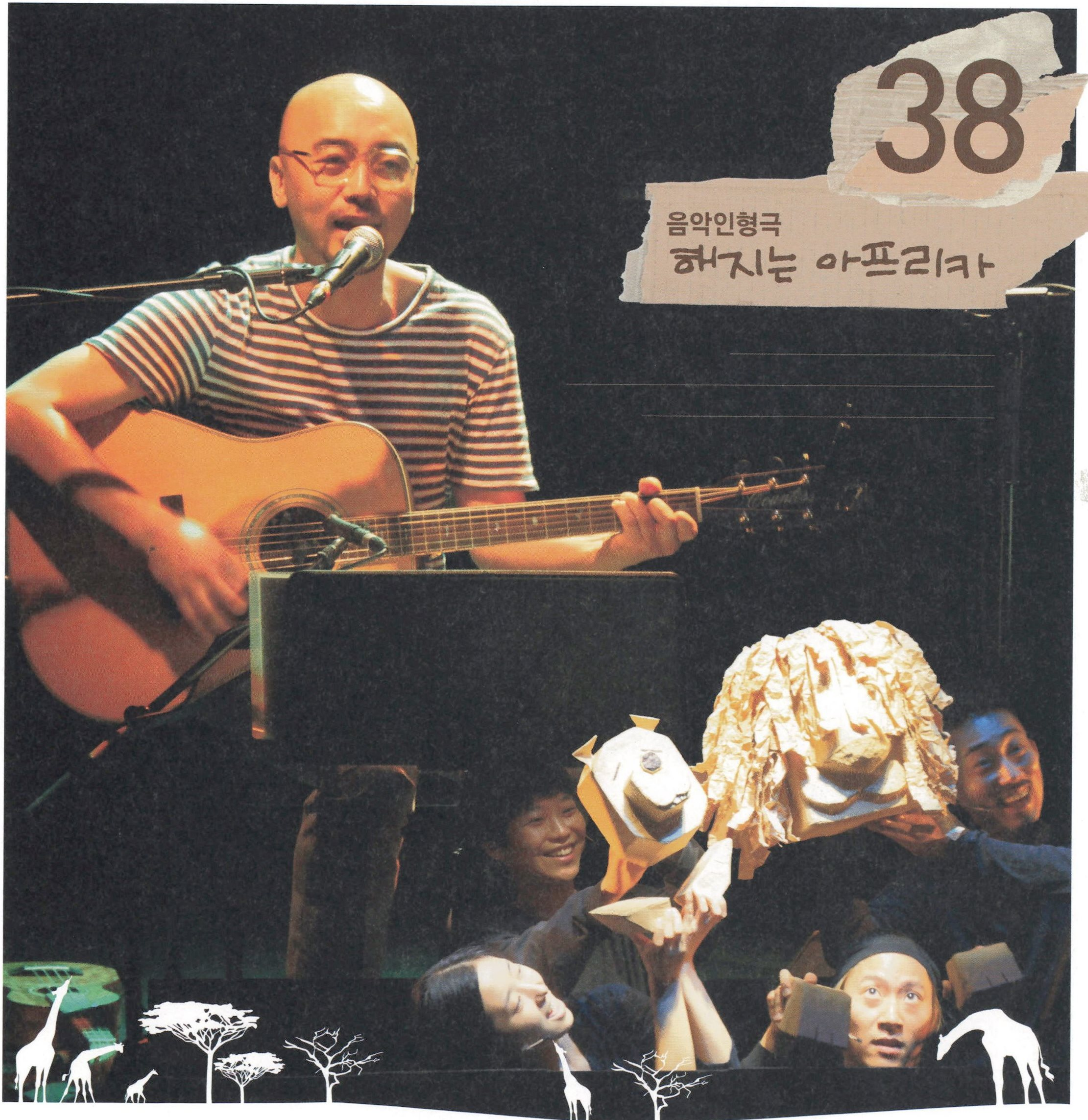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금액 | 2천원 문의 | 051-220-5812

무대감독 | 전광수 음향감독 | 이광섭 조명감독 | 오종영



# 하늘아래 그 콘서트



38

음악인형극  
해지는 아프리카

무대 위에는 악사와 인형, 코러스, 영상이 공존하면서 관객을 아프리카의 자연 속으로 안내한다.

**2013. 10. 19. SAT. 2시, 7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문의 : 051.607.6058 티켓 : 전석 3만원 ※정기회원 20%할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가을 소풍



2013. **10.15**(화) PM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주 최\_ Sing&Fun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입장료\_ VIP 40,000원, R 30,000원, A 20,000원 (누림회원 30% 할인)

예매처\_ 인터파크 AUCTION BS 부산은행 전지점

문 의\_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 CONTENTS

2013 October Vol.262 culture.busan.go.kr

- 08 커버스토리 | 부산시립교향악단 'Opera in Concert 리콜레토'
- 10 프리뷰
- 16 문화가화제 | 2013 부산국제영화제
- 18 반갑습니다 | 피아니스트 백혜선
- 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루브르로의 특별한 초대, 니콜라 필리베르의 '루브르 도시' \_전은정
- 24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㉔ |  
괴테와 글루크의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에>, 그리고 브람스의 <운명의 여신의 노래(上)> \_ 이동신
- 26 불멸의 거장 - 바그너 ⑤ |  
21세기의 바그너 문화국 독일의 간판 V '바이로이트 스케치' \_ 임채홍
- 28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㉔ |  
혜능선사 법력의 향기는 은은하고 '혜능상매(慧能賞梅)' \_ 변광석
- 30 그곳에 가면 | 다대포 흥티아트센터
- 32 우리는 문화가족 | 부산아미주부농악단
- 34 리뷰 | 창작 오페라 '해운대 장산국 이야기' \_ 박진홍  
스톤 브레이커스\_박미경
- 36 테마가 있는 여행 | 포도향 가득한 아름다운 고장 영천
- 39 Culture Life
- 6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4 부산문화회관 소식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2013년 10월호 통권 262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발행인 | 박성택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3년 9월 25일

인쇄처 | (주)대주애드 Tel. 051)803-6631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 ‘Opera in Concert 리/골/레/토’

적은 비용으로 오페라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오페라 인 콘서트’ 네 번째 무대가 10월 10일과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오페라 장르에 특히 관심을 가져온 리 신차오가 취임 후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오페라 인 콘서트’는 2009년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를 시작으로 2011년 ‘라 보엠’, 2012년 ‘박쥐’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2012년에 선보인 ‘박쥐’는 작품의 배경인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빈 상류사회를 부산으로 재구성, 부산 출신 성악가의 사투리를 넣어 원작 특유의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잘 살려내 음악애호가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 바 있다.



■ 사진은 2012년 오페라 인 콘서트 '박쥐'



일 시 10월 10일(목)-11일(금)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0,000원·S석 20,000원  
 A석 10,000원·B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사진은 2011년 오페라 인 콘서트 '라보엠'

올해 '오페라 인 콘서트'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선택한 레퍼토리는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한 베르디 걸작 오페라 '리골레토'.

베르디가 작곡한 3막의 오페라 '리골레토'는 빅토르 위고의 희곡 '일락의 왕' (Le roi s'amuse)을 기초로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가 이탈리아어 대본을 완성하였고, 1851년 3월 11일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작품의 무대는 16세기 북이탈리아 만토바 공작의 궁정. 만토바 공작은 여성을 정복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는 방탕아이다. 곱추이자 광대인 리골레토가 아름다운 첩을 두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여자를 유괴해 오도록 명하는데, 그 여자는 리골레토가 공작의 눈에 띄지 않게 숨기고 있던 딸 질다였다. 그러나 질다는 학생으로 변장한 공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에 빠져 그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리골레토는 복수를 맹세하여 자객에게 공작의 암살을 부탁한다. 그러나 공작을 사랑하는 질다가 공작을 대신해 죽게 되고 리골레토는 딸의 시체를 보고 기절한다.

1부에서는 제1막 1장 '만토바 공작의 궁전 안, 호화로운 거실', 제2장 '그날 밤, 외딴 거리에 위치한 리골레토의 집'을, 2부에서는 제2막 '공작의 궁전 안'과 제3막 '민초강변에 있는 스피라푸칠레의 집'으로 구성,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최고의 배역들이 오페라의 감동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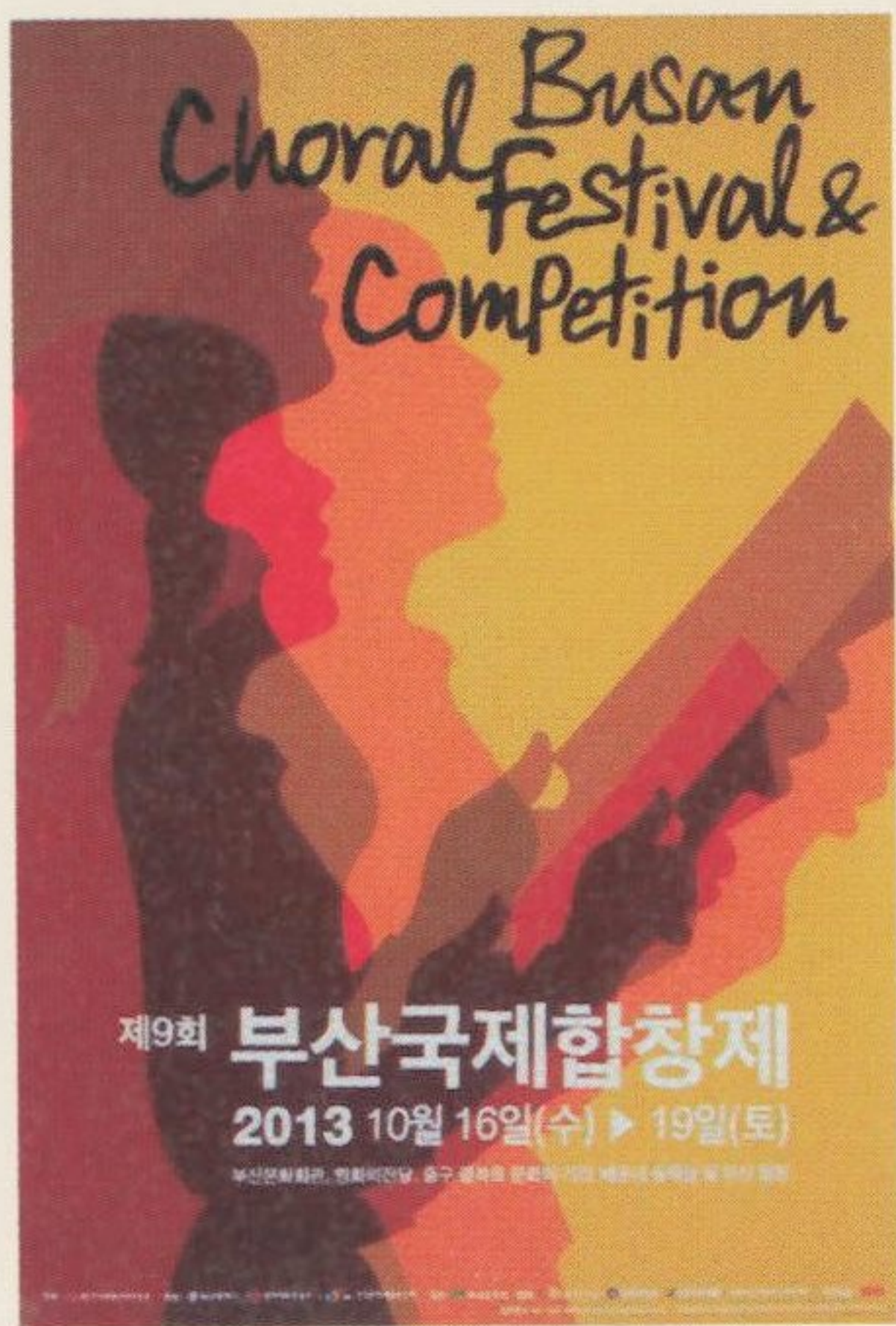
전체 무대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연출과 지휘를 맡아 '오페라 인 콘서트'를 진두 지휘하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지휘과 오케스트라 지휘전공 최고연주자 과정 디플롬을 졸업한 부산출신 지휘자 김미정이 조연출을, (재)국립오페라단 상근 수석 피아니스트를 역임한 손소향이 오페라 코치로 참가해 '오페라 인 콘서트'의 완성도를 높였다.

오페라를 이끌어갈 리골레토는 제상철(바리톤), 리골레토의 딸 질다는 김정은(소프라노), 만토바공작은 김지호(테너), 전문암살자 스피라푸칠레는 함석헌(베이스), 막달레나는 김수현(메조소프라노)이 맡아 열연한다. 그 외에도 지오반나 & 체프라노 부인에는 박성희(메조 소프라노), 체프라노 백작에는 김태우(베이스), 보르사에는 송현정(테너), 몬테로네는 유형광(베이스), 마룰로는 이태영(베이스), 파쉴에 배우향(메조 소프라노), 궁정 안내인으로는 최범석(베이스) 등 지역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이성훈이 지휘하는 부산오페라합창단이 마을 사람들로 출연해 오페라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 제9회 부산국제합창제



2002년 부산국제합창올림픽을 시작으로 2005년 APEC 합창제를 거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 2013년 축제가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해 영화의전당 등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아시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홍콩, 중국, 대만, 일본, 홍콩을 비롯, 유럽 합창 강국인 영국, 체코, 러시아와 태평양의 피지 등 1,300여명의 합창인들이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클래식 혼성, 동성, 민속, 아카펠라와 신설된 시니어 부문 경연에 참가하게 된다.

세계의 우수한 합창단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량을 선보이는 만큼 합창음악계의 세계적인 거장들이 심사위원으로 부산을 찾는다. 영국 '킹즈 싱어즈' 출신으로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로 있는 사이먼 케링턴(Simon Carrington)을 비롯해 미국합창지휘자연합회(ACDA) 현 회장이며 남캘리포니아대학 합창지휘과 주임교수 조마이클 샤이비(Jo-Michael Scheibe)의 부산 첫 방문은 국내 합창음악계의 많은 주목과 관심을 끌고 있다.

제9회 부산국제합창제 개막초청공연은 유럽 그랑프리에서 2회 우승, 세계합창음악의 정상을 2번이나 제패한 아시아 최고의 합창단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가 장식한다. 마드리갈 싱어즈는 뉴욕타임즈로부터 '가장 음악적인 호소력이 강한 합창단', 미국의 코랄 저널로부터 '인간의 목소리가 신이 주신 최고의 악기임을 실증시켰다'라는 극찬을, 프랑스 투르 유럽합창대회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경연행사 외에도 올해 국제청소년합창콩쿠르로 승격된 기념으로 10월 18일(금) 영화의 전당에서는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월드비전 선명회가 청소년 갈라 콘서트를 펼치고 공연장을 벗어나 부산을 대표하는 광복로 문화의거리와 해운대에서 합창 퍼레이드, 10월 14일부터 합창제 심사위원들과 국내 저명 합창교수들이 함께하는 코랄아카데미가 함께 펼쳐진다.

### ▶주요일정

- 10.14(월) 13:00 부산코랄아카데미(국제회의장)
- 10.15(화) 10:00 부산코랄아카데미(국제회의장)
- 10.16(수) 10:00 부산코랄아카데미(국제회의장)  
15:00 합창퍼레이드(광복로 문화 거리)  
20:00 개막공연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대극장)
- 10.17(목) 09:30 워크샵(국제회의장)  
13:00 시니어 경연, 15:30 경연 - 민속 I  
19:00 경연 - 민속 II(대극장)
- 10.18(금) 09:30 워크샵, 10:30 워크샵(국제회의장)  
13:00 경연 앙상블, 15:00 경연 동성  
19:00 경연 혼성(대극장)  
20:00 청소년 갈라 콘서트  
- 선명회 어린이합창단(영화의전당)
- 10.19(토) 09:30 청소년 경연 I  
13:00 청소년 경연 II(대극장)  
13:00 합창퍼레이드(동백섬)  
19:00 대결선 및 시상식

일 시 10월 16일-19일 수-토요일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국제회의장, 영화의전당  
입장료 개막공연 5만원·3만원·2만원,  
폐막 균일 1만원, 경연은 무료  
문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  
(622-0534)



# 부산시민과 서울시합창단과 함께하는 한국가곡과 민요 대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 오세종



■ 서울시합창단 지휘자 김명엽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 부산시립합창단이 우리의 정서가 담긴 한국가곡과 민요 대합창으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부산국제합창제, 부산합창제가 열리는 합창의 계절 10월을 더욱 풍성하게 할 이번 무대는 서울시합창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대규모 편성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풍성한 우리가곡과 민요 무대를 열어준다. 특히 이번 무대를 위해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 합창 무대에 대한 열망을 키워온 아마추어 합창단이 부산연합시민합창단을 구성, 함께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합창의 묘미를 선사한다.

제147회 정기연주회의 컨셉트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한국가곡'이다. 전체 레퍼토리는 초·중·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누구나 한번쯤은 불러보았을 가곡과 흥겨운 우리 팔도 민요들로 선곡했다.

1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부산연합시민합창단이 함께 하는 한국가곡 무대, 2부는 우리나라의 민요로 만들어진 '팔도민요모음'으로 서울시합창단과의 합동공연이 진행된다.

1부 한국가곡은 제목 만으로도 풋풋한 감성과 추억이 묻어나는 10곡의 명곡들로 선정되었다. 첫 서막을 여는 곡 '선구자' (윤해영 시/조두남 곡)를 비롯해 가을의 정서가 듬뿍 담긴 '고향 그리워' (만향 시/이흥렬 곡), '보리밭' (박화목 시/윤용하 곡),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작곡가 김순애가 꿈 많은 학창시절, 교정에서 행복의 상징인 네잎클로버를 찾는 기쁨으로 작곡했다고 전해지는 '네잎 클로버' (김순애 시,곡), 시골 가을 풍경이 잘 묻어나는 '산촌' (이광석 시/조두남 곡), 이수인과 김재

호의 우정으로 탄생된 국민가곡 '고향의 노래' (김재호 시/이수인 곡),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님이 오시는지' (박문호 시/김규환 곡), 봄을 알리는 애창가곡 '남촌' (김동환 시/김규환 곡), 1962년 초연된 칸타타 '아름다운 내강산' 11곡 중 한국으로 금강산의 절경과 분단으로 인하여 가지 못하는 심경을 노래한 명곡 '그리운 금강산' (한상익 시/최영섭 곡), 1931년에 발간된 현제명 작곡집 제2집에 수록된 후 오늘날까지 애창되어오고 있는 현제명의 대표작 '희망의 나라로' (현제명 시,곡) 등 10곡의 한국가곡이 차례로 연주된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가곡들은 작곡 배경과 아름다운 노랫말을 알고 들으면 감동은 배가 된다.

2부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과 서울시합창단(지휘/김명엽)의 연합무대로 경북공타령(경기), 신고산타령(함경), 배다래기(서도), 한 오백년(강원), 천안삼거리(충청), 울산아가씨(영남), 해녀 뱃노래(제주), 자진농부가(호남)로 흥겨운 민요여행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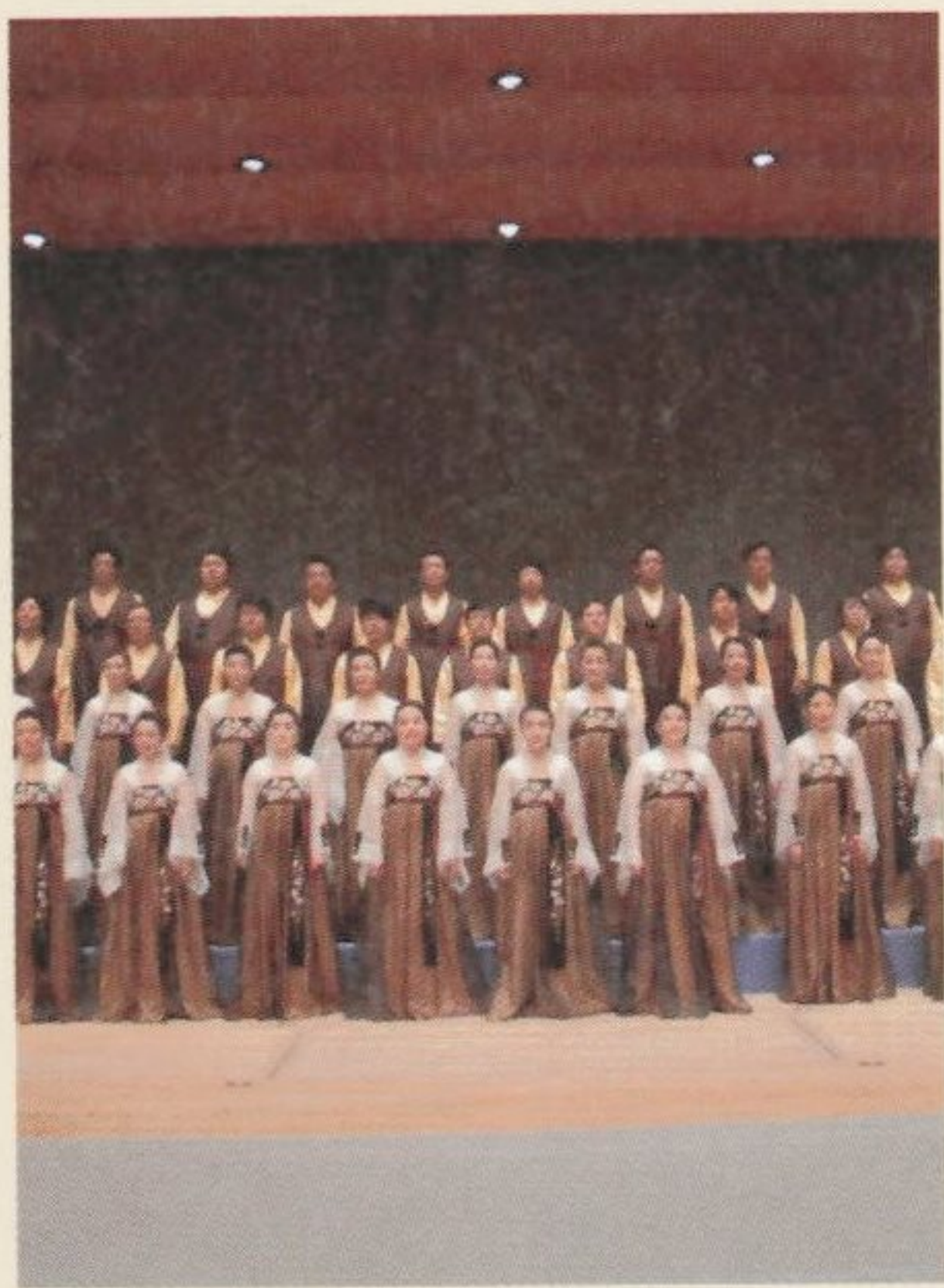
■ 서울시합창단

일 시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음악회

## 제26회 부산 합창제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 합창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준 있는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부산지역 합창애호가들과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 펼치는 부산 최고의 합창 예술축제 '부산합창제' 스물 여섯 번째 축제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1985년 출발한 부산합창제는 부산 지역의 유일한 합창제로 그동안 부산지역 합창 활동에 불을 일으키며 각 구청마다 여성합창단 창단과 지역 아마추어 합창단의 창단을 이끌어낸 분수령이 되었다. 오랜 세월 부산 시민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합창 인구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해온 부산합창제 무대를 통해 지난 25년간 우리가곡을 비롯해 세계민요와 가곡, 가요 등의 레퍼토리가 개발되기도 했다.

올해는 1961년 창단된 전통과 관록의 노엘합창단을 비롯해 2013년 창단된 신생 남녀혼성합창단인 예지합창단, 부산브라보아버지합창단까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종교, 다양한 계층의 아마추어 합창인들로 구성된 26개 합창단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화합과 감동의 장을 펼친다.

### ▶ 일정 및 참가단체(무순)

• 23일(수)

부산시민합창단(지휘/김명규)

문화합창단(지휘/배천종)

노엘합창단(지휘/김강규)

뮤즈콘서트콰이어(지휘/조현수)

명호여성합창단(지휘/류지원)

B-STAr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지휘/오동주)

• 24일(목)

글로리콰이어(지휘/이정철)

사하드림합창단(지휘/이정철)

부산CBS 여성합창단(지휘/이외균)

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전상철)

고심 문수합창단(지휘/금정미)

노래와 친구들(지휘/이순희)

부산브라보아버지합창단(지휘/이성훈)

부산여고 동문합창단(지휘/조현수)

예지합창단(지휘/우원석)

목련합창단(지휘/오동주)

• 25일(금)

대원불교대학 푸른합창단(지휘/이순희)

부산 중구시니어 코러스(지휘/이은정)

동백합창단(지휘/정성민)

무지개합창단(지휘/최인숙)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지휘/강학운)

메디코러스(지휘/이수정)

센텀합창단(지휘/이철성)

예그린 여성합창단(지휘/손옥)

해운대소리 합창단(지휘/김진영)

나르시어 합창단(지휘/이경선)

부산시립합창단(지휘/오세종)

※ 공연순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 시 10월 23일-25일

수-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 제27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부산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청소년 문화 선도를 위해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부산청소년 합창제 스물 일곱 번째 축제가 제26회 부산합창제 뒷날인 10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부산국제합창제, 부산합창제가 열리는 10월, 바쁜 학교 생활 중에도 틈틈이 합창으로 동심을 가꾸어온 부산지역 소년소녀 합창단이 밝고 고운 합창 무대로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청소년시기에 가장 중요한 감성을 음악, 특히 합창을 통해 표현하므로써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감성과 사회성, 책임감 등을 키워주며 부산의 청소년들과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부산청소년합창제는 교과서에 수록된 곡 외에 종교음악부터 뮤지컬 합창, 아가펠라 합창까지 어린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과 재미있고 감성적인 노랫말로 된 다양한 합창곡들을 발굴, 어린이 정서에 맞는 합창을 선사해왔다.

올해는 창단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지역 6

개 소년소녀합창단이 즐거운 합창의 세계를 연다.

2013 전국환경노래 노랫말, 합창, 작곡 경연대회 합창 부문 대상,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경연대회 합창부문 1위(2011~2013)를 수상한 남문초등학교를 비롯해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장려상(2012), 소방동요대회 은상(2013)을 수상한 명호셋별어린이합창단, BEXCO 연구학교 박람회 축하공연을 가진 바 있는 양덕초등학교합창단, 세계문화유산주간 개막공연-천진난만 꿈의합창 무대를 가진 바 있는 엄궁초등학교 푸른꿈합창단, 소방동요제 최우수상 수상, 안전행정부 장관상 수상(2012)을 수상한 남부지역연합합창단 등이 참가한다.

## ▶ 프로그램

김정철/라일락은 향기로 말해요  
 윤학준/노래가 만든 세상  
 박수진/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  
 윤학원/난장이들의 노래  
 정애련/여우야 여우야, 율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등 수곡

## ▶ 참가단체

남문초등학교합창단(지휘/배수정)  
 명호셋별어린이합창단(지휘/이수진)  
 양덕초등학교합창단(지휘/김기환)  
 엄궁초등학교 푸른꿈 합창단(지휘/배수희)  
 남부지역연합합창단(지휘/박지용)  
 남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주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일 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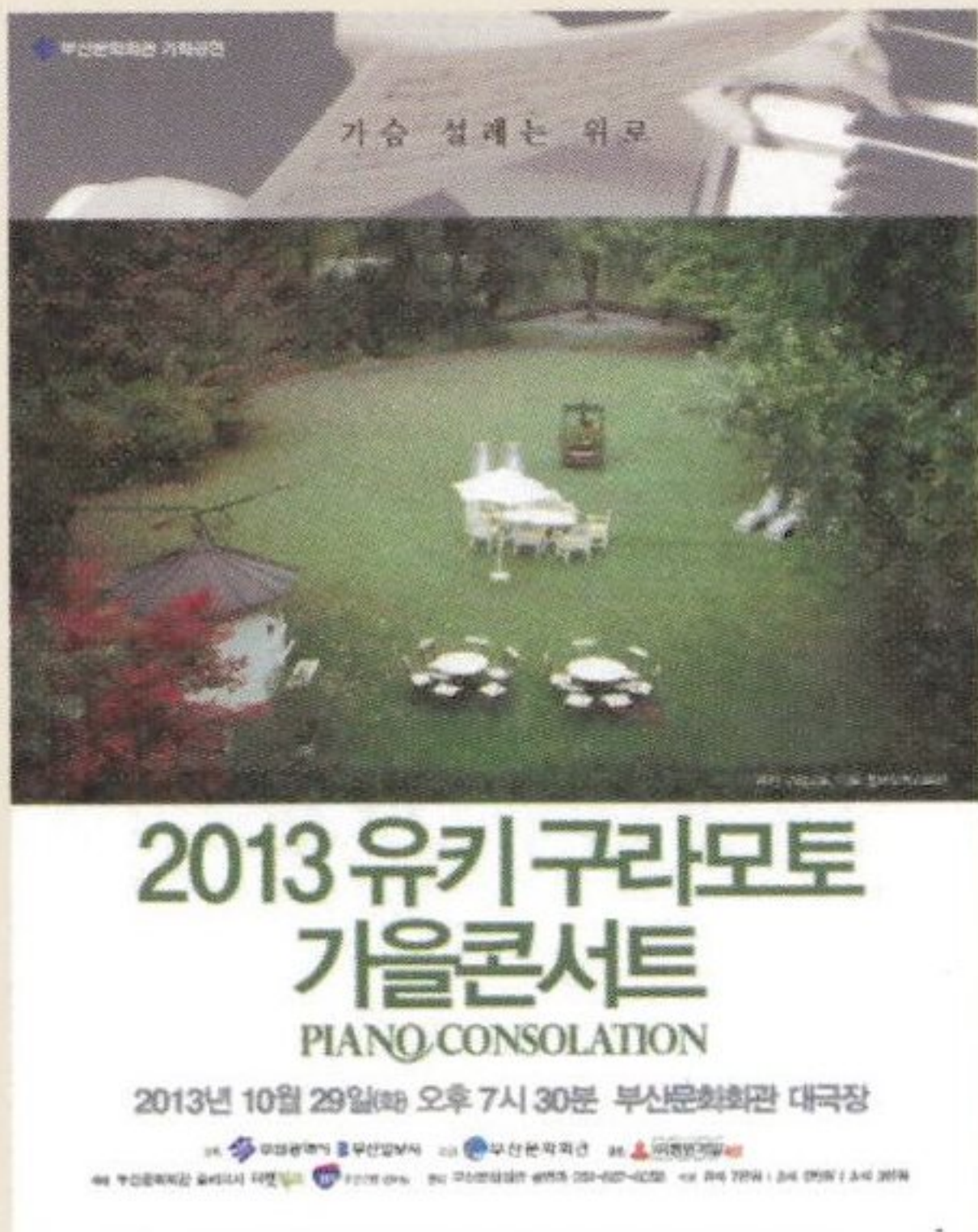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2013 유키 구라모토 가을콘서트



애잔한 선율과 절제된 분위기, 서정적 연주로 우리를 유혹하는 뉴에이지의 거장 유키 구라모토가 디토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10월 29일 부산을 찾아 온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 중 한명으로, 변함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유키 구라모토는 1986년 첫 피아노 솔로 앨범 '루이스 호수(Lake Louise)'가 인기를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1998년 국내에 첫 앨범을 선보인 유키 구라모토는 그동안 뉴에이지 음반 최초 150만장을 판매, 1집부터 8집까지 모든 음반이 플래티넘을 기록했고 그의 음악은 영화와 드라마 배경 음악, 라디오 시그널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99년 5월 서울에서의 성공적인 첫 공연 이후 매진 행렬을 이어오고 있는 유키 구라모토는 2011년까지 14차례의 서울공연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우고 총 100여 회의 공연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가지며 14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공연계의 베스트 & 스테디셀러이다. 유키 구라모토는 오리지널 음반 발매 이외에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도 참여했고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레이저 디스크 등의 영상음악, 일본항공 등 항공사의 '인 플라이트 뮤직(In flight Music)'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유키 구라모토를 상징하는 '서정적인 음악'은 가을에 더욱 잘 어울린다. 평소 '가을은 여름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어떤 면에서는 살짝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연애를 하고 싶은 감성이 샘솟는 계절이다'고 말해 온 유키 구라모토는 아름다운 가을의 서정을 노래할 이번 무대에서 'Consolation, 청명한 가을 바람을 담은

위로'라는 부제로 공연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매 공연마다 앨범과는 또 다른 편곡으로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음악을 들려주는 유키 구라모토가 관객을 위해 서툰 한국어지만 최선을 다해 모든 음악을 직접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유키 구라모토의 해설이 곁들여진 콘서트, 공들여 써온 소개글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읽는 모습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유키 구라모토의 진심을 만날 수 있다. 그의 히트곡 Meditation, Lake Louise, Ondine, Romance On The Shore, Virgin Road과 새 앨범 Piano Consolation 수록곡 등을 연주한다.

※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키 구라모토

일 시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3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 오페라 하이라이트 IV - 라보엠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2013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네 번째 무대 '라보엠'이 10월 3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풍부한 선율과 극적인 효과로 오페라 '나비 부인' '토스카'와 함께 푸치니의 3대 명작 중 하나로 꼽히는 '라보엠'은 보헤미안들의 희로애락과 그들의 삶을 음악 속에 녹여낸 작품이다. '보엠'이란 보헤미안 기질이란 뜻으로 뮌헨의 소설 '보헤미안의 생활'을 원작으로 일리카와 자코사가 대본을 맡았으며, 1896년 2월 토스카니 지휘로 이탈리아 토리노 왕립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4막 구성의 '라보엠'은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리고 있다. 시인 로돌포는 다락방에서 수놓는 병든 처녀 미미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가난했기 때문에 미미를 보살필 수 없었고 결국 미미의 곁을 떠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가 마르첼로와 거리의 처녀 무제타의 사랑은 현실적인데 이들은 잦은 질투를 느끼고 싸움을 벌인다. 푸치니는 이같은 내용을 사실적

수법으로 유려하고 매혹적인 선율과 그것을 긴밀히 연결시킨 색채적인 관현악, 마음에 호소하는 교묘한 동기의 활용, 뛰어난 무대 연출로 전달하고 있다. 전곡이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중에서도 로돌포의 아리아 '그대의 찬송', 미미의 아리아 '내 이름은 미미' 등은 특히 유명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 해설, 오페라 전문연출가 유철우의 연출로 오페라 '라보엠'의 하이라이트를 들려준다.

'웰빙콘서트'의 감동을 위해 이탈리아 Giovanni Talenti 1위, Porana Lirica 1위, Luisi Stramesi에서 1위 입상한 소프라노 윤지영이 재봉사 미미로, 독일 막대부르크 주립극장 객원 솔리스트 역임한 테너 조윤환이 시인 로돌포로, 안토닌 드보르작, 니코 도스탈, 로버트 스톨츠 국제콩쿠르 등에 입상한 바 있는 바리톤 강경원이 화가 마르첼로로,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베이스 문동환이 철학자 콜리네로, 바리톤 김태우가 음악가 쇼나르로, 소프라노 김혜영이 가수 무제타로 열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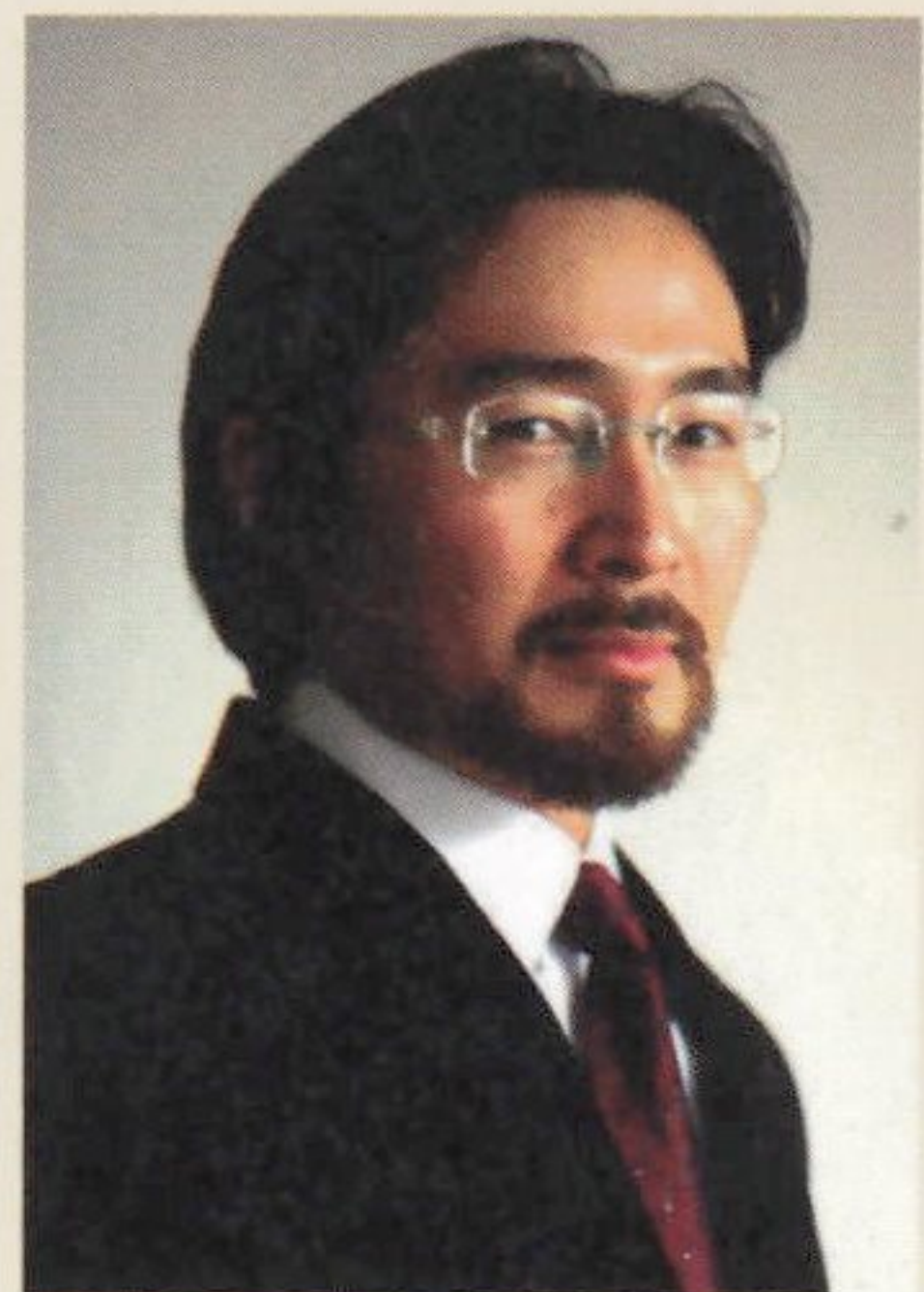
일 시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1: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소프라노 윤지영



■ 테너 조윤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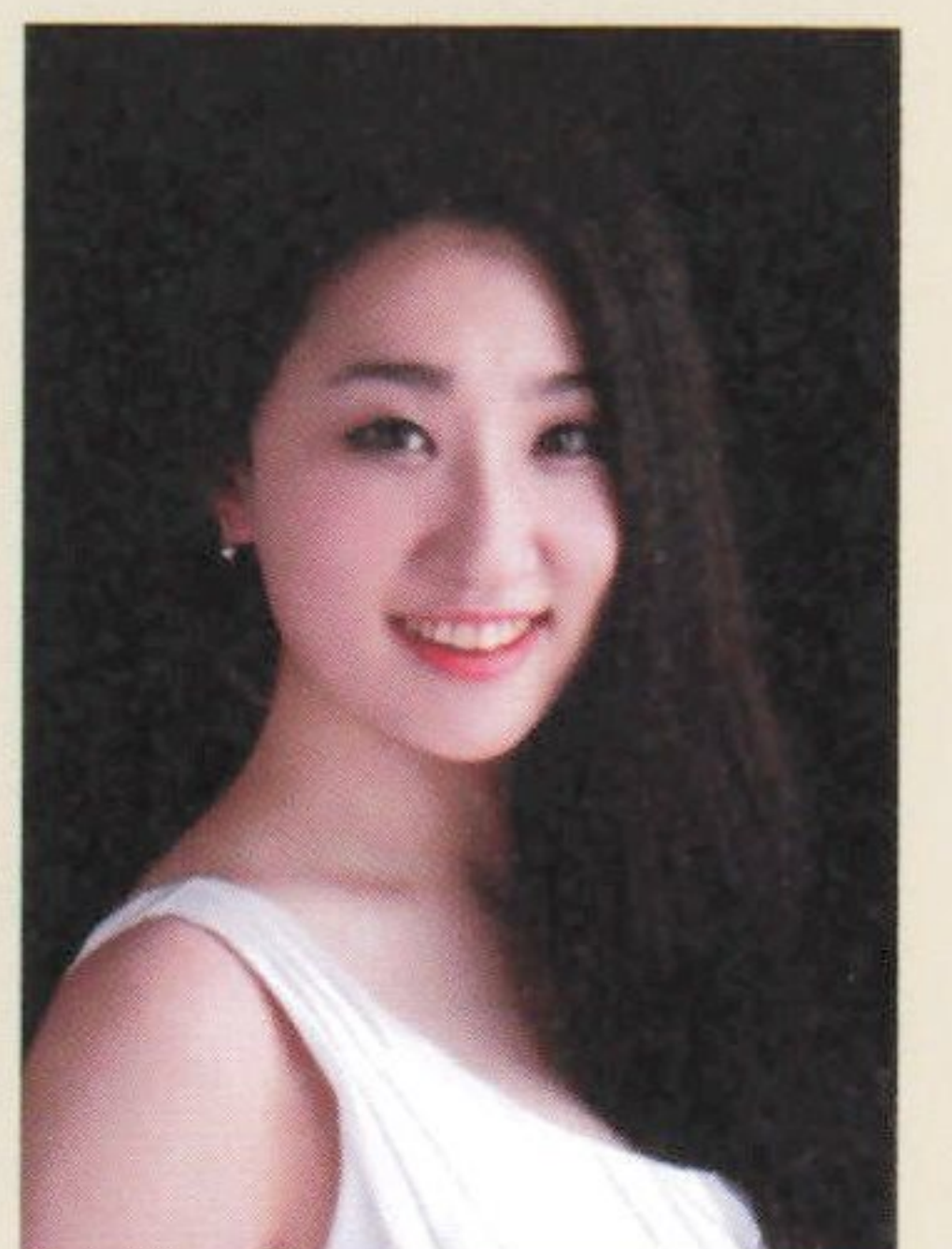
■ 바리톤 강경원



■ 바리톤 김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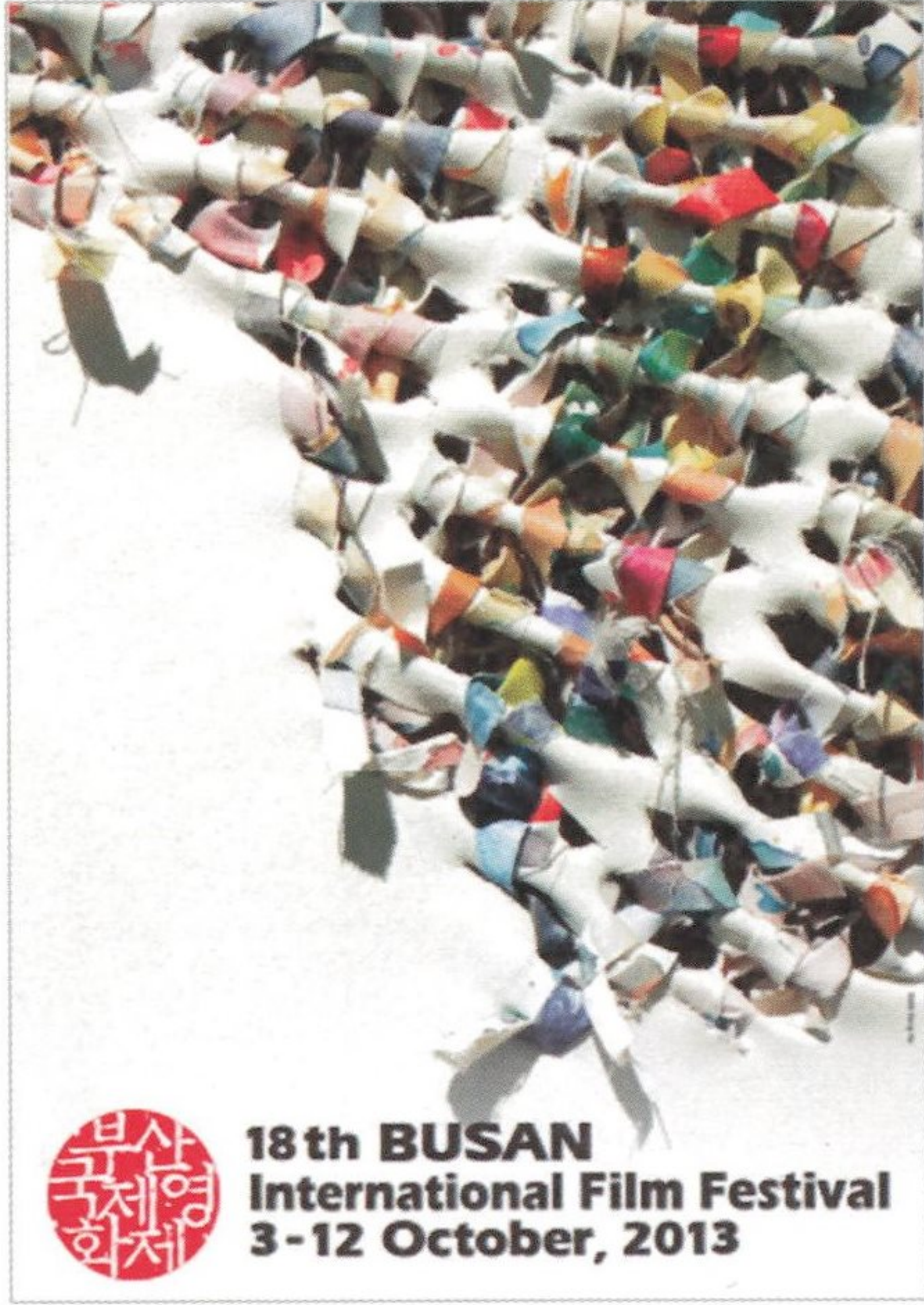
■ 베이스 문동환



■ 소프라노 김혜영



#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영화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한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2013 부산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70개국 299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올해 상영작품 중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는 94편, 자국 외 최초상영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42편에 달한다. 특히 경쟁부문인 '뉴커런츠' 상영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편이 월드,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개막작은 부탄의 고승이자 영화감독인 키엔체 노르부가 연출한 '바라:축복'. 인도의 소설가 수닐 강고파디아이의 단편소설 '피와 눈물'을 바탕으로,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미국, 홍콩, 대만, 인도, 영국 등지의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한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바라:축복'은 인도 남부지방의 전통춤 '바라타나티암(Bharatanatyam)'을 소재로,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자기희생, 역경의 삶을 헤쳐나가는 여인의 강인한 의지가 아름다운 영상미와 함께 펼쳐진다. 폐막작은 2011년 아시아영화펀드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았던 김동현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 '만찬'이 상영된다. 이 영화는 이혼 후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여동생과 대리운전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남동생,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가 미안한 노부모가 겪는 가족의 불행과 불운을 다루고 있다.

올해 개막식 사회자로는 홍콩 영화배우 귀부청(郭富城)이 초청돼 영화배우 강수연과 함께 개막식을 이끈다. 개, 폐막작 예매티켓은 9월 24일부터(인터넷 예매만 가능), 일반 예매티켓은 26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과 부산은행 전 영업점 창구, 부산은행 ATM 및 폰뱅킹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 갈라 프레젠테이션

세계적 거장의 신작이나 화제작, 월드프리미어 등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은 올해 5개국 6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종교의 신념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카달(인도)'과 고아원에서 나온 소녀들의 절망적인 삶을 그린 '나기마(카자흐스탄)',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동명의 1992년 작품을 리메이크한 '용서받지 못한 자(일본)', 원 테이크 영화의 형식적 실험이 돋보이는 '아나 아라비아', 스크린X 상영관을 위해 만들어진 김지운 감독의 단편영화 '더 엑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해 폭발적인 흥행성적을 기록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상영된다.

## • 아시아 영화의 창

아시아영화들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아시아영화의 창'에서는 16개국 54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올해 아시아영화의 주요 화두는 여전히 독립영화로, 젊은 감독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에미르 바이가진, 안소니 첸, 에르볼 주마굴로프, 아키라 이케다, 코롤도즈 초이주반지그, 리테시 바트라 등 신인감독들의 데뷔작은 올해 아시아영화를 풍성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10월 3일(목)-12일(토)

영화의전당 외 6개 극장

관람료 : 개 · 폐막작 2만원

일반상영작 6천원 · 3D상영 8천원

미드나잇 패션(심야상영 3편) 1만원

문의 :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1688-3010, www.piff.org)



### • 뉴커런츠

재능 있는 아시아 신인 감독을 발굴하기 위한 경쟁부문으로, 올해 9개국 12편이 작품이 초청된 '뉴커런츠' 부문은 과감한 형식적 실험과 시간과 국경을 뛰어넘는 열린 시각과 사회 문제 의식, 성장영화 등을 만날 수 있다. 처음으로 몽골영화가 뉴 커런츠 부문에 초청되어 화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영화 역시 독립영화 수작들이 많아 올해는 3편이나 초청되었다.

### • 한국영화의 오늘

화제의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파노라마'에서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잇단 백혈병 사망을 다룬 '또 하나의 가족',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뒤 3분가량을 덜어내 겨우 국내 상영이 가능하게 된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감독에 도전하는 배우 박중훈과 하정우가 각각 연출한 '톱스타'와 '롤러코스터' 등 14편의 작품과 독립장편영화 10편이 상영된다.

### • 한국영화 회고전 '한국영화의 개벽:거장 임권택의 세계'

데뷔작 '두만강아 잘 있거라(1962)'에서부터 101번째 영화 '달빛 길어올리기(2010)'까지 끝없는 열정과 놀라운 실험정신으로 한국영화의 미학적 고유성을 치열하게 탐색해온 임권택 감독의 작품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고전으로, 개막식 전인 오는 9월 23일부터 상영을 시작해 임권택 감독의 영화 70편을 소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작전을 진행한다.

### • 월드시네마

올 한해 비아시아권 영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월드시네마'에서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신작과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화제작 51편이 상영된다. 칸 '황금종려상'이나 베를린 '황금곰상' 수상작 등 최고의 화제작과 안제이 바이다, 지아니 아멜리오, 필립 가렐 등 중견 작가들의 신작을 오랜만에 만나볼 수 있다.

### • 플래시 포워드

비아시아권 신인감독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영화를 통해 세계영화의 젊은 흐름을 살펴보는 '플래시 포워드'에서는 올해 신인감독들의 독창성과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27개국 31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동시대 사회가 앓고 있는 문제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날카롭게 지적하며 독특한 접근 방식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상영된다.

### • 와이드 앵글

올해 '와이드 앵글'은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국가의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구성, 다큐멘터리는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사회와 국가, 민족의 역사를 반추하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 양식을 풀어낸다. 단편은 넘치는 상상력과 새로운 영화언어를 선보이며, 애니메이션은 특색 넘치는 화풍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사한다.

### • 오픈시네마

대중적인 영화를 낭만적인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만끽할 수 있는 '오픈 시네마'는 올해 6개국 8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판타지영화 '나는 파리다(인도)'와 법정 스릴러영화 '침묵의 목격자(홍콩)', 요리경연대회를 소재로 한 코미디영화 '요리대전(대만)', 나약한 주인공이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나와 엄마 이야기(프랑스)', 그리고 올해 한국영화가 거둔 액션 스릴러영화 '감시자', '더 테러 라이브' 등이 상영된다.

### • 특별기획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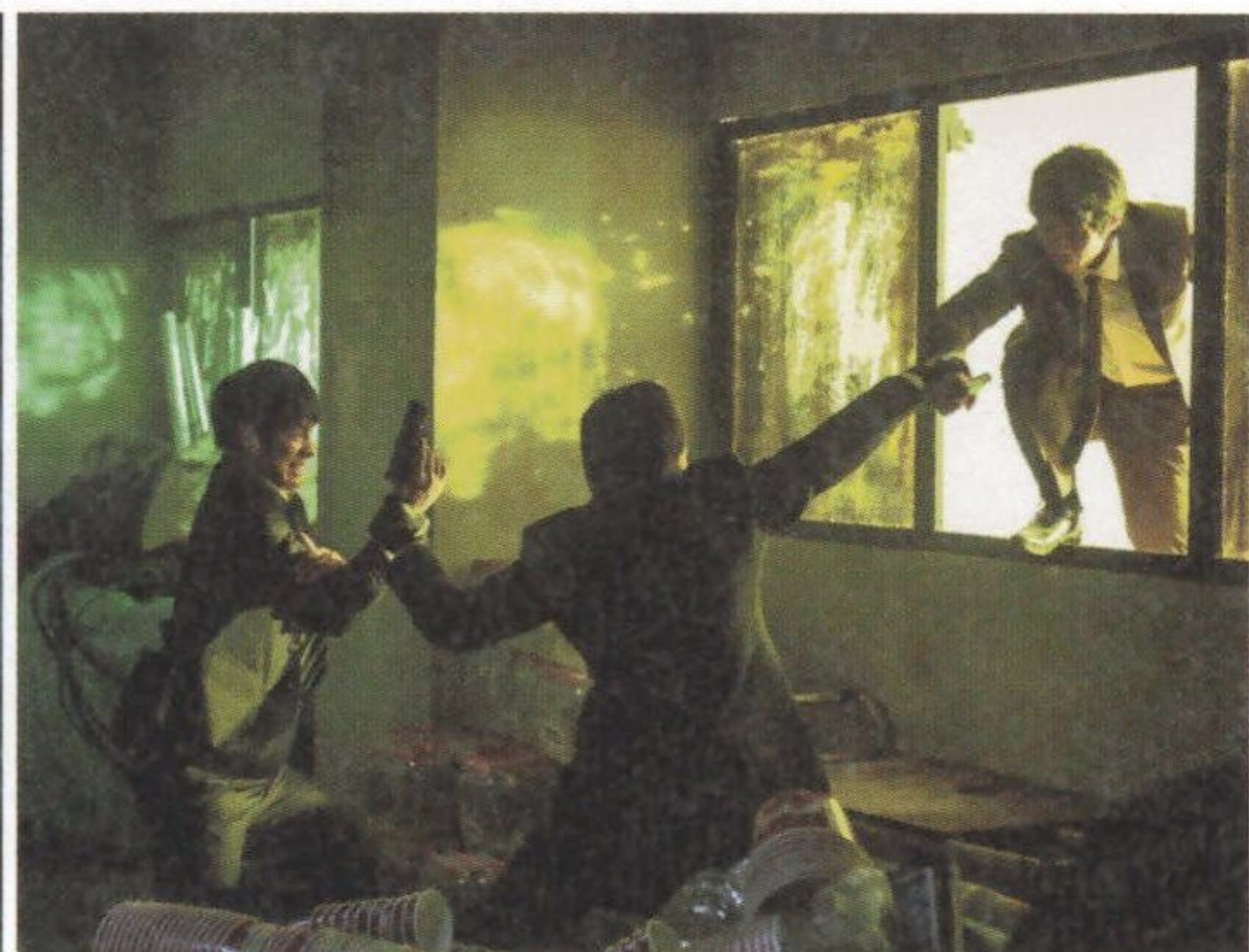
구 소련체제의 붕괴와 내전, 많은 영화인들의 해외 이주 등으로 많은 수작들이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던 중앙아시아영화를 특별조명하는 '잊혀진 중앙아시아의 뉴웨이브 영화'와 '아일랜드 영화 계빅 3'라고 불리는 존 부어만, 닐 조단, 짐 웨리단을 비롯해 아일랜드 감독들의 영화를 소개하는 '아일랜드 영화 특별전:더블린에서 할리우드까지', 2013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박철수 감독을 추모하는 '박철수 추모전:영원한 영화 청년' 등이 열린다.

### • 미드나잇 패션

부산국제영화제의 주말 밤을 책임져줄 '미드나잇 패션'에서는 9개국 12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좀비영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1978년작 '새벽의 저주'가 제작자 리처드 루빈스타인에 의해 드디어 3D로 재탄생되어 전 세계 최초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되는 등 스릴러, 호러,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의 상업영화들이 심야 관객들을 맞는다.



■ 개막작 '바라:축복'



■ 갈라 프레젠테이션 '더 엑스'



반갑습니다 ●

부산은 내게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도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





부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으로 부산음악팬들과 친숙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10월 31일, 가을 서정을 담은 특별한 무대로 부산 음악팬들과 만난다.

1994년 한국 국적으로 최초로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3위 입상해 화제를 모은 백혜선은 강렬한 타건과 기교를 뛰어넘어 섬세한 서정을 두루 표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폭 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10월 31일 연주회에 앞서 독주회로는 1년 반 만에 부산을 찾는 백혜선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서면으로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부산

-부산은 자연과 문화가 가장 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부산국제음악제, 독주회 등 연주회를 위해 부산을 찾을 때마다 부산은 언제나 제게 영감을 주고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제가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 클리블랜드음악원 교수로 변신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선생님께 많이 의지하고 있지요.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 등 수동적인 자세인데 반해 외국 학생들은 독립적이고 진지하며 모든 것을 선생님이 다 만들어주길 원치 않고 본인의 개성이나 지식에 선생님의 티칭(teaching)은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능동적인 것이 달라요.

### 항상 노력하는 백조, 백혜선

-늘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 비유를 잘 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렇게 해야 하고 겉으로 여유 있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언제나 표 나지 않는 자신만의 진지한 도전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최초, 최고의 수식어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피아니스트

-한국 국적 최초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입상, 최연소 서울대학교수 임용 등 많은 수식어들을 얻었습니다. 본인의 길을 열심히 걷다보면 상대적으로 비교 당하면서 수식어를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제 자신은 그런 수식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 여행과 수영으로 재충전

-어느 한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디에나 적용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옆을 보면서 상대적인 평가를 당할 때 마음 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오는 중압감이라든지 상대적인 것에 대해 별 상관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본인의 길을 걸을 때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늘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며 늘 도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틈틈이 여행과 수영으로 재충전을 합니다.

### 엄격한 연주자, 교육자로 언제나 정진

-순간순간 무엇을 연주하고 싶은지, 무엇을 표현해야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나를 제 자신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또한 본인이 연주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듣는 귀를 가지고 언제나 강조합니다.

### 10월의 성찬 'Into the Variations'

이번 음악회는 'Into the Variations'란 제목으로 변주곡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주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리듬, 멜로디, 화성을 변화시키며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로 나아가는 변주곡을 통해 클래식음악이 주는 경건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베토벤의 '에로이카 변주곡'은 그의 '디아벨리 변주곡'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대곡으로 특유의 패기와 치밀함이 깃든 곡이며 하이든의 변주곡은 애가적인 서정과 짙은 슬픔이 내재되어 있고 라흐마니노프 말년의 고독을 표현한 코렐리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리스트의 베네치아와 나폴리는 클래식음악이 주는 묘미를 나타내는 데 적합한 곡이라 여겨집니다.

부산연주회 이후 12월 보스톤 쇼단홀에서 실내악 연주회로 2013년을 마무리하는 백혜선은 2014년 1월에는 부산국제음악제 음악감독으로, 3월에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심사위원으로 국내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4년은 연주자로 3월, 클리블랜드에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회, 여름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뉴욕 IKIF에서의 독주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야 한다.

전 세계를 누비는 바쁜 일정이지만 부산 음악팬들과의 만남을 빠뜨릴 수 없다는 백혜선. 아름다운 10월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부산 음악팬들을 위해 낭만의 가을밤, 아름다운 클래식의 세계를 선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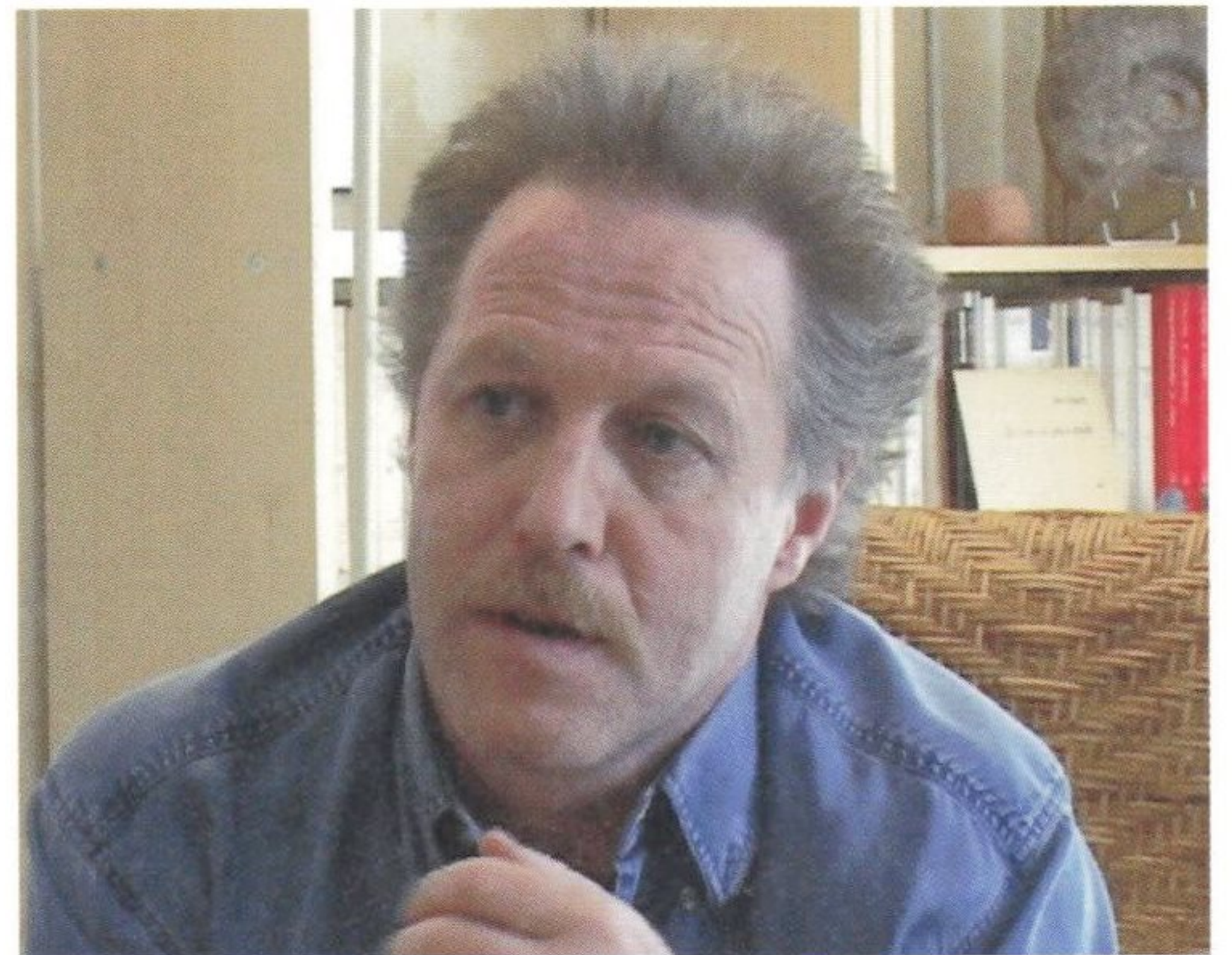
# 루브르로의 특별한 초대, 니콜라 필리베르(Nicolas Philibert)의 루브르 도시(La ville Louvre)

■ 전은정\_프랑스 통신원  
파리8개대학 영화과 석사졸업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니케의 승리의 여신,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 앵그르의 오달리스크, 들라크르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아마 '파리'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연상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끝없는 예술품의 리스트를 갖고 있는 루브르박물관이 아닐까 한다.

세계 최고의 방문객 수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늘 진풍경을 이루는 루브르박물관 앞의 긴 기다림의 행렬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보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될 만큼 루브르의 명성은 유일무이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 최고, 최다의 소장품이 있고 세계유산으로까지 지정되어있는 만큼 루브르박물관은 굳이 이유를 묻지않고도 꼭 방문해야 하는 여행지 중의 하나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나는 '루브르박물관'이라는 이름에서 즐비한 명작들의 향연이 아닌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니콜라 필리베르(Nicolas Philibert)감독의 '루브르 도시(La ville Louvre)'라는 다큐멘터리 때문이다. 1978년 제라르 모르디아(G rard Mordillat)와 함께 만든 다큐멘터리 '주인의 목소리(La voix de son ma tre)'로 영화인의 삶을 시작한 니콜라 필리베르는 '들리지 않는 땅(Le

■ 니콜라 필리베르 2002년



■ 손전등의 불빛아래 드러난 기원전 4세기에 만들어진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Diane chasseresse)'의 실루엣.



■ 클로드 젤레의 '노을지는 항구(Claude Lorraine, Port de mer au soleil couchant, 1639)'를 운반하는 인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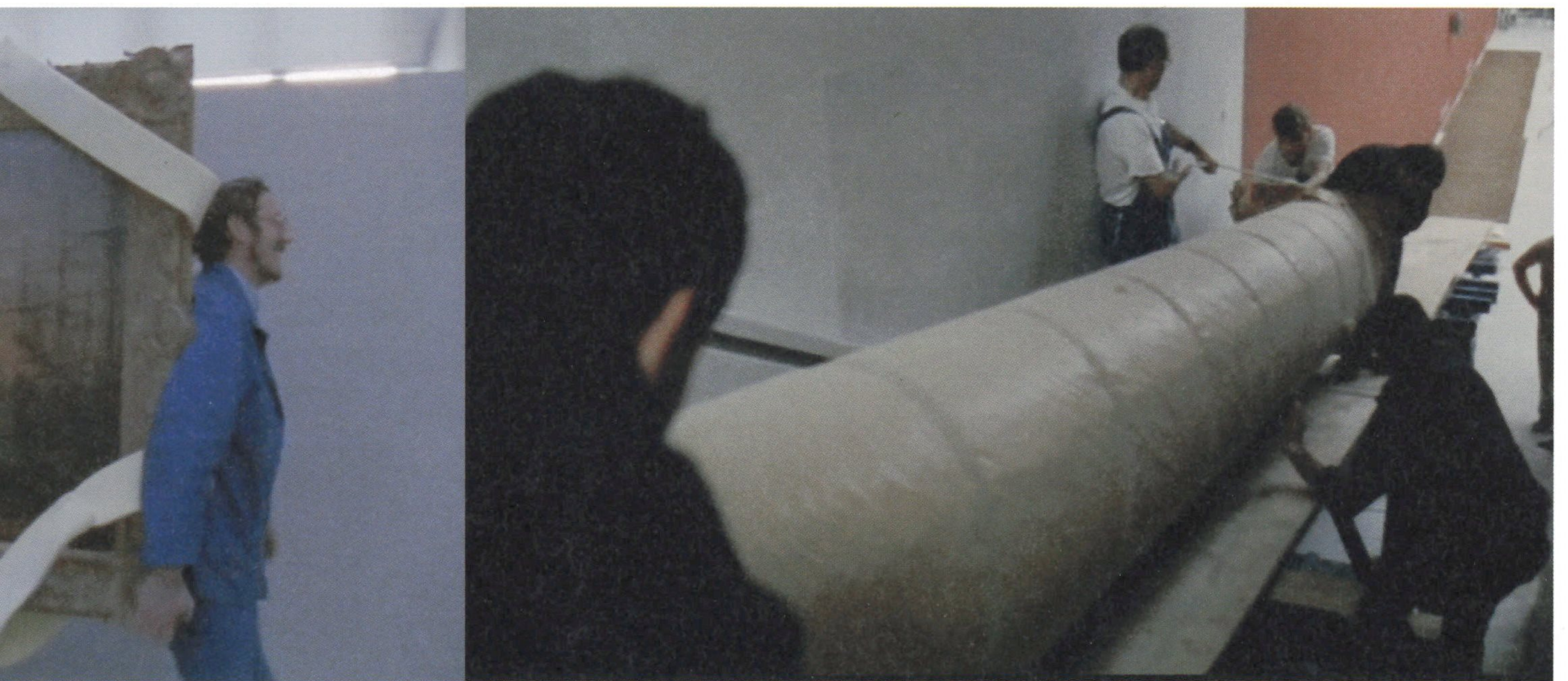
니콜라 필리베르감독의  
다큐멘터리 '루브르 도시'는  
루브르박물관의 준비한 명작이  
아닌 그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pays des sourds, 1992)' '가장 작은 것(La moindre des choses, 1997)' '마지막 수업(Être et avoir, 2002)' 등 지금까지 18편의 작품을 만든 예순을 넘긴 프랑스 현역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1990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로 유럽 최고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작품에게 주어지는 '유로파상'을 수상하면서 그의 가치를 알리게 된다.

우선 이 다큐멘터리의 탄생 배경을 지나칠 수 없다. 프랑스 역사상 두번의 대통령 당선으로 가장 긴 임기기간을 가졌던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은 첫 당선때인 1981년 루브르 전체를 박물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작업을 기획함으로써 루브르는 제2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그 유명한 유리피라미드가 세워졌으며 특히 사무실, 지하보관소, 전시관과 아뜰리에, 도서관, 식당, 카페테리아 등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1989년 루브르는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시기를 같이하여 루브르가 니콜라 필리베르에게 50년동안 지하보관소에 잠자고 있던 샤를르 르브랑(Charles Le Brun)의 대작, '알렉산더대왕의 바빌로니아 입성(L'Entrée d'Alexandre le Grand dans Babylone, 1665)'을 전시실로 옮기는 작업을 촬영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다큐멘터리 '루브르 도시'는 탄생하게 된다. 이 그림은 20여명이 넘는 장정들이 옮겨야 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에도 더 유명하니 이 작품을 옮기는 작업자체가 하나의 흥미로운 광경이 될 법하였다.

루브르의 새 정돈 작업의 시작부터 관람객을 맞을 단장을 끝낸 마지막까지 1시간 25분을 담아낸 이 영화는 흔히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명작들을 훑어보고 설명하는 미술 관련 르포도 아니며 루브르의 홍보용 영상물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

니콜라 필리베르는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루브르를 카메라에 담는다. 철학을 전공한 이 감독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학적, 예술사적 또는 모랄리스트적인 방식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이 상황에 젖어들어가며 그의 시선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 엄청난 크기(가로 4.7m 세로 12.64m)를 가능할 수 있는 샤를르 르브랑의 대작 '알렉산더대왕의 바빌로니아 입성'을 옮기는 작업



이 아닌 숨겨져있는 곳으로 향하면서 빛을 발한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영화는 루브르라는 박물관을 하나의 도시로 재발견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카메라가 어둠속에서 계단을 오르는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시작한다. 어둠속에서 손전등이 너울거리고 미스터리 영화 속에서 나올법한 오래된 장식이 있는 육중한 나무문을 누군가가 열고 들어가면 이어진 고대조각들을 지나 '가브리엘 데스트레아와 그 자매들(Gabrielle d'Estrées et une de ses sœurs, 1594경, 작가미상)', 들라크르와의 자화상(Delacroix, Autoportrait au gilet vert, 1837), 틴토레토의 자화상(Tintoretto, Autoportrait, 1588), 렘브란트의 자화상(Rembrandt, Autoportrait, 1961)이 작은 불빛속에 일렁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움직임의 주인공이 루브르의 밤을 지키는 경비원들이란걸 알게 된다. 이 밤을 지나 작품들을 이동시키는 기증기의 굉음이 루브르의 새벽을 깨우면서 각자의 업무가 시작된다. 운송원은 웅대한 그림들을 조심스럽고 익숙한 동작으로 옮기고 우편담당자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미로같은 복도를 지나 우편물을 전달하며 전화안내원들은 밀려드는 문의에 답하고 복원가들은 새 화폭을 대고 보정하며 미화원들은 내부청소를 하고 안전요원들은 응급시를 대비한 모의훈련을 한다. 그리고 큐레이터들은 조금이라도 더 그림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고민한다. 감독은 이렇게 루브르 사람들의 일상을 현대의 카메라로 조심스럽고 담담하면서도 주의깊게 쫓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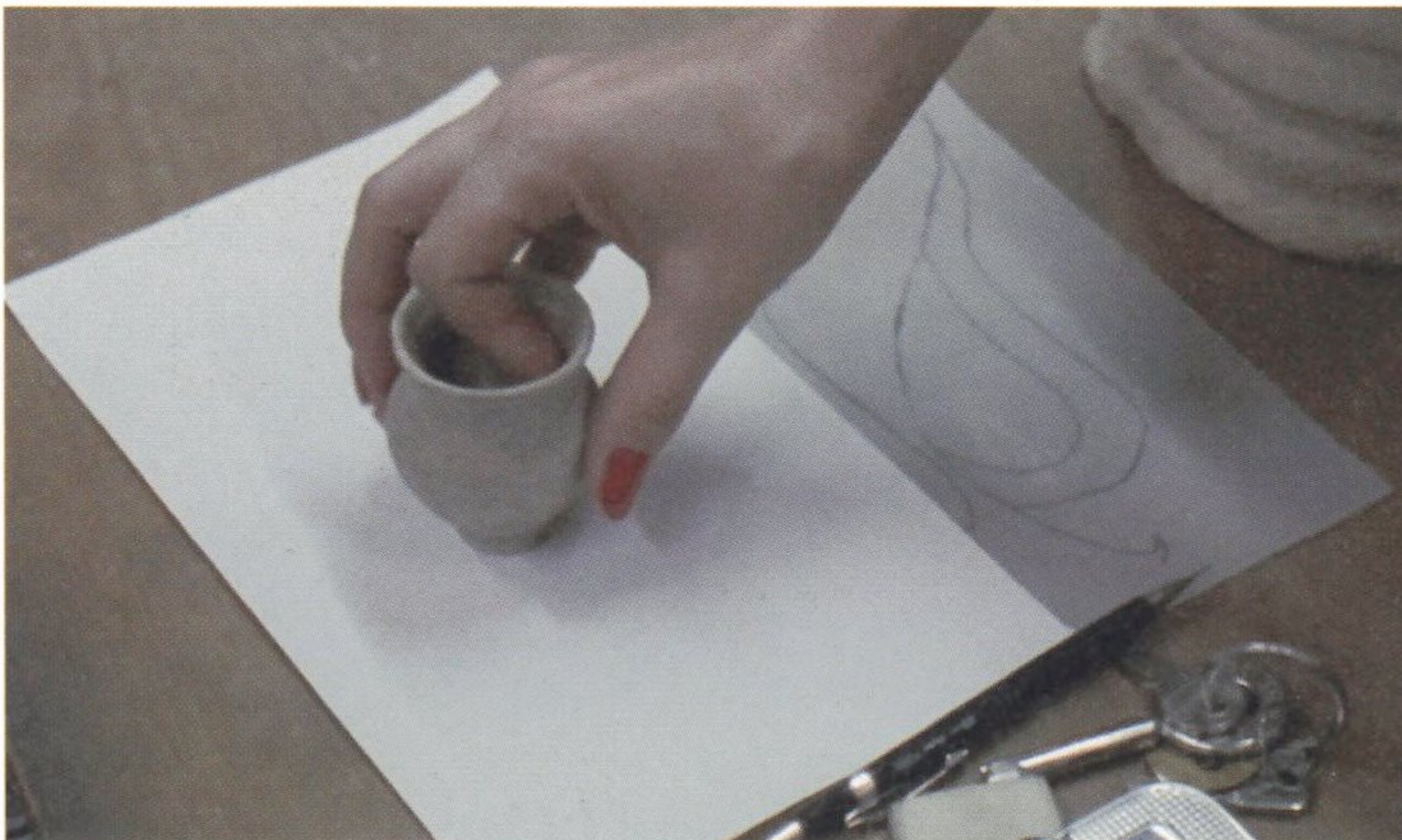
니콜라 필리베르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어떠한 인터뷰나 나레이션, 자막 등으로 관객의 감정을 강요하거나 조절하지 않는다. 음악 또한 현악기의 단조로운 멜로디만으로 개입을 자제하며 찍히는 대상을 강조하기 위한 어떠한 조명도 사용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오가는 일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소리와 그들의 대화, 현장음만으로 거대한 루브르라는 공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다보면 우리는 전시관을 지나고 끝없이 이어진 계단들을 지나 어느새 유수한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지하창고까지 가게 된다. 루브르는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술품을 전시하는 육중한 건물로만이 아닌 생명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처럼 다가온다. 이렇게 숨겨져있던 루브르의 이면이 조심스럽게 드러나는가 하면 관리요원들의 새 유니폼 가봉 모습과 체력단련 모습을 볼 수

있는 헬스장까지 카메라는 그들의 사적인 일상도 놓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삶에 한층 가까워진 인상을 받게 한다.

청색옷을 입은 한 청소원이 정리되지않은 한 전시관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다. 그 바로 뒤에 아직 걸리지않은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 똑같은 색의 옷을 입은 동정녀 마리아다. 사람과 그림이 한 공간속에서 어우러지는 숭고하고 경이로운 구도다. 그는 일하는 루브르의 사람들의 일상을 따라가며 이곳을 숨쉬게 만드는 사람들과 이 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니콜라 필리베르는 루브르의 예술작품들, 그 자체를 찍고 칭송하는 것을 거부한다. 영화속에서 보여지는 이 세기의 걸작들은 그것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한다. 그에게 박물관이란 '동시대인들에게 작품들을 보여주고 다음세대를 위해 최고의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하나의 인류공동체이다. 이 예술작품들은 우리의, 인류 문화유산의 한부분이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정의내린다. 시대의 흔적을 담고 보존, 계승하는 박물관의 활동은 그의 영화작업 모습과 묘하게 닮아있다.

니콜라 필리베르는 이 루브르의 사람들을 한명씩, 말없이 카메라를 향하게 하면서, 마치 활인화처럼, 이들의 흔적을 필름에 새김으로서 '루브르 도시'의 여정을 마친다. 이들은 루브르와 함께 움직이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루브르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에게 감독은 경의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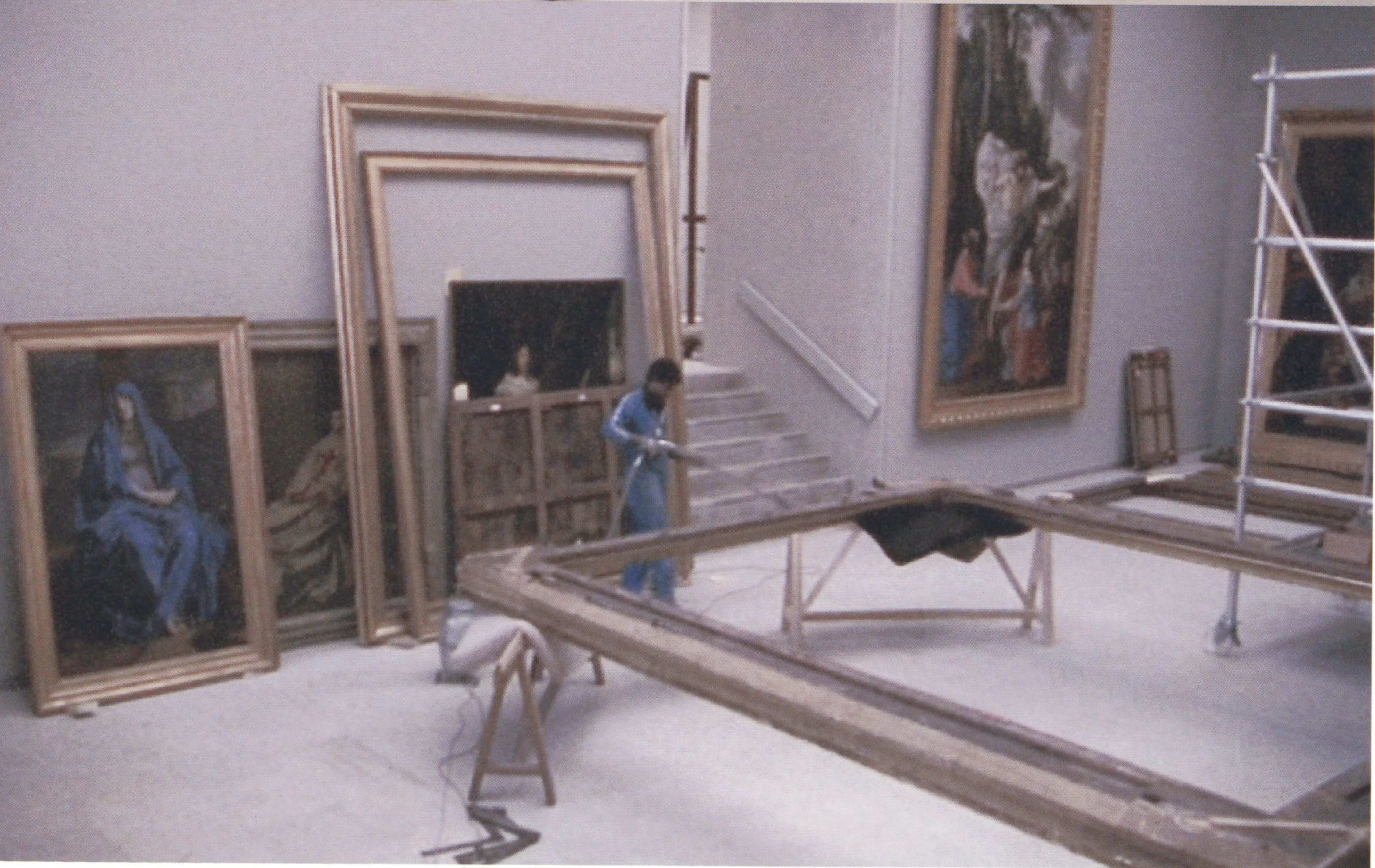
■ 루브르를 가로질러 미로같은 수많은 계단을 내려와 지하보관소로 가서 내려놓는 이 작은 고대 공예품은 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루브르 박물관과 기이한 대조를 이룬다.

■ 입생 로랑이 디자인한 루브르 유니폼을 입어보는 한 관리원





■ 5살린더에 감겨 있던 '알렉산더대왕의 바빌로니아 입성'을 펴고 있다.



■ 예술품과 일하는 인간의 절묘한 조화



# 괴테와 글루크의 스타우리스의 이피게니에 그리고 브람스의 운명의 여신의 노래 (上)

■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고전주의의 어원은 라틴어 'classis'이다. 'classis'은 본래 로마후기에 세금징수를 위한 재산소득의 분류를 목적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일등급의 시민계급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2세기경 로마의 저술가 겐리우스는 연설과 문장에서의 문법적 정확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빈약한 저술가'에 대응하여 '일반적 등급의 저술가'를 따르도록 권유하면서 'classicus'이라는 사회적 용어를 문학적인 용어로 은유적으로 적용하여 규범적인 작가를 나타내었다. 모범적이며 표본적이라는 개념의 '고전적'이라는 말이 'classicus'의 본래적 의미에 연관되며, 예술가와 천재에 의해서 형성된 초시간적인 예술과 삶의 이상, 이미 사라진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방향을 제시해 보이는 규범과 모범으로서도 이해된다. 오늘날에는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영국문학을, 16세기와 17세기의 스페인문학을, 17세기 루이 14세 때의 프랑스문학을, 그리고 18세기 전후의 독일문학을 '고전주의'라 부르고 있으며, 셰익스피어, 칼테론, 라신과 괴테를 고전적 작가라 부른다.

레싱의 <현자 나탄>, 실러의 <돈 카를로스>와 함께 소위 독일고전의 3대 비극이라 일컬어지는 괴테의 <스타우리스의 이피게니에>는 에우리피데스의 그리스 비극 중 하나인 이피게니에의 이야기를 신고전주의 문학으로 변모시킨 희곡작품이다. 영원한 가치, 보편적 인간성, 절제와 조화, 고귀한 정신의 아름다움을 그려낸다는 측면에서 독일고전주의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일치, 등장인물의 제한, 줄거리의 엄격한 구성, 운율 등 까다로운 형식을 요구하는 고전주의 드라마의 모범이기도 하다.

에우리피데스가 쓴 <타우리케의 이피게네이아>의 결말이 어디까지나 신들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괴테의 <스타우리스의 이피게니에>는 고매한 이성을 지닌 인물들이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극을 이끌어 나간다. 트로이를 정복하러 나선 아버지 아가멤논에 의해 순풍을 비는 희생 제물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제단에 바쳐지는 끔찍한 순간을 겪어야했던 이피게니에의 이야기는 많은 작가들의 소재가 되었지만, 대부분 그녀를 수동적



■ 괴테





■ 브람스

인 비극의 여인으로 그렸던 데 비하여, 괴테는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삶의 지평을 가져다주는 구원자적인 존재로 그린다.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은 이성에 대한 믿음이며 대화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극의 구조를 완결시키는 것이 괴테의 문학적 전략이기도 하다. 여성이며 이방인으로서의 이피게니아가 남성이며 권력자인 타우리스의 왕 토아스와 동등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 이성의 힘이며 인간에 대한 신뢰이고, 이피게니아가 보여주는 극치의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제물로 바쳐진 죄 없는 이피게니어를 구름에 감춰 살리는 대신 타우리스 섬에서 자신을 섬기는 사제로 살게 한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아가멤논이 아내인 클뤼타이메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아이기토스에 의해 살해되고, 그 둘은 다시 아버지의 복수를 꾀하는 이피게니에의 두 동생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 남매에게 살해당한다. 복수의 신의 추적을 받는 오레스테스와 그의 친구 필라테스는 헤어진 누이 이피게니

아가 사제로 봉직 중인 타우리스에 도착한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오누이는 우여곡절 끝에 서로를 알아본다. 그러나 그녀는 섬에 온 이방인은 누구든 제물로 바칠 의무가 있는 사제이다. 은인인 타우리스의 토아스 왕을 속이고 탈출해야하는 이피게니아가 복잡한 마음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탄식하는 독백이 바로 '운명의 여신의 노래'이다.

인간의 자손들이여,  
신들을 두려워하라.  
신들은 영원한 손에  
지배권을 쥐고 있고  
기분 내키는 대로  
휘둘러 수 있으니.

인간을 늘 높여주는  
신들을 더욱 두려워하라!  
높은 바위와 구름 위  
황금 탁자 주위로  
의자들이 마련되어 있도다.

불화가 일어나면  
손님들은 치욕스럽게  
굴욕적으로 밤의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려가  
암흑 속에 묶인 채  
공정한 재판을  
헛되이 기다린다.  
그러나 신들은 그곳  
영원한 축제가 벌어지는  
황금 탁자에 머물러 있지.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로 걸어 다닌다.  
깊은 심연 속에서  
질식한 타이탄들의  
입김이 피어올라  
제물의 향처럼  
열은 구름을 이룬다.

지배자들은 그들의  
자비로운 눈을  
모든 인종에게 돌리고  
예전에 사랑하던 자들의  
손자들에게 나타난  
조용히 호소하는 표정을  
보지 않으려 하는구나.

여신들은 또 노래했지.  
내쫓긴 자들은  
어두운 지옥 속에서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자식과 손자들을 생각하고  
머리를 흔든다고.

이피게니에는 토아스 왕에게 자신의 처지와 속명을 호소하고, 왕은 그녀에게 설복되어 떠나도 좋다고 허락한다. 에우리피데스의 고전희곡에서는 마지막에 이피게니에가 토아스 왕을 속이고 동생과 함께 도망친다. 반면 글루크가 작곡한 동명의 오페라는 먼저 탈출한 필라테스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토아스 왕을 죽이고 오누이를 탈출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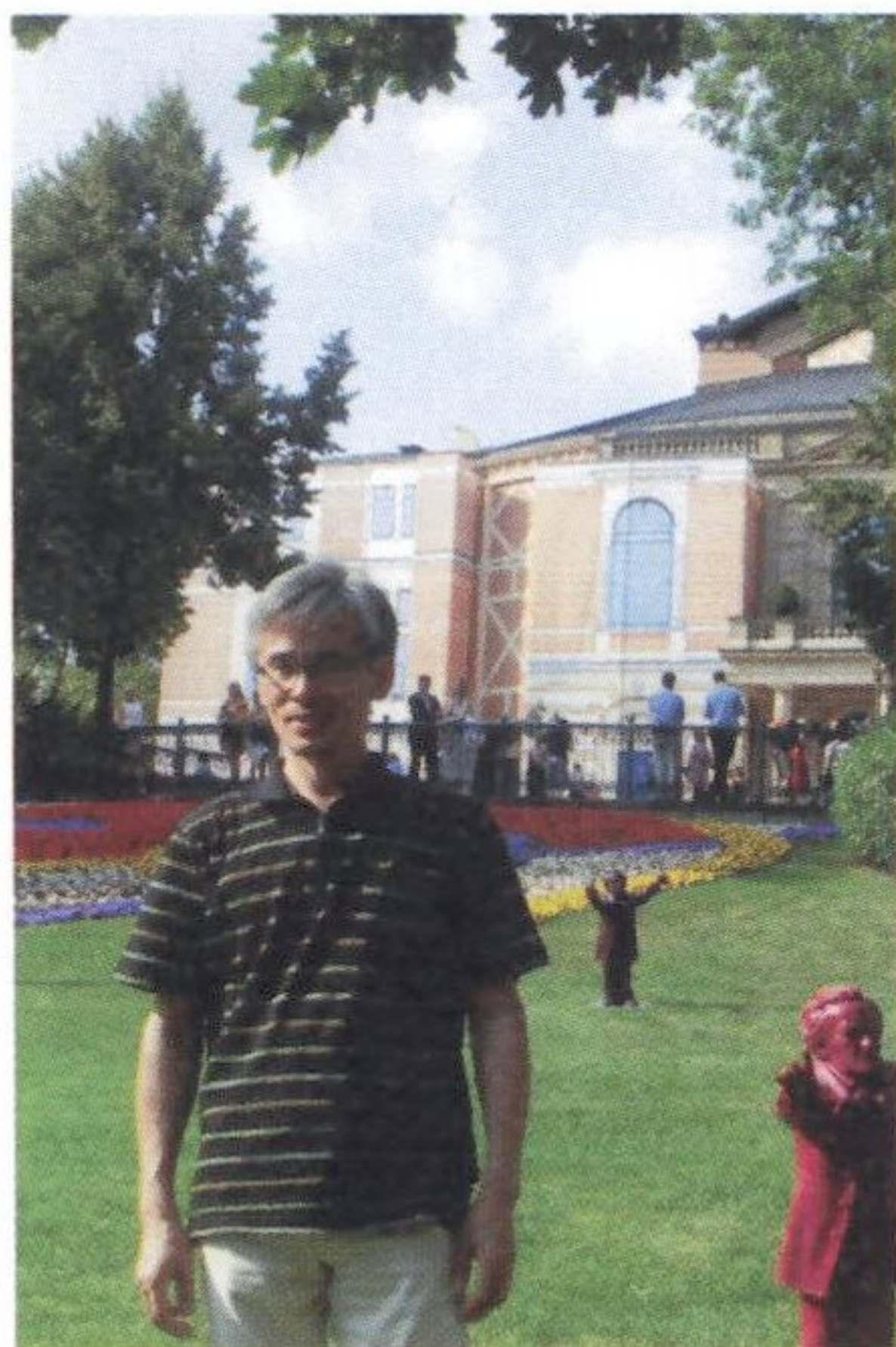


바이로이트 스케치

# 21세기의 바그너 문화와 독일의 간판 V

■ 임채홍

바이로이트대학교 음악학 박사



■ 푸른 언덕의 일명 '바그너 난쟁이'들과 함께

바그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전 세계의 클래식 음악계와 나란히 서있으면서도 명실 공히 그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바이로이트일 것이다. 축제의 열기와 동반된 고온현상은 한반도에서의 그것보다 짧았다는 점 이외엔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북위 50도에 위치한 바이로이트가 섭씨 38도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상기후다. 그러나 올해 한·독수교 130주년 기념우표의 모티브로 경북 공 향원정과 나란히 채택된 '에레미타제(Eremitage 은둔지)'공원의 '태양궁전' 뒤로 이어진 '라우벤강(수목동굴)' 뿐 아니라, '반프리트(바그너 생가-박물관)'를 품은 도심 '호프가르텐(궁정정원)'의 아름드리 수목 아래에는 천상의 쾌적함과 한가로움이 지배한다. 이런 '이딜레(Idylle 목가풍의 전원)'만이 자신의 얽히고 설킨 총체예술을 접한 관객들에게 머리를 식힐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그너에게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탄과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바그너는 마치 신과도 같다"는 것을 느낀다. 이것은, 방문소감을 묻는 한국의 KBS 클래식라디오 취재진에게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실제로 뱀은 말이다. "Wagner ist hier wie ein Gott!"

독일적인 사고의 가시화이기도 한 축제의 잔칫상들이 한국인들에게 종종 예상 밖의 분위기로 놀람과 실망 중 하나로 다가오는데, 모든 중요한 건물들이 '공사장'이었다는 점은 바이로이트 주민들과 자국인 방문객들이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다. '반프리트(바그너박물관)', '마르크그래플리헤스 오퍼른하우스(변경백작 오페라하우스)', '슈타트기르헤(신교 중앙교회)', 그리고 '페스트슈필하우스(바그너축제극장)' 자체가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우연한 일치이긴 하지만, 이런 중요한 기념의 해에 맞닥뜨려진 것에 대해 손님을 맞는 시민들은 고개를 흔들 뿐 아니라, 방문객들보다 앞서 '우둔한 독일인들'이라는 말로 미안함을 표한다. 축제극장의 정면과 측면 일부에 보수공사로 인해 철골이 설치되어 있고, 표면은 실물처럼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엔 실물과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언덕 위에 세워진 200여 개의 일명 '난쟁이 바그너' 조형물과 더불어 축제는 화사했다. 예술계와 문화계의 집중분석, 언론의 고조되었던 비판과 우려 등등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채색화가 되어 바그너를 장식했고, 서점과 도서관의 바그너 문헌 장서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했다. '비판'과 '찬사'는 마치 양 손처럼 공존하며, 이들이 박수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독일인들은 일찍부터 터득했고, 일상에 속한다. 이것은 공연종료 시, 내리는 막이 미처 바닥에 닿기도 전에 터져 나오는 '박수' 또는 '부(Buh 야유)'에서 극명해진다. 관객들은 누구에게 찬사를, 누구에게 야유를 보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가릴 줄 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바이로이트 관객들만큼 예습과 복습 수준이 높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책 한권에 해당하는 악극의 리브레토(대사)를 거의 다 외우는 사람들이 약 40%는 될 것으로 사람들은 추산한다.

2013년에 선보인 새로운 연출작은 역시 주작(主作) '링(니벨룽의 반지 4부작)'이었다. '세기의 링(Jahrhundertring)'으로 불리는 1976년 프랑스 연출가 파트리스 세로(Pat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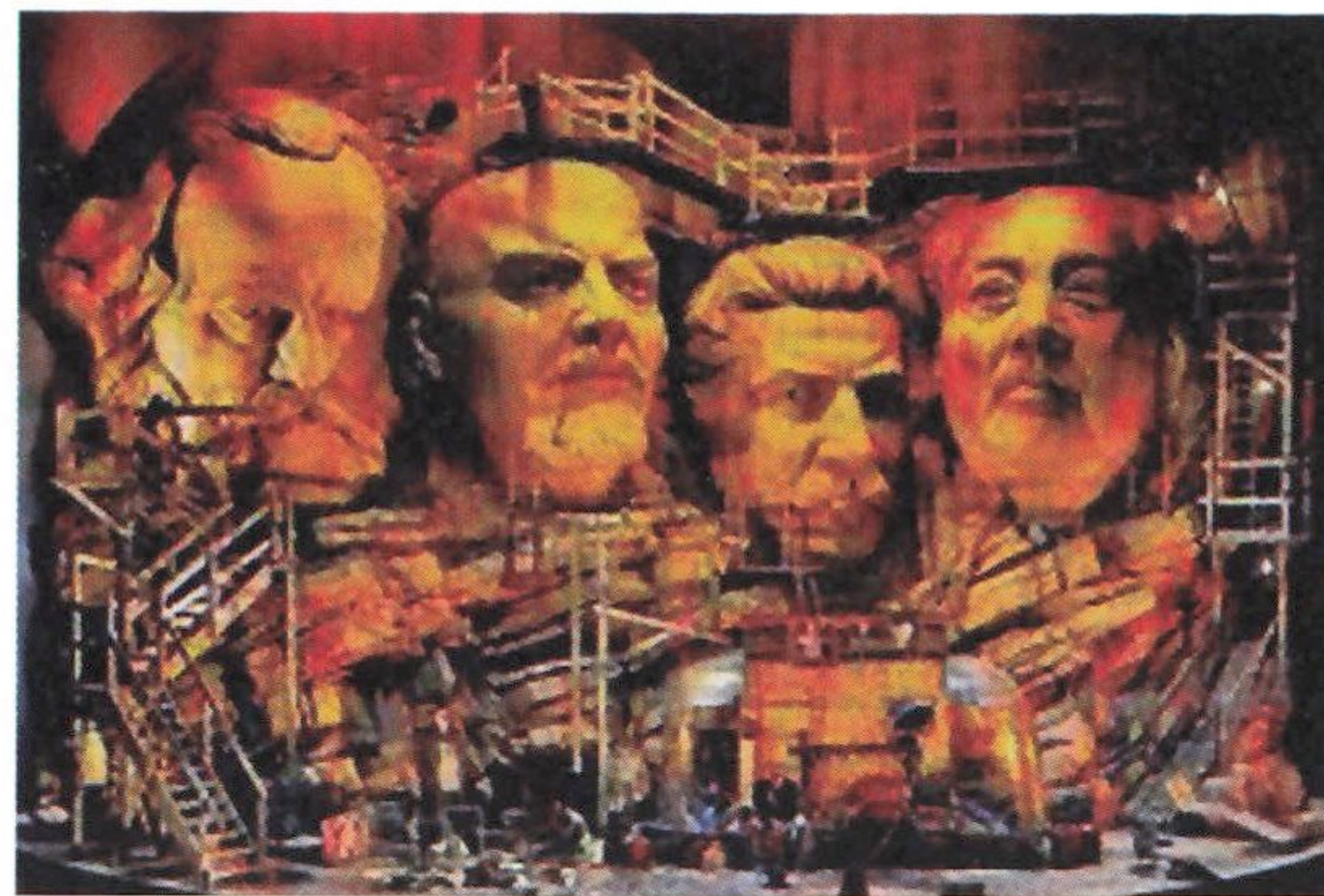


Chereau)의 바이로이트축제 100주년 기념작이 처음 관객들에게 제시되었을 때는 마치 전쟁의 분위기와도 같은 격렬한 반발과 스캔들을 일으킨 데 반해, 5년 후의 종연 시에는 거의 180도로 전향된 관객들이 극도의 황홀감과 아쉬움에 못 이겨 정확히 한 시간 동안 기립박수를 보낸 사실이 축제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베를린 민속 무대(Volksbühne) 총감독 프랑크 카스토르프(Frank Castorf)는 '세기의 링' 대신 '한 해의 링(Jahres-Ring)'을 제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선동가, 작품 분쇄자 등의 별명을 가진 그의 기념작 '링'은 완전히 멸절시키는 야유로 거부하는 관객들과 그들을 향한 연출가의 '이런 백치들'이라는 뜻의 제스처(양 손의 식지로 머리를 꺾는 시늉) 사이에서 화해 없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무대제작자와 성악가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그리고 러시아 출신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Kirill Petrenko)는 마치 개신장군과도 같은 갈채 및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연출자는 이 악극에서 물질만능과 권력욕의 표본임과 동시에 몰락의 상징인 '라인의 황금'을 오늘날의 석유로 해석했으며, 4부작의 무대에 미국 '국도 66번'가의 주유소,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 있는 석유 시추시설, 마운트 러쉬모어(공산주의자들의 얼굴로 대치), 베를린의 알렉산더광장과 터키 되너(Döhner)-가게, 미국의 월 스트리트 등을 등장시켰다. '신들의 황혼'에서 악역인 '하겐'은 한국인 아틸라 전(전승현)이 맡았는데, 몽고병정 내지 네오나치의 모습으로 분장한 가운데, 막대기로 지그프리트와 군터를 쳐 죽이는 연기를 해야 했다. 그도 연출가에 대해 분노를 느낄 만큼 자신의 비인간적 역할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캄머쟁어(Kammersänger)'의 칭호를 받은 베이스가수다.

'방랑하는 화란인'에서 주인공 역과 '로엔그린'에서 왕의 전령을 맡았던 사무엘 윤(윤태



■ 성악가 사무엘 윤 인터뷰 장면



■ '니벨룽의 반지' 중 '지그프리트'의 무대, 10미터가 훨씬 넘는 높이의 거대한 장치다.

현)은 한국의 언론사들(EBS, KBS, MBC 외)의 대대적인 관심을 끌었고, 축제극장 측과 독일의 관객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오페라 인물로 우뚝 섰다. '로엔그린'은 현재 바이로이트 무대에서 가장 사랑받는 연출작이며, 다음으로는 '방랑하는 화란인'이다. 올해 상연된 총 7편 중 나머지 한 편은 '탄호이저'인데, 이 역시 비논리적인 연출로 해마다 박수보다는 야유를 낳는다. 바이로이트 관객들은 세계에서 둘도 없이 비판적이고도 솔직하다.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무대를 이쁨과 동시에 앞서 소개된 '세기의 링'에서처럼 잘 이끌리기도 한다.

바이로이트 시가 마련한 올해의 기념행사들은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 그 가운데 해마다 열리는 오페라축제 이외에 하이라이트는 처음으로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과 그 곳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협력하여 오버프랑켄할레(실내체육관)에서 선보인 바그너의 초기 오페라 3편 '요정들', '연애금지', '리엔치'였다. 또한 가지 중요한 행사는 역시 전 세계에서 해마다 선발되어 오는 바그너 장학생의 축제일 것이다. 약 250명의 장학생들은 미래의 바이로이트의 주인공들로서, 한 주간 머물면서 오페라를 무료로 관람하고, 만찬, 문화시설 방문, 장학생음악회 등에 참여한다. 서울 추계예대 출신 피아니스트 조기화와 부산대학교 성악전공 최유진은 한국에서 선발된 장학생으로 여기에 참여했다. 930억 원의 경비가 소요된 2013년 바이로이트축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나머지 바그너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들은 연말까지 이어진다.



# 혜능선사법력의 향기 혜능상매(慧能賞梅)

■ 변광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김홍도는 도화서 화원과 지방관리 등의 벼슬과 파란만장한 생활을 겪다가, 지천명이 되면서 인생 감회를 위해 불교 소재 회화를 많이 그렸다. 하지만 정조의 명으로 그린 용주사 대웅보전의 후불탱화처럼 예불용 작품을 제외하면 주로 감상용 소품 불화였다. 당시 주변에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다. 그중에서도 빼어난 작품인 <남해관음> <지단관월>(7월호 게재)을 비롯하여 <혜능상매> <염불서승> <산사귀승> 등 여러 소품이 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혜능상매(慧能賞梅)>, 종이담채, 28.8×41.5cm, 개인소장이다. 이 작품 속의 혜능과 주위의 경물모사는 중국 명대의 화보인 <홍씨선불기종(洪氏仙佛奇蹤)>의 불화도상을 따랐다. 혜능선사(慧能禪師:638~713)는 잘 아다시피 중국의 선종 불교사에서 큰 인물이다. <전등록(傳燈錄)>에 의하면, 선불교를 확립한 보리달마(菩提達磨)에서 시작하여 중국 선종의 제5조인 홍인(弘忍)에게 사사받은 자들이 혜능과 신수(神秀)였다. 혜능은 중국의 남쪽에 있으면서 홍인의 의발(衣鉢)을 이어받아 제6조가 되었고, 신수는 북쪽에서 활약하면서 유일한 여성황제 측천무후의 귀의를 받는 등 교화를 펼쳐 나갔다. 그들은 각각 남종선과 북종선의 계보가 되었다.

혜능에 대한 유명한 고사 한가지를 소개한다. 풍번(風幡)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말한다. <전등록(傳燈錄)>에 나오는 이야기다. 어느 날 밤에 사찰의 깃발이 바람에 마구 나부끼자 두 승려가 그것을 본 결과, 한 승려는 깃발이 움직인 것이라 하고, 또 한 승려는 바람이 움직인 것이라 하여 서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 혜능선사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곧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일 뿐이다.(直以風幡非動 動自心耳)”라고 일갈했다. 즉 마음이 몹시 동요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다.

우선 작품의 회화 기법을 보자. 산수를 배경으로 한 전형적인 중국의 고사인물도 양식이다. 혜능선사가 두루마기를 입고 평상에 앉아 우거진 매화 가지를 응시하는 장면이다. 머리에 털모자같은 너울을 쓰고 수염을 기르게 김홍도 당시 스님들의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두줄기 매화 가운데 한쪽이 중앙으로 커다랗게 굽어져 있고, 왼쪽에는 절벽을 이룬 괴석과 성긴 초목이 보인다. 사실 매화 덩쿨의 무성한 가지와 잎은 주인공의 관조 대상에 넣기 위해 약간 부자연스럽게 얽힌채 심하게 휘어져 있다. 오른쪽 머리 위에는 가지에서 노니는 한쌍의 까치를 등장시켜 드넓은 공간구도를 느끼게 한다. 화면 중앙을 가까이 살펴보자. 혜능이 눈앞에 시선을 지긋이 던져놓고 좌선에 들어 있는데, 정좌한 방석 옆으로 두루마리 서화첩, 버드나무 분재화분 및 조그마한 도자기 향로가 나란히 놓여있다. 분재한 버들을 심은 화분은 마치 사찰에서 의례용으로 쓰는 정병(淨瓶)이나 양류관음도(楊柳觀音圖)를 연상케 하며, 향로엔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는 듯하다. 그 옆에 놓인 서첩은 무엇일까. 김홍도의 작품 중에서 <포의풍류>나 <자화상> 등에 보면 두루마리로 된 서화첩이 으레 등장하지만 이것은 예사로운 서화첩이 아닐 수도 있다. 혹시 혜능선사가 수행으로 체득한 불교의 요체를 써놓은 법첩이 아닐지





■혜능상애(慧能賞梅)

모른다. 혜능이 설파한 진리는 4백여 년 지나 남송의 대선사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에 의해 크게 강조된다. 간화선(看話禪)을 강조했던 대혜종고가 불교의 진리를 황제에게 직접 가르쳐주면서 그 요체를 정리한 서첩을 준 바 있다. 따라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서첩도 그러한 모티브에서 나온게 아닐까 싶다.

역대 조사들에 의해 의미심장한 화두가 많이 축적되어 송대에 설두중현(雪竇重顯)이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조주록(趙州錄)> 등에서 100개의 고칙(古則)을 선별하여 수록했고, 원오극근(圓悟克勤)이 수시(垂示), 저어(著語), 평창(評唱)을 붙여 화두 100칙을 모아서 <벽암록(碧巖錄)>을 편찬한 바 있다. 선불교에서는 집착을 끊기위한 마음 다스리기가 항상 화두의 중심이었다. 최초의 수행법이 사념처(思念處)이고, 자신의 마음을 잘 가리켜서 성품을 본다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불립문자 직지인심(不立文字直指人心)이 바로 그 말이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바로 마음을 가리켜 심성을 철저히 본 뒤에 깨닫는다는 뜻으로서 <벽암록>(1칙, 평창)에 나온다.

어느 날 대혜종고 선사가 황제에게 “잠깐이라도 잡념을 일으키는 것이 병이요, 잡념이 계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약이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직 뒤늦게 깨닫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불(佛)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항상 깨닫고 있기 때문에 대각(大覺)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범부로 있다가 깨닫게 된 것일 뿐이니, 그가 이처럼 대장부가 되었고 보면, 나라고 해서 어찌 그렇게 되지 못하라는 법이 있겠는가”라고 설파했다. 이처럼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에게 가장 큰 스승은 불가의 선사였다. 조선시대 유학자 중에서도 불교적 사념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불소통이 잘 되던 문신 조익(趙翼; 1579~1655)은 황제를 깨우쳤던 대혜종고의 글을 읽

고, 일찍이 잡념에 대한 경계의식을 깨달았다.(<포저집(浦渚集)> 19권, 心法要語)

불심천자(佛心天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불교를 숭상하며 절을 짓고 탑을 쌓는 등 불사를 많이 일으켰던 양무제(梁武帝)가 달마에게 자신의 공덕이 “이만하면 크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달마가 “무(無)”라고 대답했다. 즉 ‘무위(無爲)의 공덕을 숭상하는 것이지 유위(有爲)의 공덕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다’는 달마의 뜻이다. 양무제 말년에 지배층은 사치와 무기력에 빠져 동위(東魏)에서 귀순해온 장수 후경(侯景)의 반란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제화를 보자. 화면의 왼쪽 끝에는 ‘그윽한 향기가 온 하늘에 떠다닌다(暗香浮動於諸天)’라는 제화가 쓰여져 있다. 무성한 매화가지 끝에서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향기가 퍼져 나가는 장면은 시각이 후각화되는 순간이다. 글머리에는 김홍도의 관인이 있고, ‘단원’의 관지 다음에는 ‘사(士)’와 ‘능(能)’을 차례로 백색문자의 사각도장으로 눌러 놓았다. 옛 고승들은 밤중에 동자가 차주전자 씻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그러면 동자는 누구이고 주전자는 무엇인가?





식막한 도심공단에 부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바람  
예술인 레지던스 창작공간

홍티아트센터  
HONG-TI  
ART CENTER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도심공단지인 다대동 무지개공단.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식막한 회색공단에 '무지개' 이름이 부쳐진 것은 바로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포구인 홍티포구 때문이다. '홍티'의 홍이 바로 무지개 홍(虹). 일명 '무지개마을'로도 불리는 홍티포구는 마을 앞 바닷가가 매립되고 무지개공단이 들어서면서 포구로서의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곳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지난 4월 문을 연 홍티아트센터가 있다.



오는 10월 말 정식개관하는 홍티아트센터는 예술인들에게 거주공간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창작공간이다. 예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창작활동을 펼치면서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총 370평 2층 건물에 입주작가들의 생활공간인 작가연구실 6곳을 비롯해 창작스튜디오와 공동작업장, 60평 규모의 전시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서 있다. 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창작활동과 전시는 물론이고 연구, 교육 등 학술활동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이 가능하다.

지난 8월에는 홍티아트센터 제1기 입주작가 모집을 통해 라우라 메르고니(이탈리아), 나탈리아 페트로바 알레산드로브나(러시아), 황인숙(미국) 등 해외 거주 및 외국작가를 비롯해 윤영화, 유혜수, 정민희, 변대용, 송몽주 등 8명의 설치미술 작가가 선정되어 오는 10월 7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작가들은 모두 설치미술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섬유와 돌, 철재 등을 인근 무지개공단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들은 앞으로 조성되는 홍티문화공원에 전시할 수 있어 벌써부터 원원효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티아트센터는 앞으로 입주작가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작품전시회, 오픈스튜디오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티아트센터는 그동안 문화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서부산권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할 새로운 문화휴식 공간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5월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창작공간이었던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지역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홍티아트센터의 개관으로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다. 홍티아트센터에서는 앞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이 곳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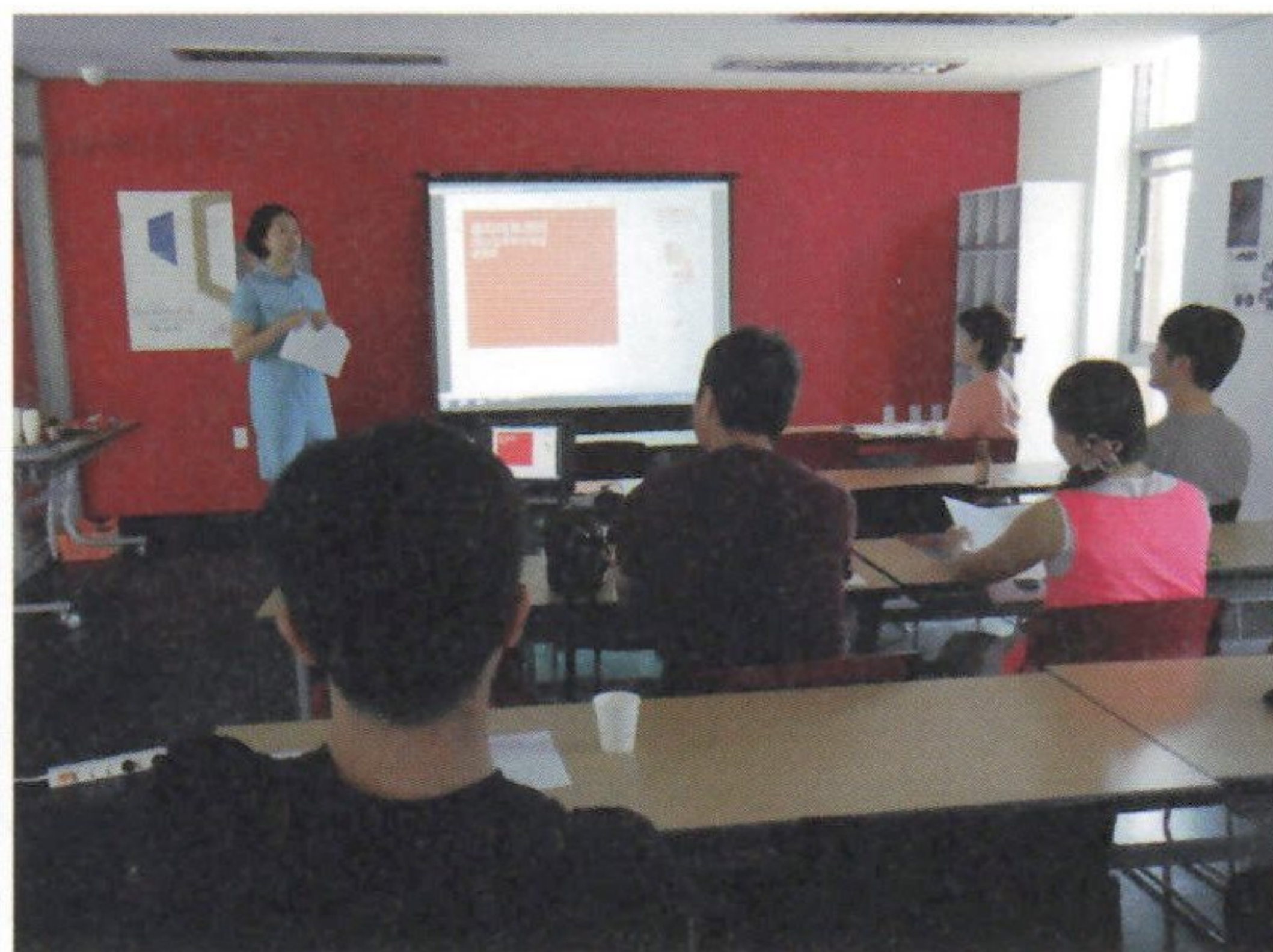
현재는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1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홍티아트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산레이디싱어즈가 무지개공단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즐거운 플래시 몼을 위한 Sing & Dance' 강좌가 바로 그것. 공고를 통해 모집한 25명의 참가자들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이면 이곳 공동작업장에 모여 흥겨운 시간을 갖고 있다.

또, 홍티아트센터는 인근 을숙도 에코센터와 감천문화마을, 아미산전망대와 연계한 서부산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연말에 조성되는 홍티문화공원까지 가세하면 홍티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부산의 새로운 문화관광명소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 문의/홍티아트센터(263-8661, hongti.busanartspace.or.kr)



작가연구실



입주작가 설명회



공동작업장





부산아미농악의 신명을 이어가는

## 부산아미주부농악단

풍물을 치면 그 소리가 30리 밖까지 들린다고 했던가. 심장을 두드리고 어느새 어깨까지 들썩이게 만드는 풍물소리는 유구한 세월, 우리네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다. 그래서일까, 지역마다 저마다의 특징을 살린 농악은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그 신명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에서는 부산시무형문화재 제6호인 부산아미농악이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왔다. 경상도 특유의 남성미 넘치는 투박함과 다이내믹한 판세가 매력인 부산아미농악은 일제강점기 시절 잠시 쇠퇴의 기로에 섰다가 지난 1952년 지금의 명칭으로 부활하면서 현재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전승, 보급에 힘써오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연희하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전문연주자들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오는 10월 창단공연을 앞두고 있는 부산아미주부농악단이 잔잔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지난 2009년 부산농악 예능보유자였던故 김종기 선생에 의해 결성된 부산아미주부농악단은 농악단으로서는 특



이하계도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결성 초부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결성된 그해 당진에서 열렸던 제14회 충남도지사기 전국 주부풍물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힘차게 첫 발을 내딛었던 부산아미주부농악단은 이듬해 수원주부국악제 전국대회 풍물부문에서 금상을 수상,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또, 매년 열리는 부산아미농악 정기발표회에서는 들버꾸놀이 놀이꾼으로 직접 참여해 전통의 현장을 가까이서 지킨다. '버꾸'는 소고와 모양이 비슷한 자루가 달린 작은 북으로, 들버꾸놀음은 상모대신 고깔을 쓰고 큰 버꾸를 치며 흥을 돋우는 풍물놀이를 말한다. 현재 부산아미주부농악단의 단원은 모두 25명.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가 자리하고 있는 구덕민속예술관에서 일주일 한차례 강습을 받고 있다. 부산아미농악의 맥을 이어가고 그 신명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자부심에 힘든 연습도 마다 하지 않는다. 창단공연을 앞둔 요즘은 보다 좋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 구덕민속예술관을 찾고 있다.

부산아미주부농악의 지도는 현재 부산아미주부농악단 단장을 맡고 있는 부산아미농악 예능보유자 후보인 강신일 씨와 이수자 이현지, 이복남 씨가 맡고 있다. 부산아미농악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상모돌리기와 들버꾸놀음. 그래서 단원이 되면 우선 기본인 상모돌리기부터 배운다. 최근 들어 젊은 연희자들이 기교적인 화려함에만 치중해 아쉽다는 강신일 씨는 그래서 농악의 기교 보다는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단원들에게 항상 강조한다. 예전처럼 농악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는 누구나 쉽게 찾아와 부산아미농악을 배울 수 있는 문화학교가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부산아미주부농악단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희 씨는 부산아미주부농악단과 인연을 맺기 훨씬 전부터 부산풍물패 이음새 단원으로 풍물과 만났다. 부산예술단 김상현 단장의 권유로 부산아미주부농악단에 입단한 이미옥 씨 역시 오랜 시간 풍물을 배워왔다. 이제는 취미가 아닌 그야말로 생활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이미옥 씨는 특히 부산아미농악을 만나고 나서는 일주일 내내 장구채를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 풍물과의 인연을 따진다면 이선화 씨 또한 만만치가 않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가 주최한 강습회 과정을 수료할 정도로 평소 부산아미농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부산아미주부농악단 결성 소식에 바로 입단을 결정했다. 부산아미농악의 맥을 이어간다는 생각에 부산아미주부농악단 단원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앞으로 부산아미농악에 관심 있는 젊은 단원들이 많이 입단했으면 하는 유정희 회장은 기회가 된다면 부산아미주부농악단만의 연습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부산아미주부농악단은 10월 6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창단공연을 갖는다. 이날 무대에서는 부산아미농악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한 부산농악판굿을 비롯해 영남성주굿, 삼도풍물가락 등 그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익히고 닦았던 실력들을 유감없이 펼칠 계획이다.

■ 문의/부산아미주부농악단  
강신일(010-5488-5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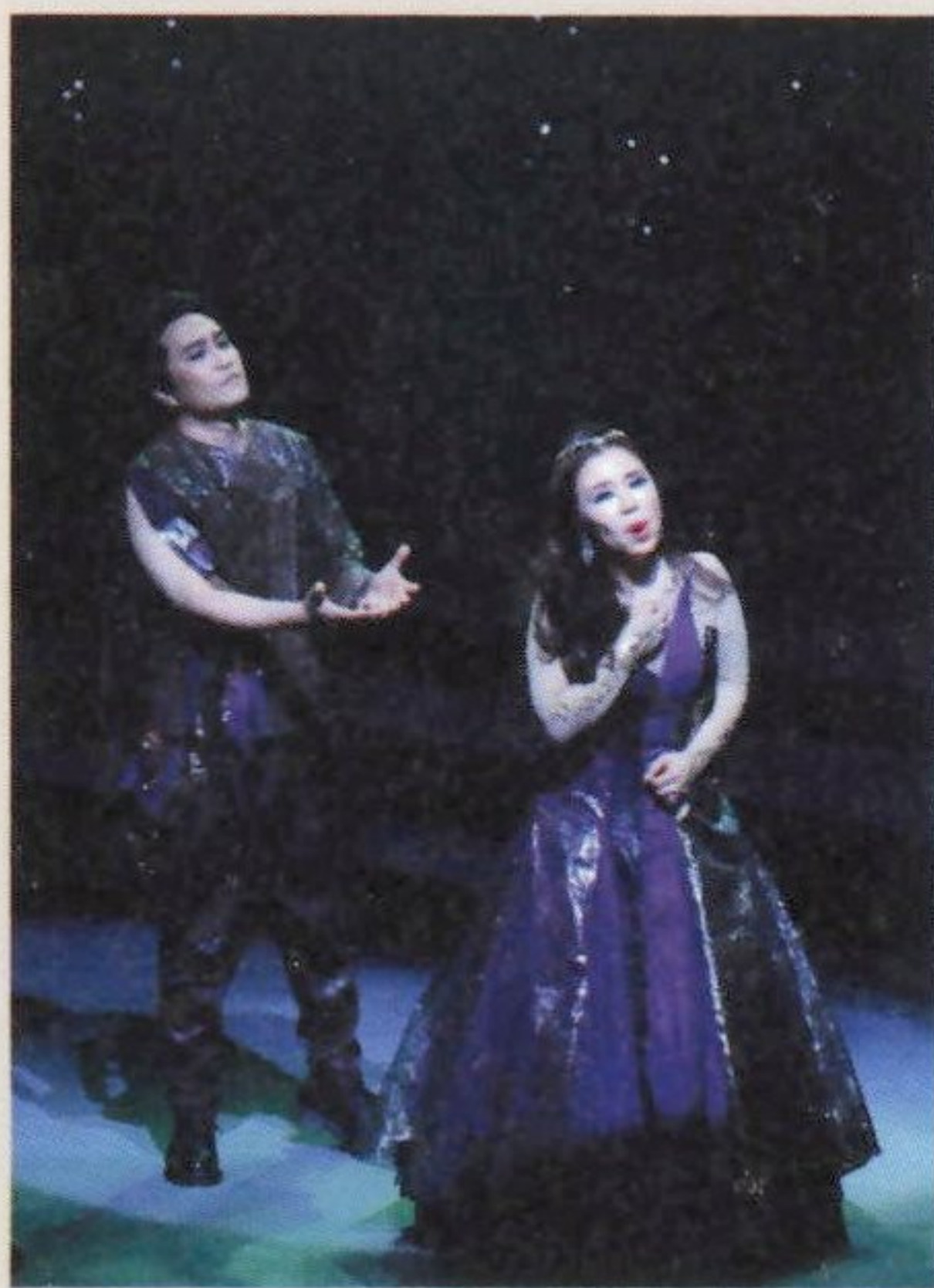


해운대문화회관의 발칙한 시도

## 창작 오페라 해운대 장산국 이야기

■ 박진홍\_음악평론가

8월 말 부산의 한 일간지 문화면에서 '창작 오페라'라는 타이틀을 보고 필자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기사를 읽을수록 이 작품은 꼭 보아야 할 작품이라는 생각에 휴대폰 다이어리에 일정을 등록했다. 부산에서 새로이 창작한 오페라가 무대 위에 올려지는 것을 볼 기회가 그리 흔한 것은 아닐 뿐더러 해운대구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해운대문화회관이 주도하여 만든 오페라라니, 궁금함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의 공연 중 첫날인 5일 공연을 관람했는데, 일찍부터 필자와 같은 마음으로 모여든 관객들이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해운대 장산국 이야기'는 신라에 의해 사라진 나라 장산국, 그리고 비운의 여왕 고아진과 최윤후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전체 2막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막은 막강한 신라의 힘에 의해 역사의 행간으로 사라져간 장산국의 운명이 긴 호흡으로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유지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지만 사이사이 코믹한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관객들의 호흡을 되돌렸다. 2막은 여왕인 고아진의 고뇌, 고아진과 최윤후의 사랑, 그리고 두 사람의 죽음과 장산국의 멸망이 차례로 그려졌다. 1막에서부터 이어져온 어둠과 공포의 긴장은 고아진과 최윤후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중창으로 해소되지만 곧 신라 탈해왕의 거짓과 최윤후의 죽음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고아진의 마지막 아리아로 절정을 보여 주었다. 특히 최윤후의 죽음 후, 고아진의 마지막 절규와 죽음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기에 충분했다.

배우들의 다양한 무대 동선의 활용, 전통무술의 조합을 통한 분위기 전환, 잠깐씩 웃음을 주는 재치있는 연기, 바다와 산이 만나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점점을 모던한 느낌으로 구현한 무대장치들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2시간여의 공연을 통해 무대와 한 치의 오차 없이 같은 호흡으로 연주되는 해운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역시 작품의 성공에 한 몫을 했다. 다만, 몇몇 부분에서 마이크에 전적으

로 의존하지 않는 오페라의 특성과 성악적 발성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가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 솔리스트와 합창의 소리의 밸런스 등이 조금 더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이번 '해운대 장산국 이야기'는 지역 문화계에 신선한 가치를 선사했다. 구청 산하의 문화회관에서 국내 최초로 적지 않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창작 오페라의 제작을 이루어 낸다는 것이다. 아지무스 오페라단의 '부산 갈매기'와 2011년 '백산 안희제' 등이 무대 위에 올려진 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활용하여 종합예술인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하기에 더욱 의미있는 일이다.

3일간의 공연을 통해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을 찾은 많은 부산 시민들은 역사의 조각들 사이에 가려져 있던 새로운 우리들의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창작 오페라를 기획하고 무대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지자체의 의식과 부산의 문화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아름답고 탐스럽게 맺은 이 열매가 시간의 흐름 속에 빛바랜 포스터로만 남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술한 밤을 지새우며 오션지에 그려진 음악들과 의상, 무대의 장치들, 그리고 재능 기부로 참여한 수많은 연주자들의 노력이 먼지 덮인 창고 안으로 어쩔 수 없이 내몰리지 않도록 해운대구와 해운대문화회관이 노력을 기울여 주고 부산 시민들이 반겨 찾아 주기를 기대한다.



# 스톤 브레이커스 *The Stone Brekers*

해운대 아트센터 2013.9.3~15

■ 박미경\_화가

시각예술 프로젝트 그룹명이기도 한 '스톤 브레이커스(Stone Breakers)'는 삶과 예술과의 긴장감을 깨고 일상에서 '와이 낫(Why not?)'이라는 공통의 물음으로 모인 4인의 전시회이다.

'돌을 깨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스톤 브레이커스는 프랑스 화가 쿠르베(Gustave Courbet)가 1850년 살롱전에서 발표한 작품명으로 리얼리즘의 혁신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진다. 예술은 항상 아름다워야 한다는 통상적인 관념이 팽배했던 시기에 '스톤 브레이커스'란 작품을 통해 기존의 관념을 탈피하고 예술의 공익성을 실천했다. 스톤 브레이커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회화'라는 형식을 매개체로 각기 다른 감각과 감성을 지닌 작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화를 전공한 이선재 작가는 '행운의 여신'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인들이 동경하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신미인도를 그려낸다. 한지 위에 석채, 분채, 먹,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현세대의 트렌디한 여성을 여신의 모습처럼 묘사함으로써 '그림 같은 여자'를 표현했다. 그림속의 여신의 머릿결은 두껍게 발라진 안료로 인해 입체감을 더 느끼게 했으나 독특한 색으로 인해 현실적이지 않았다.

이정철 작가의 인물화는 거친 듯한 붓 터치를 통해 감수성이 우러나는 사색하는 인물을 표현한다. 이 인물들 위로 반짝이는 재료를 칠하거나 붙여서 재질의 질감을 살려 인물이 더 돋보이는 효과를 보여준다. 배

경 또한 다른 재료를 여러 형태로 이어 붙여 결코 지루하지 않을 만큼의 여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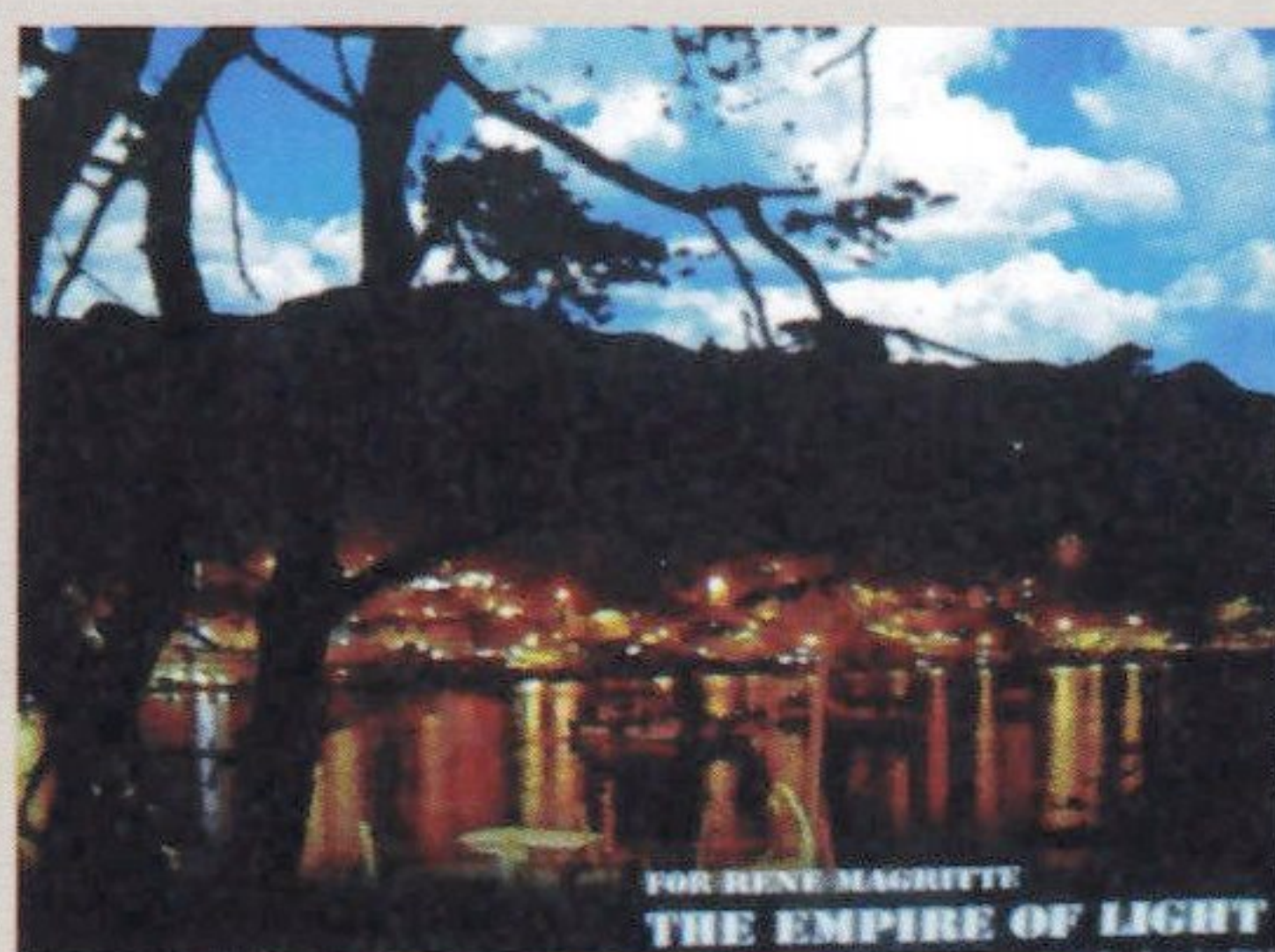
서용대 작가는 인쇄된 천에 전통적인 그리기 방식이 아닌 리터치 기법으로 그래픽 회화를 고안했다. 발광 시트(EL Sheet)와 OHP 필름을 중첩하여 만든 디지털 아트 작품으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허와 실이 공존하는 작업을 한다. '밤의 제국'은 기존 개념을 탈피한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차용한 작품으로 밤의 풍경에 낮의 하늘을 중첩시켜 낮선 풍경을 만들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약간의 생소한 변화를 느끼게 한다.

정영한 작가는 동시대의 현실을 명료하고 복합적으로 보여주고자 극사실 회화와 유사한 재현으로 화면 가득 이미지를 그린다. 그러나 사진 같은 테크닉의 재현과 달리 반복적이고 견고한 그리기의 과정을 통해 실재와 같은 비현실 세계, 존재하는 상상의 이미지를 간결하게 제시한다.

4인의 작품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표현 방식을 가진 작품들로 평면회화라는 형식으로 개연성 없어 보이는 각각의 이미지들을 한 공간에 낱설게 함으로써 작가나 감상자로 하여금 실재와 유사한 비현실의 세계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여 유쾌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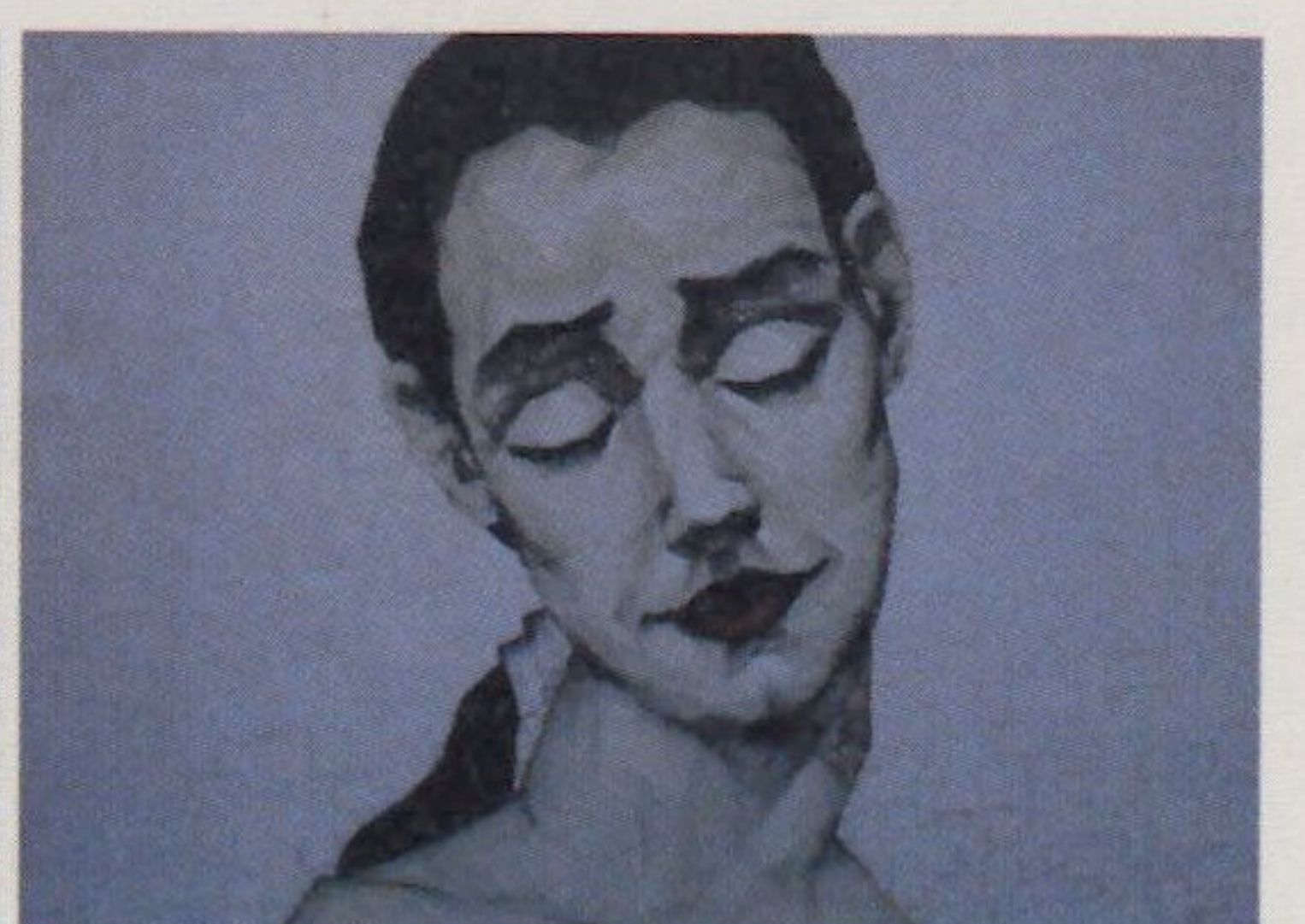
정영한



서용대



이선재



이정철



# 포도향 가득한 아름다운 고장 영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며칠 앞둔 지난 9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90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9월 테마여행지는 포도향 가득한 아름다운 고장 '영천'. 테마여행 당첨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 가족들로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이 북적거린다. 특히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화성, 이나겸씨와 더불어 테마여행을 취재하기 위해 현대케이블 기자들이 동행하면서 여행의 특별함을 더했다.

영천여행의 첫 방문지는 최근 와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천와인학교. 국내 최대 포도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천은 특히 와인 제조가 가능한 머루포도(MBA) 주산지, 국내 와인생산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와인클러스트 사업을 시행,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조성, 와인개발센터, 와인공장, 와인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형 오크통 모양을 한 독특한 건물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 와인학교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와인사업단 강일욱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국내 최초의 와인학교로도 유명한 영천와인학교는 와인양조 실습장과 와인저장고, 와인터널, 와인카페 등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와인전문가를 육성해오고 있다. 와인제조과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은 회원들은 직접 와인을 주조해보기 위해 와인 체험장인 '고도리 와이너리'로 자리를 옮겼다.

고도리 와이너리 대표인 최봉학 씨의 안내로 와인주조에 사용될 포도따기에 나선 회원가족들은 한여름 잘 영근 포도를 수북히 딴 후 본격적인 체험을 위해 와이너리로 자리를 옮겼다. 최봉학 씨의 설명에 따라 우선 수확한 포도를 투명용기에 넣고 잘 으갠 후 설탕과 효소를 넣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뚜껑으로 봉했다. 이렇게 제조된 와인은 1차 발효 후 포도껍질을 걸러내는 착즙과정과 2차 발효과정을 거친 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두 세달 후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와인으로 탄생된다고 한다. 와인주조 후 펼쳐진 '포도껍질 멀리 뺏기' 게임에서는 가장 멀리 뺏은 회원들에게 상품으로 포도 한박스가 제공되기도 했다.

향긋한 와인향의 매력에 흠뻑 빠졌던 와인 시음회에 이어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화성, 이나겸 씨와 함께하는 강강술래가 펼쳐졌다. 짹짹 내리쬐는 햇볕 속에서도 강강술래를 펼치는 회원가족들의 얼굴에는 신명이 넘쳐난다.

와이너리에서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영천지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일정에는 영천의 문화유산해설사인 전민욱 씨가 동행했다.



■ 대형오크통을 응용한 와인저장창고



■ 와인담그기 체험





- 1. 도계서원
- 2.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한 강강술래
- 3. 광주이씨 시조묘 광릉



11월에는 산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  
 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  
 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  
 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테마여행게시판  
 마감 10월 16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 10월 당첨자

● 엽서신청자

김안재(부산진구 개금동)  
 김희주(동구 수정동)  
 민경희(연제구 거제3동)  
 박경순(사하구 하단동)  
 박명옥(사하구 신평동)  
 박소순(남구 대연동)  
 최옥선(사하구 하단동)  
 최현정(서구 토성동)  
 한신희(서구 서대신동)  
 황미정(양산시 북부동)

● 신규가입자

강사석(수영구 남천동)  
 김주영(사상구 주례동)  
 엄태응(해운대구 우동)  
 유영반(중구 영주1동)  
 윤상필(부산진구 범천동)  
 최선희(연제구 연산7동)  
 최수희(연제구 연산동)  
 최영희(기장군 일광면)  
 최지은(동래구 명륜동)  
 황광주(수영구 망미2동)

처음 도착한 곳은 영천 출신의 노계 박인로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도계서원.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조선 3대 시인으로 유명한 박인로 선생은 특히 부모에 대한 효심을 노래한 '조흥시가'를 비롯해 태평사, 선상탄, 누항사, 노계가 등 9편의 가사작품을 남기면서 가사문학의 대가로 불린다. 도계서원에는 노계 선생의 문집을 인쇄한 목판각인 박노계집판목(朴蘆溪集板木)과 그의 대표작인 조흥시가, 노계가가 새겨진 시비가 세워져 있다. 또, 인근에는 명성에 비해 소박하기 그지없는 노계 선생의 무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어 찾아간 곳은 광주 이씨 시조묘인 '광릉'. 영천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도 '광주 이씨'의 시조묘가 이곳 영천에 자리한 데는 '광주 이씨'와 '영천 최씨' 사이에 얽힌 아름다운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버스에서 전민욱 해설사가 들려주는 설화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니 어느새 '광릉'이 눈앞에 펼쳐진다. 우리나라 7대 명당지 중 하나로 꼽힌다는 명성답게 한눈에 봐도 명당임에 틀림없는 광릉의 자태에 정기회원들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양가의 후손들이 대대로 두 어른의 제사를 함께 모시고 있다고 한다. 600여 년전 고려말, 광주이씨와 영천최씨의 중시조간의 아름다운 우정이 전해져오는 '광릉'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포도향 가득한 자연 속에 역사와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러졌던 영천 테마여행. 한가위의 풍성함만큼이나 알찬 여행으로 정기회원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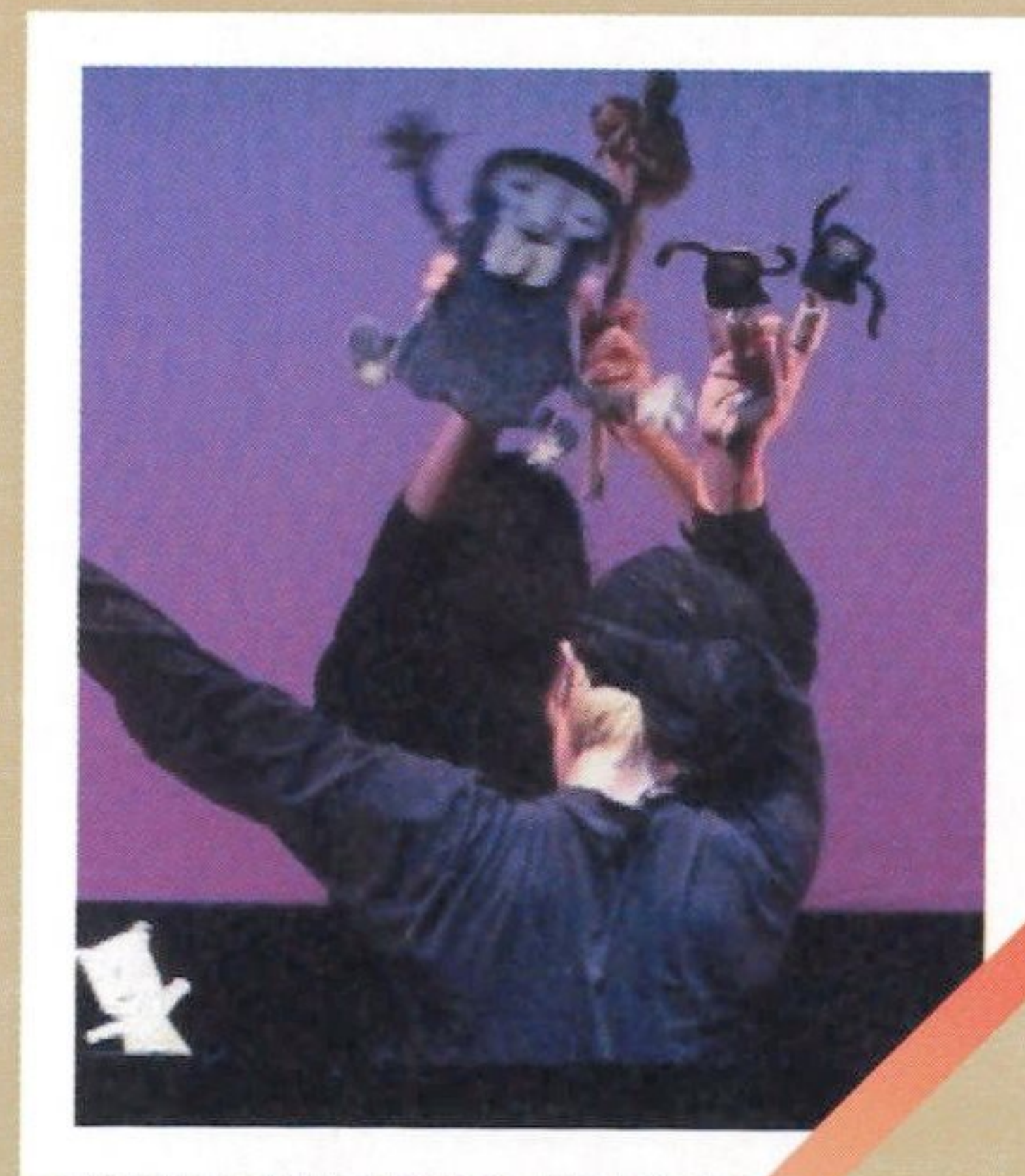


# Culture Life

##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포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40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 47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 58 New Music
- 59 New Book
- 60 Special Movie





### 제6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협주곡의 밤

10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음악협회(634-1295)

10월 시작과 함께 만나는 화려한 피아노의 향연으로 피아니스트 문현경, 김미현, 심정연이 이동신이 지휘하는 유나이티드 코리아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3번 다장조  
쇼팽/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작품 22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제17회 한국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홍난파, 현제명, 김성태 가곡의 밤

10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우리아트(010-5555-3825)

우리의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연구, 보급하고 있는 한국가곡연구회가 우리 가곡사에 큰 획을 그은 홍난파와 현제명, 김성태의 가곡을 엄선, 가을의 정서를 노래한다.

▶프로그램

김성태/산유화, 이별의노래, 꿈, 동심초  
현제명/나물캐는 처녀, 희망의 나라로, 산들바람, 오라  
홍난파/봉숭아, 성불사의 밤, 옛 동산에 올라 등 수곡  
출연  
소프라노 김현숙, 정서영, 구민정  
메조소프라노 손자경, 성미진, 테너 이흥득, 김동운  
바리톤 함도관, 우기선, 하병욱, 심정보  
· 피아노/하영화, 하수빈



### 에르노 페헤 피아노 독주회

10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부산아트매지니먼트(740-5833)

'신선하고 강렬한 리듬감을 구성하면서 재치가 넘치는 색채감 있는 훌륭한 연주'로 정평이 나 있는 피아니스트



트 에르노 페헤(부산대학교 교수) 부산 데뷔 무대, 헝가리 벨라바르톡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2등상과 함께 2개의 특별상, 일본의 IFMA에서 1등상을 수상한 에르노 페헤는 조국 헝가리를 비롯해 체코, 핀란드, 독일,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루마니아 등에서 독주회,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로 청중들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스칼라티/3개의 소나타  
하이든/소나타 내림 마장조 Eflat 장조 Hob. XVI: 49  
바르톡/소나타



### 제8회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

10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627-8521)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지적장애인 24명으로 구성된 늘푸른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 무대를 시작으로 자폐아를 둔 학부모들로 구성된 스마일 합창단, 당신은 나사함의 귀한 존재라는 뜻의 부산최초의 발달장애인 난타팀 '당나귀' 등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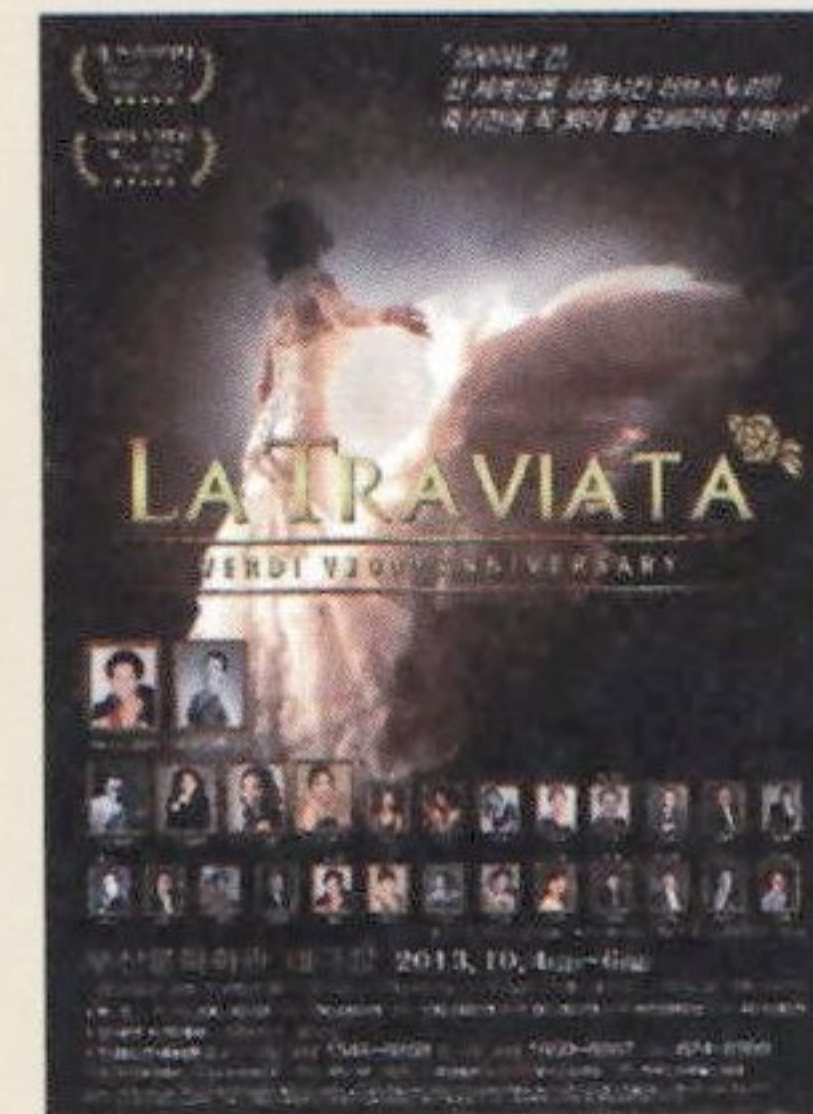
▶프로그램

출연  
오사레크루(B-boy팀), 스마일합창단(지휘/정은미, 반주/김신정), 마술 & 변검술, 늘푸른합창단(지휘/채범석, 반주/진영석), 프리즈몰릭(힙합듀오 래퍼), 당나귀(나사함 발달장애인복지관)- '리듬마치' (파트1, 2)  
· MC/김태녕



### 부산오페라단, 뉴아시아오페라단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라 트라비아타'

10월 4일-6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20만원 · R석 15만원 · S석 10만원  
A석 8만원 · B석 6만원 · C석 4만원  
문의 | 뉴아시아오페라단(624-8399)



부산오페라단, 뉴아시아오페라단이 함께 선보이는 베르디 걸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이탈리아 제1의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가 당대 상류사회의 위선을 소재로, 프랑스 파리의 사교계 여성 비올레

타와 그를 사랑하는 청년 알프레도의 비극적인 사랑이 이야기를 그린 '라 트라비아타'는 장대하고도 아름다운 선율로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

- 예술총감독/전연숙, 그레이스 조
- 연출/방정욱 · 지휘/김봉미
- 음악코치/김경미, 전미리
- 협연/TF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부산뉴아시아오페라합창단(지휘/심정보)

출연

김유섬, 김유진, 왕기현, 박은주, 김경, 김화정, 이승우, 홍지형, 최종우, 김정대, 윤오건, 강경원, 전연숙, 한현미, 이현주, 김수현, 황혜경, 우원석, 장진웅, 박상진 외



### 제8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10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한국창작가곡협회(010-4541-8576)



우리의 정서가 담긴 시를 짓고 그 시로 곡을 짓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창작가곡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땀 흘려온 한국창작가곡협회가 신작가곡을 발표한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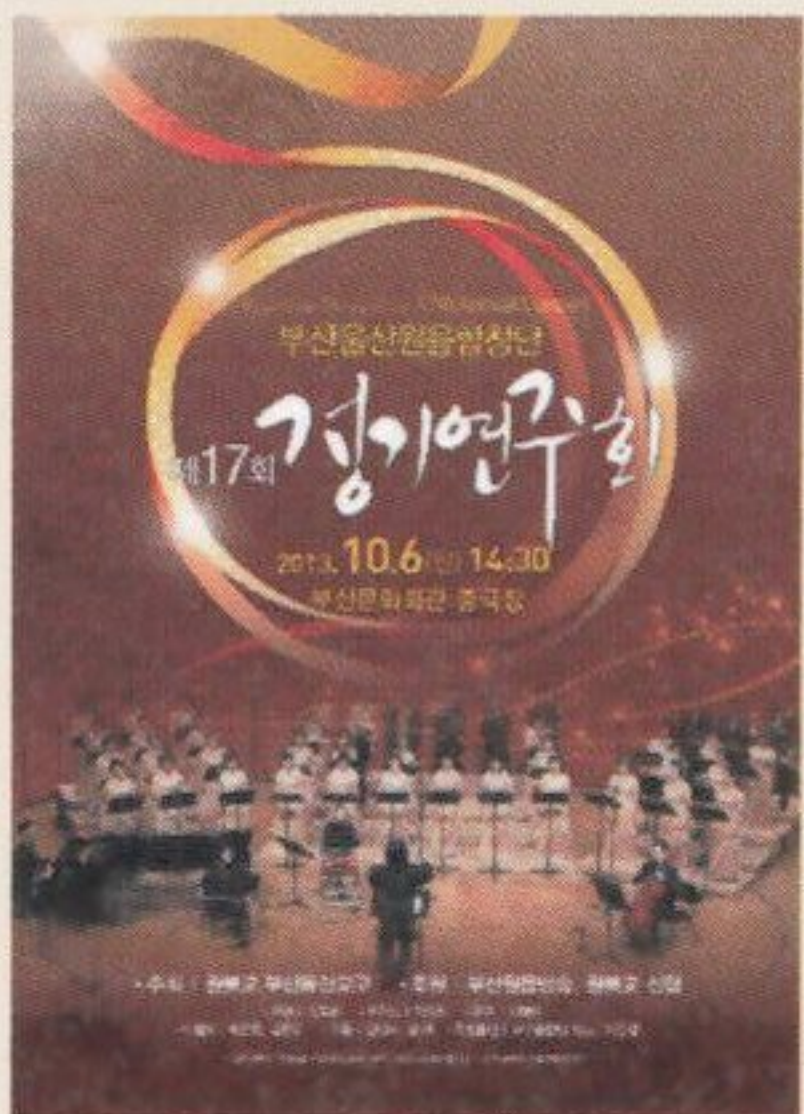
낙동강 강바람(강구중 시, 이주애 곡)  
놀이공원 분수대(정민아 시, 김정란 곡)



깜찍이 내 동생(정재분 시, 노순덕 곡)  
 첫 눈(김미선 시, 이진영 곡), 풀(김미선 시, 이강산 곡)  
 저녁 호수(이애리 시, 심순보 곡)  
 한낮에(염계자 시, 이옥영 곡)  
 달빛 마을(김순자 시, 이성훈 곡)  
 가덕도(박미정 시, 우덕상 곡)  
 여름 바다(류정희 시, 김성덕 곡) 등 수곡  
 · 연주/베이스 김태형, 소프라노 박수진,  
 · 합창/기장군해송여성합창단, 단비올남성앙상블, 카메  
 라타합창단  
 · 특별출연/이가현(달복초 4년), 김래희(용인흥덕초4년),  
 엔젤중창단(김서영, 서유리, 박주희, 박재은)  
 · 피아노/박윤정

### 부산울산원음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10월 6일 일요일 오후 2: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원음합창단  
 (245-0717, 010-9663-0723)



1973년 창단된 부산원음합창단은 제2회 부산세계합창올림픽 본선 은메달 수상을 비롯해 독일 브레멘 세계합창올림픽 종교음악 은메달 수상, 중국 샤먼합창올림픽 동메달 수상,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 내한공연 특별출

연 등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 ▶ 프로그램

도라지꽃, 푸르른 바람아, 봄 바람에 달이 뜨면, 산유화, 그리워라, 일상수행의 요법, 아리랑 모음곡 등 수곡  
 · 지휘/김도형 · 피아노/김신정  
 · 트럼펫/박춘호, 김찬우 · 무용/김민서, 장미  
 · 특별출연/교무중창단 소프라노 이은정

### 제 22회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10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미티에 성악연구회(010-7503-6564)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 여러 각국에서 공부한 성악가들로 구성된 아미티에성악연구회는 매년 1~2회의 정기공연 및 초청공연, 오페라 '라미코 프리츠' '프랑스 가곡과 아리아의 밤' '아리아와 이중창의 밤' '우리 가곡의 밤' '잊지 못할 레슨 시간'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 ▶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이인가', '축배의 노래'  
 모차르트/오페라 '코지판투테' 중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벨리니/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 등 수곡  
 출연  
 소프라노 김양자, 김경희, 서정아, 박소영, 옥혜나  
 메조소프라노 한현미, 테너 정종철, 엄현섭, 김철수  
 바리톤 하병욱, 이철훈  
 · 피아노/이현주, 이경미

### 부산색소폰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10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색소폰오케스트라(900-9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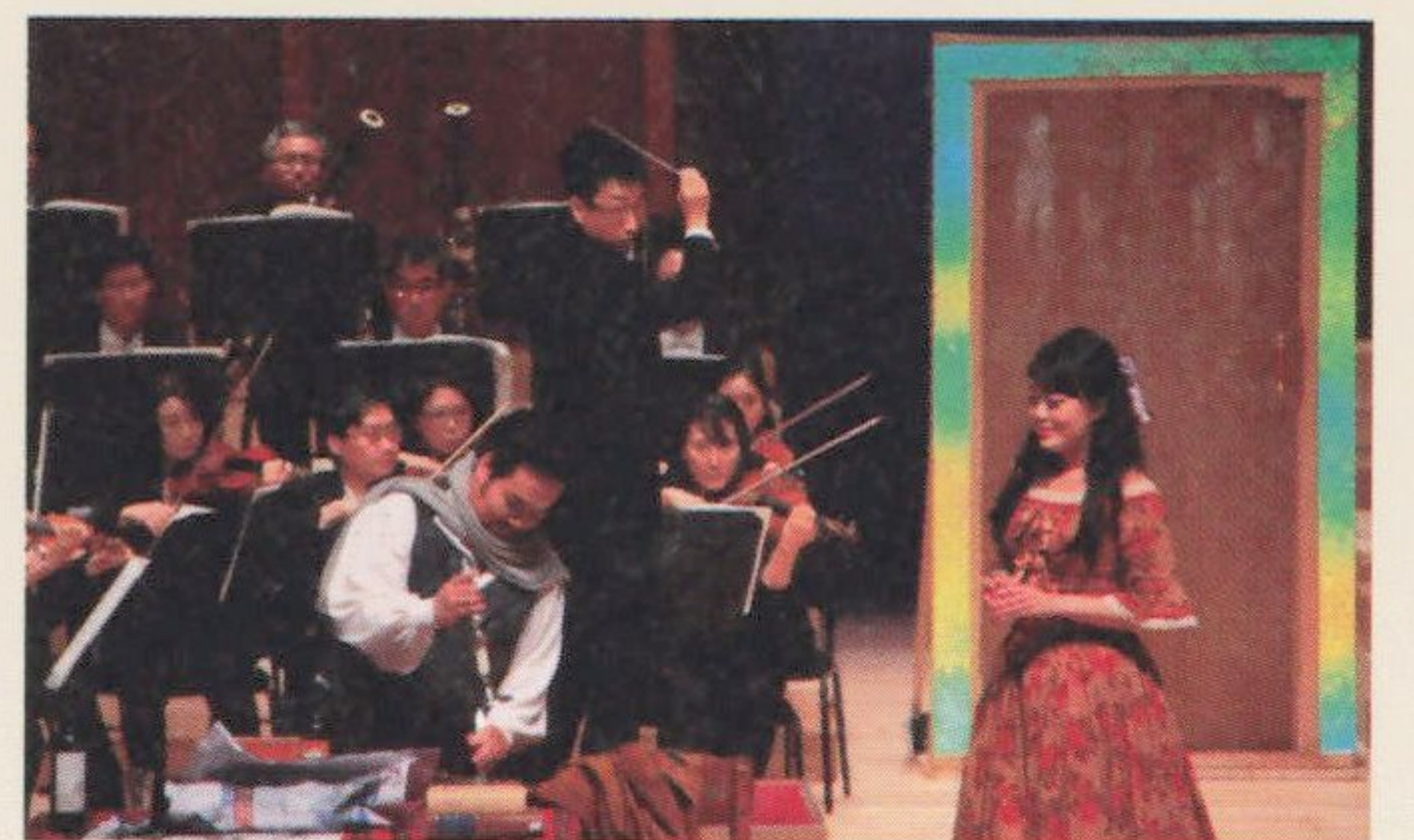
소프라노, 앨토, 테너, 바리톤 등을 갖춘 40여명의 색소폰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색소폰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5회의 정기연주회와 양산상공회의소 후원 양산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기업사랑 연주회, 천마재활원, 군부대 위문공연, 대동병원 환우를 위한 공연, 부산국제마루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 ▶ 프로그램

카라반, 모정, 디스코 파티, 나훈아 Graffiti, I Will Follow Him 등 수곡  
 · 지휘/정홍기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베르디탄생 200주년 기념 Opera in Concert 리골레토

10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09년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를 시작으로 2011년 '라보엠', 2012년 '박쥐'로 많은 호평을 받은 '오페라인 콘서트' 2013년 무대 '리골레토'.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1부에서는 제1막 1장 '만토바 공작의 궁전 안, 호화로운 거실', 제2장 '그날 밤, 외딴 거리에 위치한 리골레토의 집'을, 2부에서는 제2막 '공작의 궁전 안', 제3막 '민초강변에 있는 스파라푸칠레의 집'으로 구성, 오페라의 감동을 선사한다.

- 연출 및 지휘/리 신차오(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조연출/김미정 · 오페라 코치/손소향
- 출연/리골레토 제상철, 질다 김정은, 만토바 김지호, 스파라푸칠레 함석헌, 막달레나 김수현, 조반나&체프라노 부인 박성희, 체프라노 백작 김태우, 보르사 송현정, 몬테로네 유흥광, 마룰로 이태영, 파쵸 배우향, 궁정 안내인 최범석, 마을사람들 부산오페라합창단(지휘/이성훈)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36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10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심정연(010-2009-1090)

1996년,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300여 명으로 결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피아노





이경옥 최윤희 황정미

연주가클럽의 제 36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은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 피아니스트 페스티벌을 개최, 한국 작곡가의 창작곡을 비롯해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피아노곡으로 청중들과 만나왔다.

#### ■ 10일(목) 한국 작곡가의 밤

##### ▶ 프로그램

- 김성기/Nori for Piano(연주/강유정)
- 이기병/바람이 마음에 스칠 때(연주/신정운)
- 조희주/Improvisation fuer Klavier 2007(연주/최민경)
- 정수란/Solo for Number II (연주/김영지)
- 강영화/Toccata No.1(연주/김성숙)
- 김국진/비나리(연주/고정화)
- 조영윤/Suit for 2 Pianos(연주/1st 정년경, 2nd 이경옥)

#### ■ 11일(금) 솔로와 듀오의 밤

##### ▶ 프로그램

- 하이든/소나타 Hob.50 다장조
- 쇼팽/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 아렌스키/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2번 작품23 'Silhouettes' 등 수곡
- 연주/전숙영, 최진현, 장진이, 박선미, 강지영(1st)/배수정(2nd), 황정미/송지은, 최윤희(1st)/박현정(2nd)



#### 2013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페스티벌 '강'

10월 11일-13일 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사전예매 1만 5천원, 단체 1만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 부산연극협회(645-3759)

매년 봄에 개최되는 부산연극제, 부산국제연극제에 이

어 가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연극의 향연을 선사하는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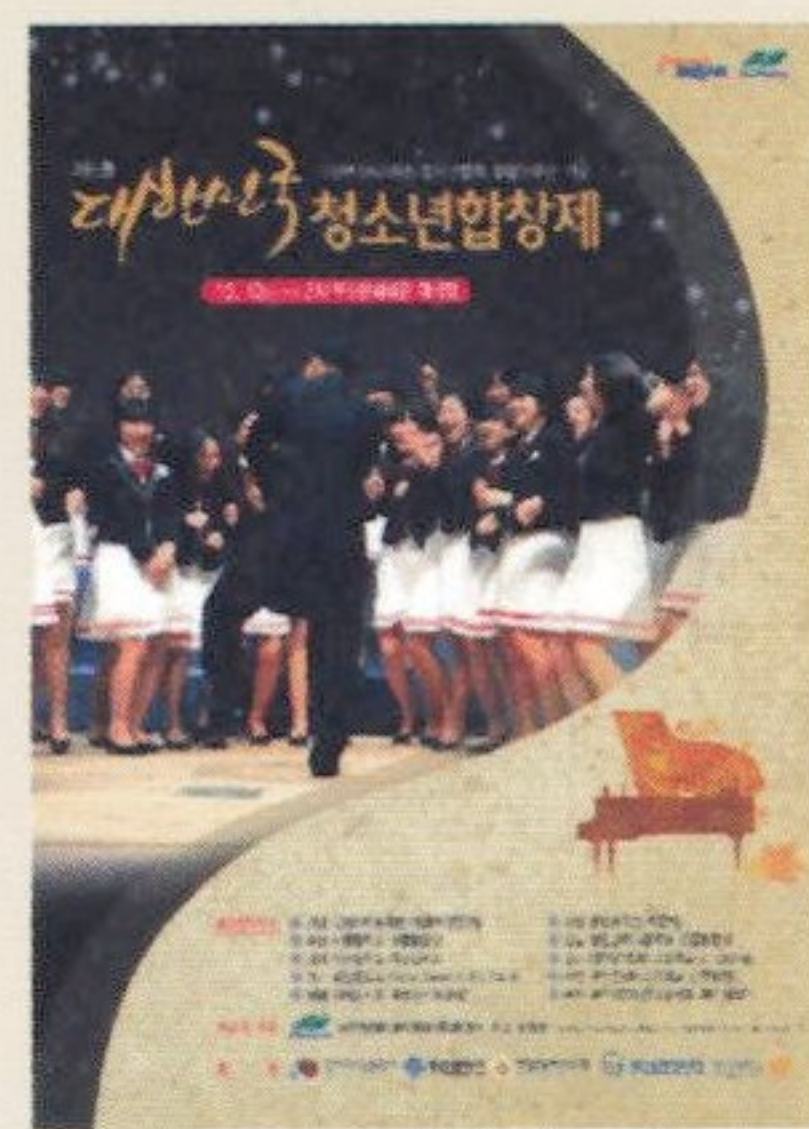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강(창작 초연작, 2011 전국 창작희곡 공모전 금상 수상작, NEW부문)'은 깊고 넓은, 헤아릴 수 없는 강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을 다룬 작품으로 남편을 안락사시킨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감옥에 가둔 딸 사이에 흐르고 있는 넓이도 깊이도 알 수 없는 강, 용서와 이해라는 이름으로 강을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무엇을 놓치며 사는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 작/하경진 · 연출/오정국



#### 제6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대회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513-4306)



올바른 청소년 문화 정착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립된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대한민국청소년합창대회.

7월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부산, 경기, 경남 등 3개 지역 10개 학교(중학교

6, 고등학교 4)의 경연이 펼쳐질 이번 대회는 부산에서는 해동중학교, 해연중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가 참가, 열띤 경연을 펼친다.

'파라미타'는 불교 보살의 수행덕목인 바라밀다(波羅蜜多)의 인도식 표기(범어)로 '어둠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다.

##### ▶참가팀 및 순서

- 경남 김해여자중학교 아젤리아 합창단
- 부산 해동중학교 해동합창단, 해연중학교 라온제나
- 경남 신주중학교 신주싱어즈
- 경기 매향중학교 Good Seed Girls choir
- 경남 범어중학교 범어중학교합창단
- 경남 창원명곡고등학교 빛골합창단
- 경남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J.I. Chorus
- 부산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산정합창단
- 부산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해연합창단

#### 4인 음악회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경미(010-2395-9876)

부산대학교 대학원 동문으로 음악적 교류를 넓혀온 소프라노 김경미, 김유경, 백성희, 서진희가 들려주는 4인 음악회.

1부 유명 오페라 아리아, 2부 한국가곡과 크로스오버 곡들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중 'pace, pace mio Dio',
- 오페라 '리골레토' 중 'Caro nome che il mio cor'
- 벨리니/ 오페라 '청교도' 중 'Qui la voce sua soave'
-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중 'Der Holle Rache kocht in meinem Herzen'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김경미, 김유경, 백성희, 서진희
- 찬조출연/테너 김성민



#### 제9회 부산국제합창제

10월 16일-19일 수-토요일 **대극장, 국제회의장 외**  
입장료 | 개막공연 5만원 · 3만원 · 2만원,  
폐막 균일 1만원, 경연은 무료  
문의 |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2002년 합창올림픽을 시작으로 2005년 APEC 합창제를 거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 2013년 축제.

올해는 13개국 50여 팀이 참가하는 경연과 '찾아가는 콘서트', '합창 퍼레이드'를 통해 합창으로 세계인이 하나되는 문화예술축제의 장을 펼친다.

##### ▶주요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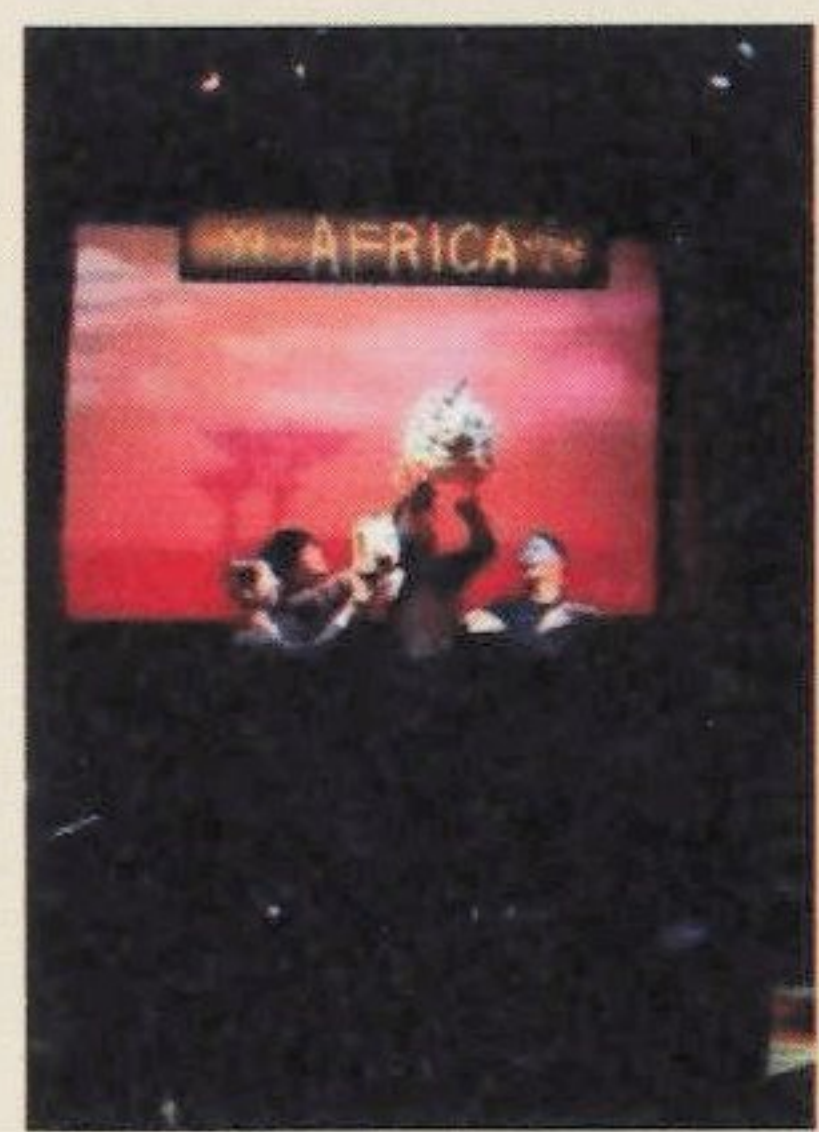
- 10.14(월) 13:00 부산코랄아카데미(국제회의장)
- 10.15(화) 10:00 부산코랄아카데미(국제회의장)



- 10.16(수) 10:00 부산코랄아카데미(국제회의장)  
15:00 합창퍼레이드(광복로 문화 거리)  
20:00 개막공연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대극장)
- 10.17(목) 09:30 워크샵(국제회의장)  
13:00 시니어 경연(대극장)  
15:30 경연 - 민속 I(대극장)  
19:00 경연 - 민속 II(대극장)
- 10.18(금) 09:30, 10:30 워크샵(국제회의장)  
13:00 경연 앙상블(대극장)  
15:00 경연 동성(대극장)  
19:00 경연 혼성(대극장)  
20:00 청소년 갈라 콘서트  
- 선명희 어린이합창단(영화의전당)
- 10.19(토) 09:30 청소년 경연(대극장)  
13:00 청소년 경연 II(대극장)  
13:00 합창퍼레이드(동백섬)  
19:00 대결선 및 시상식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8  
음악인형극 '해지는 아프리카'**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00, 7: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개성 넘치는 뮤지션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의 서른여덟번째 무대 음악인형극 '해지는 아프리카'.

2008년부터 하림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작곡한 음

악을 바탕으로 제작된 새로운 형식의 음악인형극 '해지는 아프리카'는 극단 푸른달이 종이인형을 제작하고, 마임이스트 박진신이 극작과 연출을 맡아 청중들에게 악사와 인형, 코러스, 영상이 공존하는 아프리카의 자연 속으로 안내한다.

각 곡은 아프리카 대륙의 어머니 품 같은 넉넉함, 해질 녘의 노을, 초원을 뛰노는 동물과 아이들 등 아프리카의 풍광을 하나씩 풀어놓는다. 연출자 박진신은 그림이

음악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극 구조를 단순하게 구성, 마임이스트 정명필의 샌드아트와 그림자극을 삽입,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기획, 음악감독/하림 · 작, 연출/박진신
- 연주/하림, 양양, 좋아서하는밴드(조준호, 손현)
- 출연/정명필, 김호수, 김민지, 오회연



**제46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10월 21일-22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6531-0307)

피아노 듀오음악의 새 장을 열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제46회 정기연주회.

첫째날은 신입회원으로 입회한 피아니스트 고은정/김미진, 이은정/하승경, 최진현/김혜린, 정아름/권혜진, 김선희/신정운, 이수진/고영주, 양지/최지은을 초청하여 그들만의 피아니즘을 소개한다. 둘째날에는 일본에서 부부 듀오팀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타마가와대학 교수 오사노 케이, 오사노 미호를 초청, '한일 친선 듀오 연주회'를 연다.

**▶프로그램**

피아졸라/망각  
차이코프스키/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아렌스키/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2번 '실루엣 불랑/지테르섬으로의 출항 등 수록'



**부산시립합창단 제147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민, 서울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한국가곡과 민요 대합창**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노래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47회 정기연주회 '한국가곡과 민요 대합창'.

1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부산연합시민합창단이 함께 하는 한국가곡 무대, 2부는 우



리나라의 민요로 만들어진 '팔도민요모음' 무대로 서울시합창단과의 합동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1부 한국가곡 무대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한국가곡'을 컨셉으로 제목만으로도 뜻뜻한 감성과 추억이 묻어나는 명곡들로 전체 레퍼토리를 구성,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가을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 선구재(윤해영 시/조두남 곡)
- 고향 그리워(만향 시/이흥렬 곡)
- 보리밭(박화목 시/윤용하 곡)
- 네임 클로버(김순애 시, 곡), 산촌(이광석 시/조두남 곡)
- 고향의 노래(김재호 시/이수인 곡)
- 남이 오시는지(박문호 시/김규환 곡)
- 남촌(김동환 시/김규환 곡)
- 그리운 금강산(한상익 시/최영섭 곡)
- 희망의 나라로(현재명 시, 곡) 등 수록
- 지휘/오세종
- 특별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서울시합창단, 부산연합시민합창단



**제24회 대학무용제 대학춤, 르네상스를 꿈꾸다  
2013 세계의 춤 비전 '꿈꾸는 춤'**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대학무용진흥회(010-8234-2342)

지역무용활성화를 위한 젊은 춤꾼들의 열정을 만날 수 있는 제24회 대학무용제.

올해는 무용이 학문적 영역에서 그 위상을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대적 요청에 따른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무용연구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기 위한 심포지움 '내일의 춤 대화' (10월 20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과 대학 교수의 안무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완성된 무대예술 '행복한 춤' (10월 20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학생들이 안무자 & 무용수로 공연에 참여, 신선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꿈꾸는 춤' (10월 22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이 펼쳐진다.



▶작품

경성대학교 '문 두드리다' (안무/오상민)  
경성대학교 '동화되다' (안무/명상이)  
경성대학교 '너와 내가 있기에' (안무, 출연/박세준)  
부산대학교 '生 : 순리Ⅳ' (안무/공동안무)  
부산대학교 'Festival' (안무/공동안)  
부산대학교 'The Light' (안무/이유미)  
동아대학교 '생존의 울타리' (안무/공동안무)  
동아대학교 '마지막 발걸음' (안무/김은애)  
신라대학교 '족' (안무/공동안무)  
신라대학교 '꿈꾸는 개미' (안무/김평수)  
신라대학교 '수련' (안무/김수련)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음악회

제26회 부산 합창제

10월 23일-25일 수-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 지역 합창애호가들과 함께 하는 부산 최고의 합창 예술축제 '부산합창제' 스물여섯번째 축제. 부산합창제는 그동안 우리가곡을 비롯해 세계민요와 가곡, 가요 등을 통해 우리지역 시민들의 정서 함양, 합창 인구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해왔다.

올해는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해 26개의 합창단이 참가, 경쟁의 장이 아닌 화합과 감동의 장을 펼친다.

▶일정 및 참가단체(무순)

■23일

부산시민합창단(지휘/김명규)  
문화합창단(지휘/배천중)  
노엘합창단(지휘/김강규)  
뮤즈콘서트콰이어(지휘/조현수)  
명호여성합창단(지휘/류지원)  
B-STAr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지휘/오동주)

■24일

글로벌콰이어(지휘/이정철)  
사하드림합창단(지휘/이정철)  
부산CBS 여성합창단(지휘/이외균)  
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전상철)  
고심 문수합창단(지휘/김정미)  
노래와 친구들(지휘/이순희)

부산브라보아버지합창단(지휘/이성훈)  
부산여고동문합창단(지휘/조현수)  
에지합창단(지휘/우원석)  
목련합창단(지휘/오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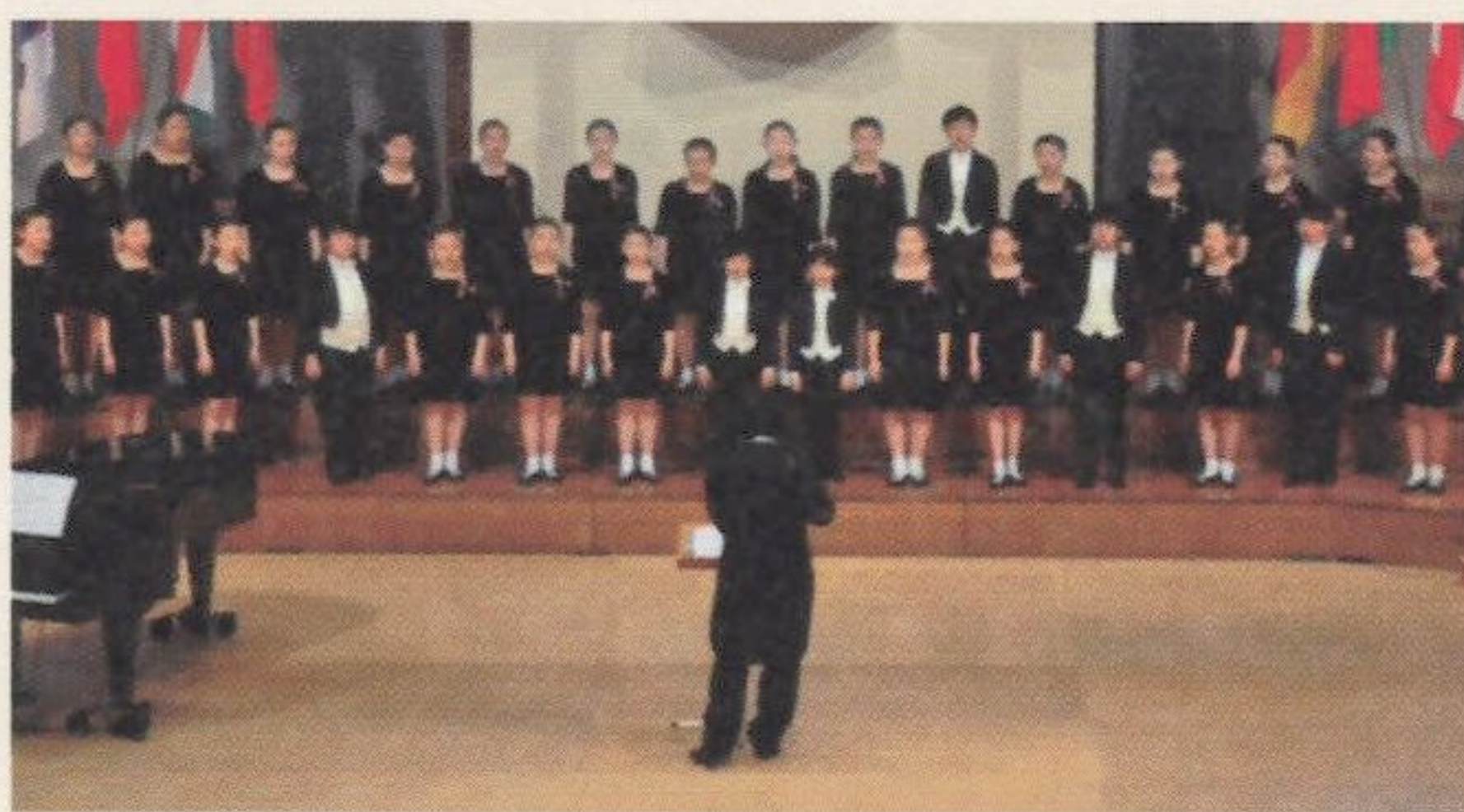
■25일

대원불교대학 푸른합창단(지휘/이순희)  
부산 중구시니어 코러스(지휘/이은정)  
동백합창단(지휘/정성민)  
무지개합창단(지휘/최인숙)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지휘/강학윤)  
메디코러스(지휘/이수정)  
센텀합창단(지휘/이철성)  
예그린여성합창단(지휘/손욱)  
해운대소리합창단(지휘/김진영)  
나르시어합창단(지휘/이경선)  
부산시립합창단(지휘/오세중)



제27회 부산청소년 합창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 지역의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청소년 문화를 선도를 위해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부산청소년 합창제 스물일곱번째 무대.

청소년시기에 중요한 감성을 음악, 특히 합창을 통해 표현하므로 감성과 사회성, 책임감 등을 키워주는 부산청소년 합창제는 종교음악부터 뮤지컬 합창, 아카펠라 합창까지 선율적이며 어린이 정서에 맞는 다양한 합창음악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김정철/라일락은 향기로 말해요  
윤학준/노래가 만든 세상

박수진/소리는 새콤 글은 달콤  
윤학원/난장이들의 노래  
정애련/여우야 여우야, 웃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수곡

▶참가단체

남문초등학교합창단(지휘/배수정)  
명호새별어린이합창단(지휘/이수진)  
양덕초등학교합창단(지휘/김기환)  
엄궁 푸른꿈 합창단(지휘/배수희)  
남부지역연합합창단(지휘/박지용)  
남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주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클라리네티스트 줄리안 밀키스 부산연주회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 의 | 코리아뮤지카(02-2272-6516)



전설적인 뮤지션 베니 굿맨의 제자로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들며 관객을 사로잡는 클라리넷의 대가 줄리안 밀키스 부산연주회. 줄리어드와 맨하튼 음대를 졸업한 줄리안 밀키스는 솔리스트로, 챔버 뮤지션으로,

재즈 클라리네티스트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아리아, 아다지오  
멘델스존/안단테  
브람스/소나타 제2번 작품 120 등 수곡  
· 피아노/심경숙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3 유키 구라모토 가을콘서트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애잔한 선율과 절제된 분위기, 서정적 연주로 우리를 유혹하는 뉴에이지의 거장 유키 구라모토와 디토 챔버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는 가을콘서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 중 한명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유키 구라모토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4차례의 서울공연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우고 총 100여 회의 공연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가지며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공연계의 베스트 & 스테디 셀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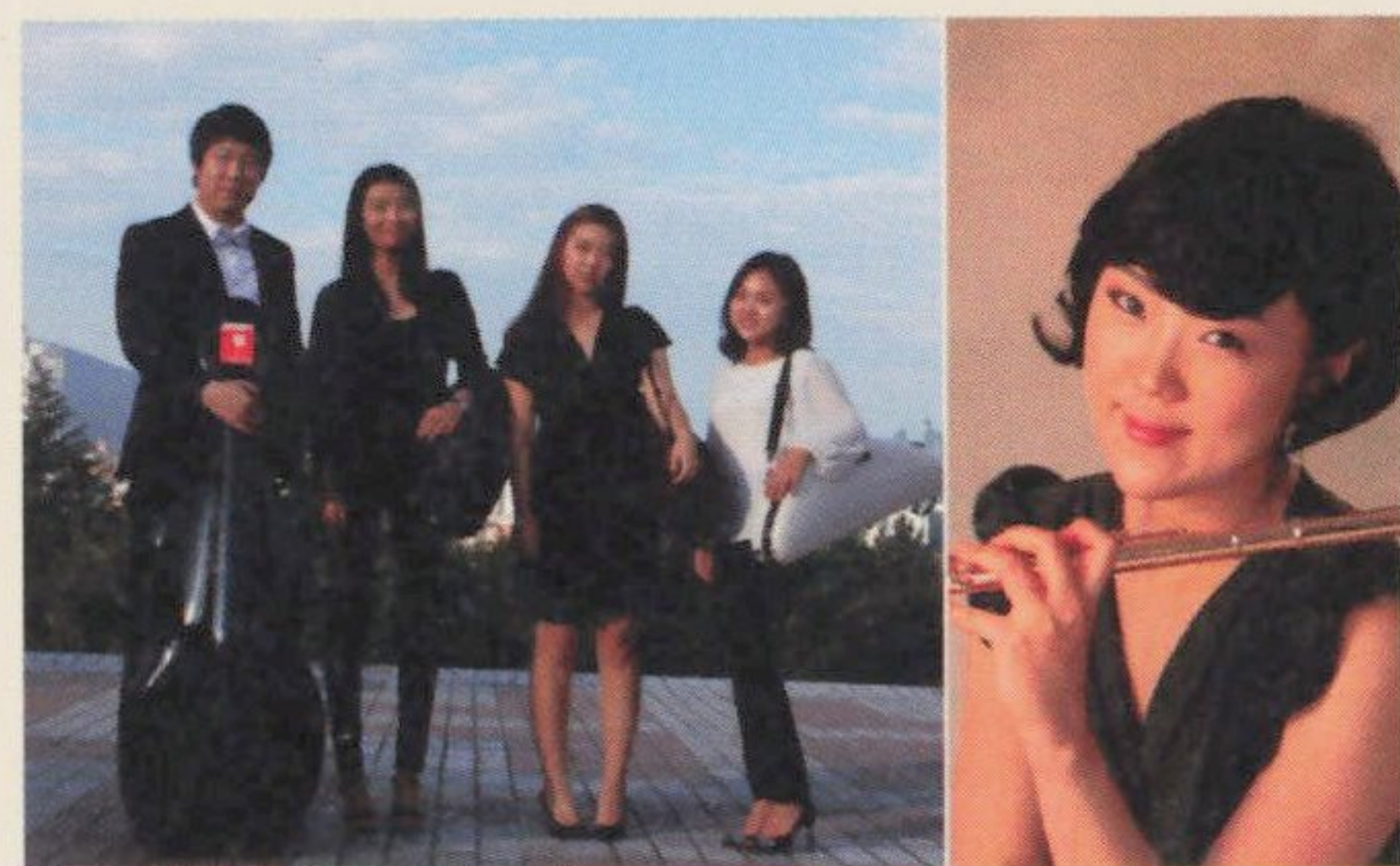
아름다운 가을의 서정을 노래할 이번 무대에서 'Consolation, 청명한 가을 바람을 닮은 위로' 라는 부제로 청명한 가을바람과 닮아있는 그의 애잔한 선율과 절제된 분위기, 서정적 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Meditation, Lake Louise, Ondine, Romance On The Shore, Virgin Road 등 수곡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3 발레 음악 시리즈 IV 고전시대 발레 음악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홍영준, 윤솔샘, 남가영, 탁서연

장예지

2013년 러시아 발레, 로맨틱 발레 등 다양한 발레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발레 음악 시리즈 IV '고전시대 발레 음악'.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발레 작품으로 고전 발레 음악의 정수를 들려줄 이번 무대는 안

무가인 장 조르즈 노베레의 판토마임 극으로 1767년 아스플마이어의 작곡으로 초연된 이래 모차르트가 완성한 발레 음악 '하찮은 것들', 베토벤의 후원자 발트슈타인 백작이 직접 제작, 안무를 맡고 베토벤이 작곡한 '기사 발레를 위한 음악', 높은 기교를 요하는 C.P.E.바흐의 플루트 협주곡,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제6번 '세레나타 노투르나'를 들려준다.

특히 세레나타 노투르나의 곡 중 솔로는 청소년교향악단 출신 탁서연, 남가영, 윤솔샘, 홍영준이 앙상블을 구성, 고전시대 협주곡 양식의 진수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 모차르트/발레 음악 '하찮은 것들'
- 모차르트/세레나데 제6번 '세레나타 노투르나'
- C.P.E.바흐/플루트 협주곡
- 베토벤/기사 발레를 위한 음악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탁서연(바이올린,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남가영(바이올린, 前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 윤솔샘(비올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홍영준(첼로, 前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장예지(플루트, United Korean Orchestra 단원)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제31회 정기연주회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510-1739)

우리음악을 전승,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에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백규진/국악관현악 '왕의 귀환'
- 박범훈/국악관현악 '춤을 위한 나나니'
- 이준호/대금 협주곡 '산바람'
- 이경섭/모듬북 협주곡 '타'
- 이경섭/해금 협주곡 '추상'
- 이준호편곡/성악과 국악관현악 '팔도민요모음곡'
- 지휘/배양현(한국음악학과 교수)
- 대금/오동욱 · 해금/한지연
- 모듬북/최정욱, 권두술, 이진희, 김보연

### 백혜선 피아노 리사이틀 -Into the Variations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호쾌한 타건, 완벽한 콘트롤, 깊고도 영롱한 톤이 만든 깊이 있는 연주로 음악의 본질에 접근하며 청중이 원하는 것을 탁월하게 소화시키는 피아니스트로 정평이 나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 리사이틀.

백혜선은 매년 여름 뉴욕의 한복판에서 열리는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축제인 IKIF(International Keyboard Institute & Festival)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연속 초청되어 독주회를 열어오고 있다.

#### ▶프로그램

- 하이든/변주곡 바단조 작품번호 17-6
- 베토벤/에로리카 변주곡
- 라흐마니노프/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 리스트/베네치아와 나폴리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2013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V - 라 보엠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해설 이동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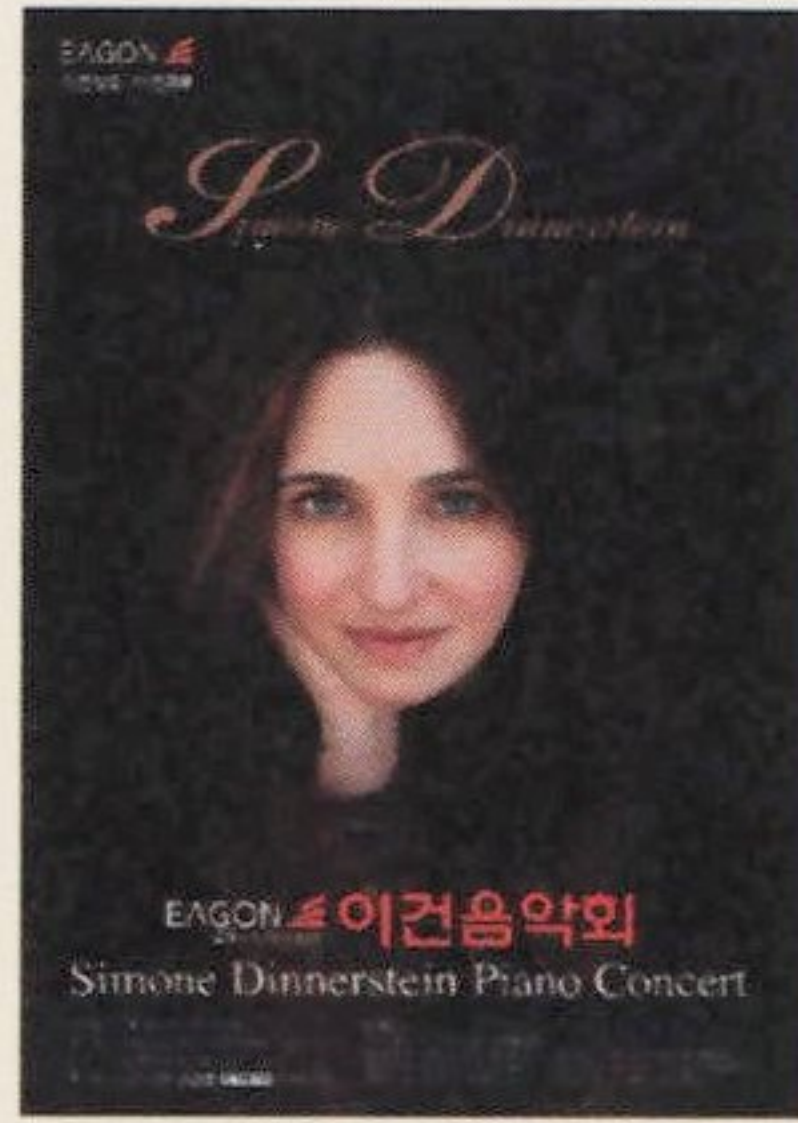
연출 유철우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2013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네 번째 무대 '라보엠'.

풍부한 선율과 극적인 효과로 오페라 '나비 부인' '토스카'와 함께 푸치니의 3대 명작 중 하나로 꼽히는 '라보엠'을 지휘자 이동신의 지휘·해설, 오페라 전문연출가 유철우의 연출로 들려준다.

- 지휘, 해설/이동신 · 연출/유철우
- 소프라노/윤지영 · 테너/조운환
- 바리톤/강경원 · 베이스/문동환
- 바리톤/김태우 · 소프라노/김혜영



시몬 디너스틴은 자비를 들여 2007년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 음반을 발매, 미국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를 차지, 뉴욕 타임스와 LA타임스 등 유수의 언론으로부터 '올해의 앨범'에 선정되며 화제가 된 실력파 음악인으로 이견음악회를 통해 국내 첫 무대를 갖는다.



### 2013 한얼樂會 제8회 정기연주회

11월 2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한얼樂會(010-4503-1175)

1990년 부산문화회관 강습을 통해 인연을 맺은 국악동호인들로 결성된 이래 20여년간 우리 음악의 전승, 보급에 힘써온 한얼악회의 2013년 무대. 한얼악회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외에도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상설무대, 오사카 국제민족음악제, 창원성산아트홀 개막연주 등 각종 무대에서 우리 음악사랑을 펼쳐왔다.

#### ▶ 프로그램

- 대금, 소금제주/송구여지곡
- 대금독주/요천순일지곡
- 대금제주/강백천류 대금산조
- 판소리/춘향가 중 쑥대머리, 사랑가 등 수곡



### 유럽 최고의 기타리스트

#### 제레미 쥘브 초청 콘서트

11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 부산문화(1600-1803)

2002년 티히(Tychy) 국제 기타 콩쿠르(폴란드) 최우수상, 2003년 미국 기타 재단이 주최하는 권위있는 국제 기타 콩쿠르 대회(GFA)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 등장한 기타리스트 제레미 쥘브 부산초청 연주회.

- 특별출연/바이올린 조현미(신라대학교 교수)

## 토요일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 10월 5일(토)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세계의 민요로 가을을 알리다'



#### ▶ 프로그램

- 러시아 민요/카츄샤, 백학
- 중국민요/월량대표아적심(月亮代表我的心)
- 일본민요/날개를 주세요, 아이쥬 반다이상
- 흑인연가 메들리
- Smooth Sailing(순항)
- Andrew Lloyd Weber 메들리
- 수석지휘자/오세종
- 피아노/이승윤
- 소프라노/김나영, 남순천, 이정란, 홍승현, 최선희, 이정희, 엄남이, 양은제, 권순유, 김수경, 최다희
- 앨토/손미숙, 정은영, 김미경, 장은경, 배소영, 박진희, 차성희
- 테너/강종철, 김진영, 박성환, 김추리, 강은태, 이재원, 송현정
- 베이스/안재형, 김태우, 최기호, 최영수, 문동환, 김창돈, 이태영



### 부산코러스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코러스합창단(010-2551-7542)

1999년 합창음악을 사랑하는 전문 음악인들과 합창 애호가들로 결성된 순수 민간 혼성합창단인 부산코러스합창단(단장 정현모)의 제10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부산코러스합창단 제3대 지휘자로 부산코러스합창단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한성용 상임지휘자와 마련하는 첫 정기연주회이다.

#### ▶ 프로그램

- 보리밭, 사랑의 이름으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등 수곡
- 지휘/한성용 · 반주/최지선
- 독창/베이스 최현욱



### 제24회 이견음악회

#### 피아니스트 '시몬 디너스틴' 내한공연

11월 2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9월 25일~10월 9일 공식블로그

(www.eagonblog.com)를 통해 신청, 접수

문의 | 이견창호(02-547-5707)

1990년부터 매년 가을, 문화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견음악회 제24회 무대.

올해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시몬 디너스틴(Simone Dinnerstein)'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Music

###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 1일 고연정 가야금 IV '流'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단원,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가야금산조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주자 고연정 독주회.

#### ▶ 8일 송민숙의 춤 '舞作'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일무 이수자, 춤새무용단 대표, 대전시민대학 궁중무용 교수로 있는 송민숙의 춤판.

#### ▶ 15일 최희연 해금독주회 IX '경풍년과 산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 예술중고등학교 강사, 해금연구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금주자 최희연 독주회.

#### ▶ 22일 하재원 해금독주회 '千年之響'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단원, 해금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해금주자 하재원 독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을 역임한 하재원은 금정악

회 회원, 부산 썩삼중주단 너울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 ▶ 프로그램

동래줄풍류 중 '염불도드리·타령·당학(군악)', 지영희류 해금산조

· 아쟁/박대성 · 장고/박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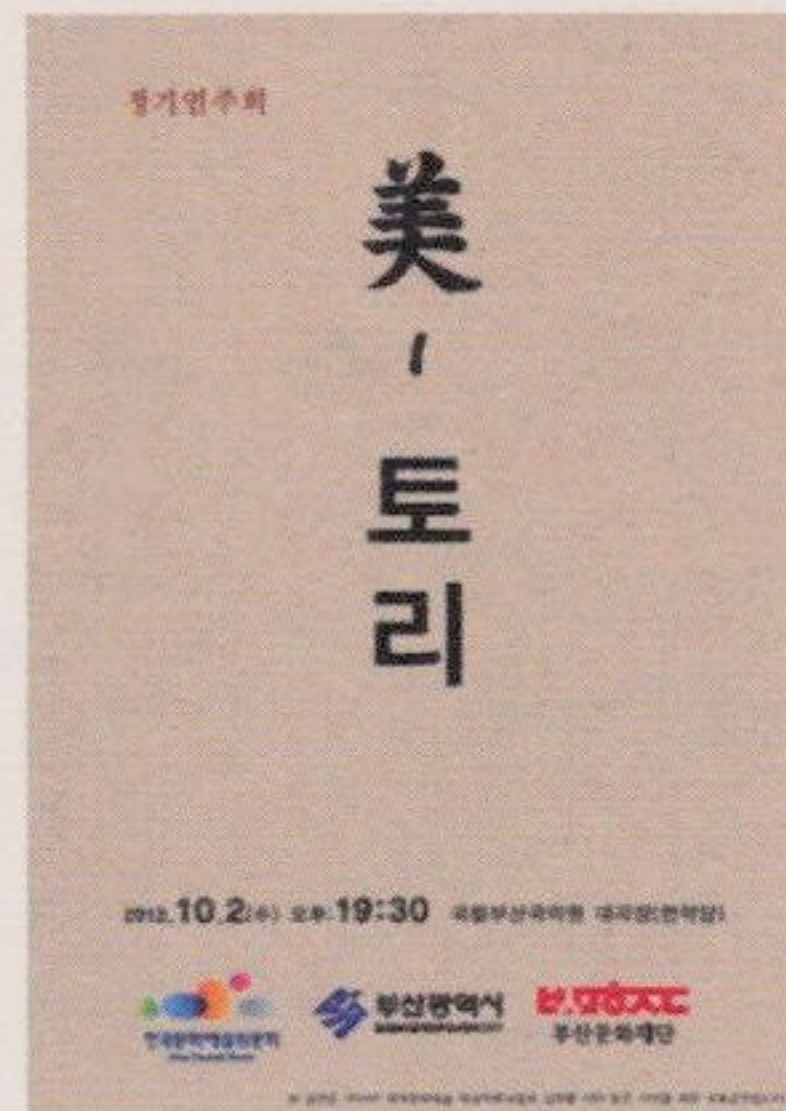
· 가야금/김혜련

#### ▶ 29일 최오성 독주회 '네가지 소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예술단 음악감독, 국악연주단 미토리 단원이자 부산시무형문화재 제8호 고분돌이걸립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타악주자 최오성 독주회.

### 美-토리 정기연주회

10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진형준(011-9523-8519)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인 진형준을 대표로 부산의 젊은 국악연주인들로 결성된 美-토리의 첫 번째 정기연주회.

#### ▶ 프로그램

승무, 경상도민요 '아라리, 장사치 노래, 눈실타령', 모듬북합주, 태평무, 시나위

· 연주/진형준(피리, 태평소), 최오성(장구), 이중희(대금, 소금), 최영훈(아쟁), 윤해승(해금), 최윤영(노래), 김명희(거문고), 박은정(가야금), 윤혁성(드럼), 정우진(베이스)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9일 공연없음)**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 ▶ 2일 플루트, 오보에 & 피아노 트리오

플루티스트 김문희, 오보이스트 오지윤, 피아니스트 장윤정으로 결성된 플로에노 트리오의 무대.

#### ▶ 16일 힐링오페라 '사랑의 묘약'

부산지역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갈라무대.

· 출연/테너 이철성, 한우인, 바리톤 정승화, 지광윤, 김기환, 소프라노 김정아, 왕기현, 김지영

#### ▶ 23일 소프라노 이은미 독창회

현재 이태리음악연구회, 벨리시미성악연구회, 필로퍼스 회원으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이은미 독창회.

#### ▶ 30일 정소영 피아노 독주회

현재 Trio Aris 피아니스트로 있는 피아니스트 정소영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베토벤 소나타를 들려준다.

### 가수 유열과 함께하는 힐링 토크 오케스트라 콘서트

10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30% 할인)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이끄는 부산YMCA-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가수 유열이 함께 하는 힐링 콘서트.

### 울속도문화회관 금요 해피콘서트

#### 해설이 있는 동의 현악앙상블

10월 4일 **금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의현악앙상블이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지휘/임준오



YAMAHA·KAWAI·STEINWAY  
PIANO DI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자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 051-753-8963  
H.P. 010-9003-8963



부산아미주부농악단 창단공연 -참 좋은 인연-

10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강성일(010-5488-5941)

2009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원형보존 및 계승을 위해 모인 부산 아미주부농악단 창단공연.  
· 특별출연/매구놀이마당



부산가야금연주단 제9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축제의 향연-

10월 6일 일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1층 3만원 · 2층 1만원  
(부산은행 예매시 30% 할인)  
문의 | 황정원(010-3050-5736)



김선 박애리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를 단장으로, 부산, 경남지역 가야금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가야금연주단의 무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부산가야금연주단은 이번 무대에서는 가야금 연주 외에도 다도시연과 궁중의상 패션쇼가 함께 펼쳐진다.

- 객원지휘/김선(남원시립국악단 지휘자)
- 소리/박애리 · 태평소/김성겸



박신영 귀국 오보에 독주회

10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박신영(010-9301-2409)

성신여자대학교와 미국 San Francisco Conservatory of Music을 졸업하고 현재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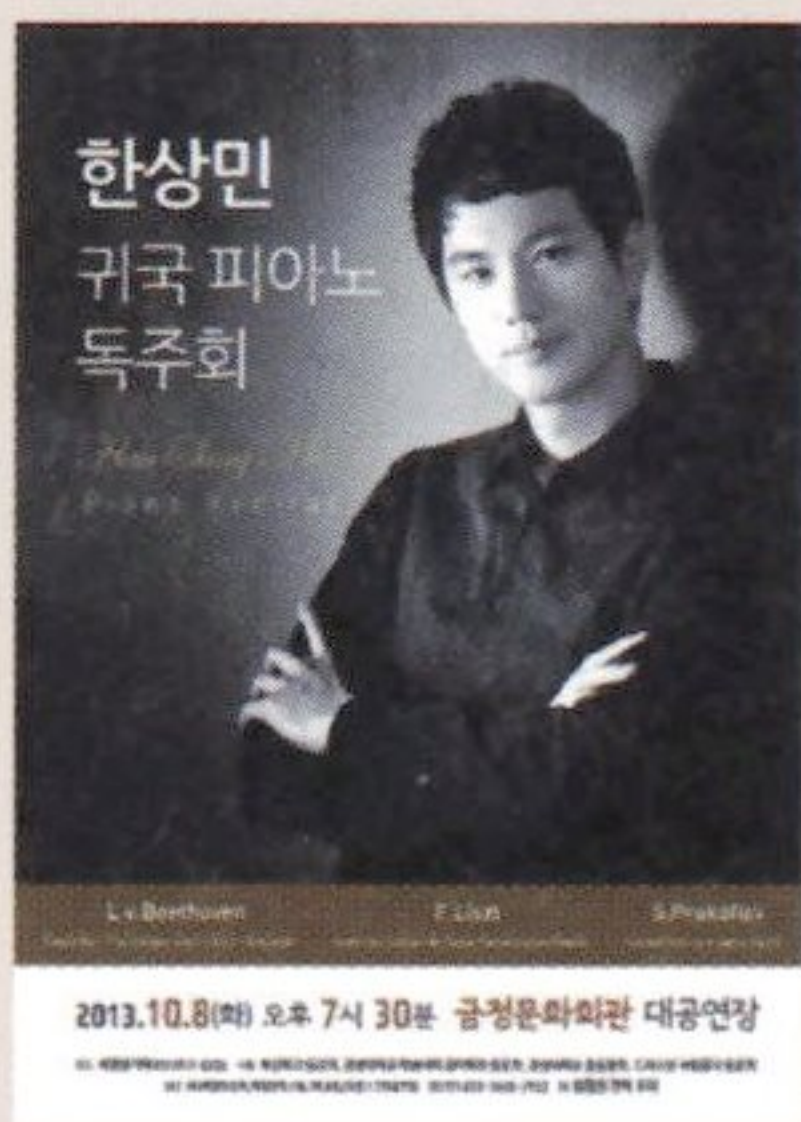


노를 위한 소나티네 등 수곡  
· 피아노/이은정 · 플루트/장예지



한상민 귀국 피아노 독주회

10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예원엔기획(817-0224)



양한 무대에 서었다.



신현희 피아노 독주회

10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예술기획(0505-700-9798)



베토벤/소나타 작품 110 가장조 제31번 등

수석,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중인 오보이스트 박신영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헨델/소나타 사단조  
슈만/3개의 로망스 작품 94  
말콤아놀드/오보에와 피아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 음악교육학 석사)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한상민 독주회. 한상민은 그동안 독일 현대 음악단체 Klangnetz의 전속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다

고신대학교와 독일 아헨 국립음대 졸업,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신현희 독주회.

▶프로그램

멘델스존/환타지 바단조

김영민 호른 리사이틀

10월 8일 화요일 오후 8: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영민(010-8733-7438)



산음악협회 콩쿠르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울속도 창작음악 나들이

10월 8일(화)~9일(수),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 토요일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12)



작곡모임 잉태(8일), 부산작곡가협회(9일), 향천회(11일), 부산전자음악협회(12일) 등 부산지역 4개 작곡단체가 마련하는 울속도 창작음악 나들이. 합창 & 가곡에서부터 목관4중주 등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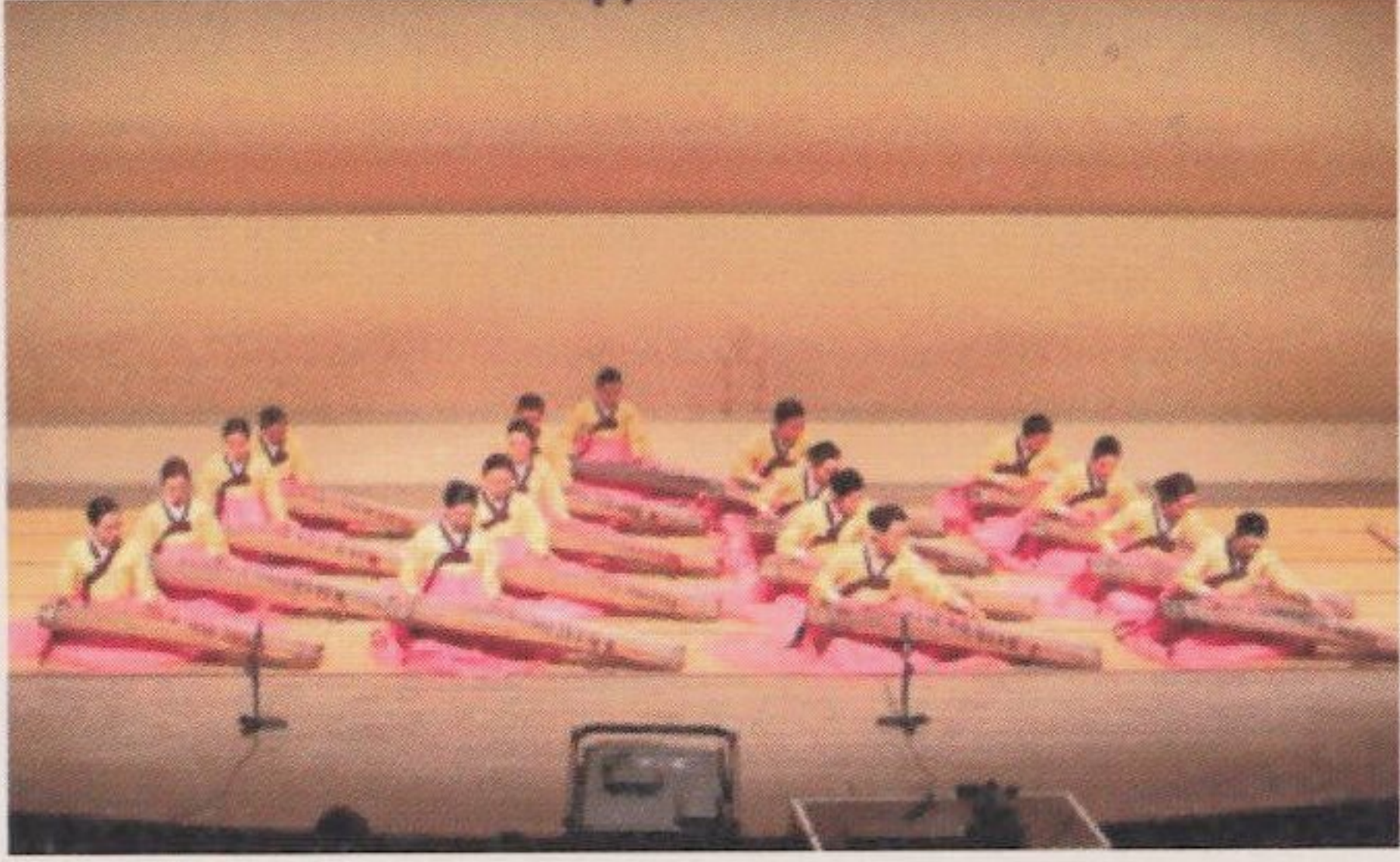
효산 강태홍선생 탄생 120주년 기념

2013 강태홍의 소리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  
(010-9149-3433)

지난 1989년 부산시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단체로 지정된 후 수많은 이수자와 전수자를 배출해온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의 정기연주회. 효산 강태홍선생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 강태홍 선





생이 남긴 산조음악과 봉장취, 풍류, 가야금병창 등을 연주, 선생의 음악적 발자취를 돌아본다.



### 김민정 피아노 리사이틀 '춤추는 피아노'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무료  
 문 의 | 김민정(010-6531-0307)

미국 뉴잉글랜드 예비학교와 Boston University(학사, 석사), University of North Texas(박사)를 졸업한 김민정은 이번 무대에서 '러시아 발레' 음악을 테마로,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프로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스트라빈스키 '페트로슈카'를 들려준다.



### 스페이스 음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3일, 24일 공연없음)  
**스페이스 음**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스페이스 음(557-3369)

#### ▶ 10일 Encore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영화주제곡을 들려주는 피아니스트 최성진의 무대.

#### ▶ 17일 이장호, 백현경 바이올린 듀오 연주회



이장호

백현경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크로노스앙상블 리더로 활동중인 이장호와 미르피아 아이온 앙상블 예술감독 겸 리더로 활동중인 백현경의 바이올린 듀오 무대.

#### ▶ 31일 그림과 함께하는 소리아야기

중요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이수자인 소리꾼 최윤영이 민요에 얽힌 유래를 노래와 함께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



### 을숙도 명품콘서트 드레스덴으로부터의 초청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스웨덴 출신의 클라리네티스트 에밀 자인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을숙도 명품콘서트 10월 무대.

#### ▶ 프로그램

정희영/명경지수(明鏡止水)  
 베버/클라리넷협주곡 제1번  
 작품 73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작품 64

· 연주/T.I.F.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이효상)



### 동래읍성축제 개막음악회 '동래, 부산을 품다'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6:00  
**동래문화회관 야외특설무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임채형(010-2884-6418)



매년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온천천 열린음악회, 중국 순회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대중과 만나온 동래구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동래읍성축제 개막음악회.

· 연주/동래구국악관현악단(지휘/홍희철)  
 · 협연/성악가 김창돈, 오동주, 윤선기, 장희진, 보컬 김환영, 김가현, 소리꾼 김아름



### 유주영 플루트 독주회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유주영(010-6630-5535)



경성대학교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해운대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단원, 부산 플루트앙상블, 플루트 4중주 '클랑' 단원으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유주영 독주회.



### CTS부산방송남성합창단 창단연주회

Laudate Dominum 주를 찬양하라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CTS부산방송(784-9988)  
 이영일(010-9562-3053)

**부산악기**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  
 복원(수리), 조율, 감정, 대여

부산문화회관전속 조율사 / 김해문화의전당 전속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0-4556-9410  
 TEL 051)758-5445 / 5450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부산지역 복음화와 기독교문화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9월 창단된 CTS부산방송남성합창단은 그동안 부전교회, 순복음금정교회 초청연주회, 가족사랑음악회, 순천남성합창단과의 교류음악회 등 남성 특유의 웅장하면서도 풍성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 지휘/최형태
- 특별출연/바리톤 양재원,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 부산국제퓨전음악페스티벌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국악청, 소리팔레트, 윈드랩리스트, 파이프플로어, 꽃비셋 & DJ, 토다, 야에마몽키, 크로스노트 등 8개 퓨전음악단체가 출연하는 2013 부산국제퓨전음악페스티벌.

### 플루트 사중주 '울' 창단연주회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김인호(017-554-7777)

2013년 플루티스트 김인호, 정병태, 허연지, 최은정으로 창단한 플루트 사중주 '울'은 자유로움과 즐거움, 학구적임과 이색적임을 모토로 관객과 함께할 예정이다.

### 심정자 귀국 피아노 독주회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심정자(010-8528-0645)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Rutgers 뉴저지 주립대학을 졸업한 심정자는 American Protege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1등상을 수상,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 제20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나는 테너다!!'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테너 양승엽, 임성규, 장진규, 조윤환, 홍지형이 국내외 가곡 및 민요, 오페라 아리아, 칸초네 등 다양한 곡을 들려주는 숲속의 열린음악회 10월 무대.

### 동성화학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 서희태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 7 'Classic in Cinema'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지휘자 서희태와 함께 영화의 감춰진 이야기를 토크콘서트로 풀어보는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 7번째 무대.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속 클래식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서희태 특유의 위트있는 해설과 두레라움페스티벌 앙상블의 연주로 들려준다.

### 부산시민을 위한 가을밤 국악 페스티벌

#### 이나영 경기소리 '설레임'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 의 | 이나영(010-2554-2400)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로 있는 소리꾼 이나영의 두 번째 경기소리 무대 '설레임'.



스승이자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춘희와 국악계의 대표적인 소리꾼 남궁량, 강효주, 박애리와 이나영의 제자들이 경기소리의 다채로운 맛을 들려준다.

· 연주/이호진(피리), 원완철(대금), 이동훈(해금), 김보경

(가야금), 윤서경(아쟁), 조용복(장고)

### 빈소년합창단 내한공연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5)



500년 이상의 역사와 황실의 전통을 자랑하는 빈소년합창단 내한공연.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브루크너 등 총 4개의 합창단으로 나뉘어 전 세계를 무대로 연간 300여회가 넘는 공연을 펼치고 있는 빈소년합창단의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팀이 지휘자 올리버 슈텍히와 함께 내한, 맑고 청아한 음색으로 감동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제4회 정기연주회

#### 사랑의 선율을 타고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모로제 성악연구회(010-3868-2808)

동서대학교 정태미 교수와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에서 유학하며 음악적 기량을 쌓아온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아모로제 성악연구회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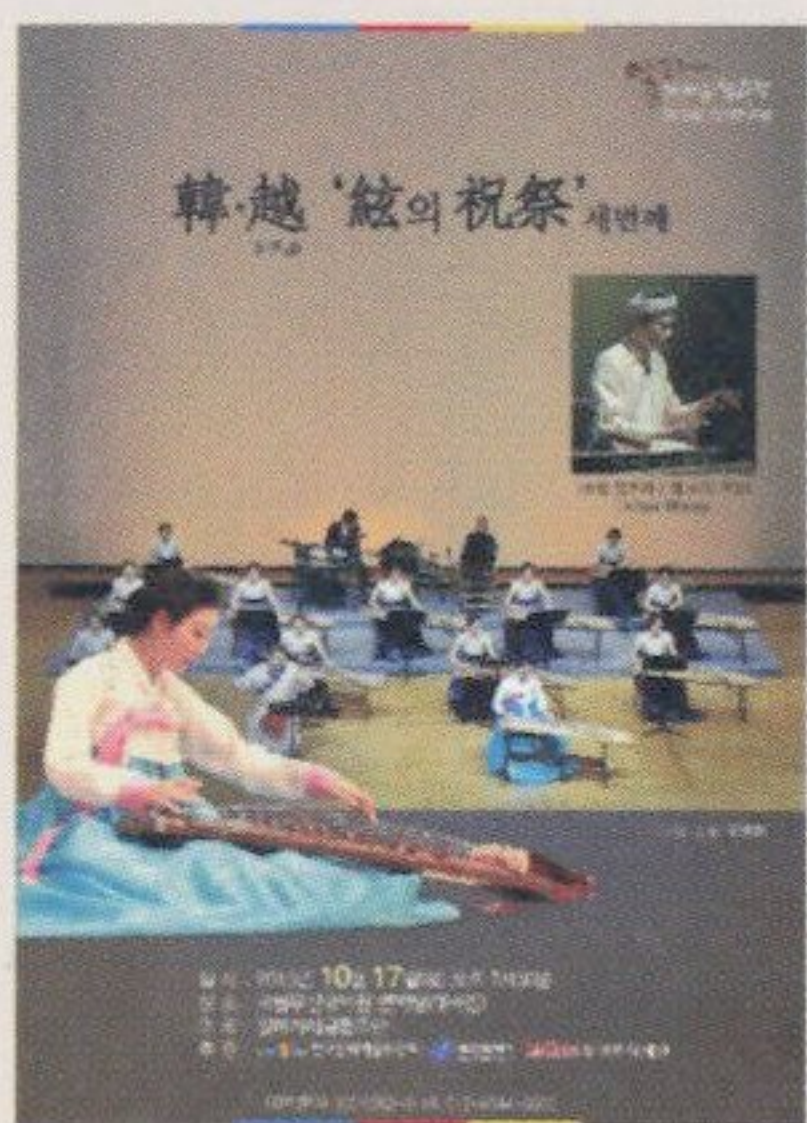
을숙도문화회관 힐링콘서트- Amaranthine NARY  
해금으로 듣는 불멸의 음악들...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051-220-5805)

NARY BAND, 해조음 멤버로 활동중인 해금주자 Amaranthine NARY(전지인)의 연주로 마련되는 을숙도문화회관 힐링콘서트 10월 무대.

일파가야금합주단 제15회 정기연주회  
韓·越 '鉉의 祝祭' 세 번째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일파가야금합주단(582-9119, 010-4544-5505)



전통음악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창작곡 발표 및 새로운 연주법 개발, 악기 개량사업 등을 통해 가야금 인구의 저변확대에 앞장서온 일파가야금합주단이 2011년 韓·中·日 '현의 축제', 2012년 韓·몽골 '현의 축제'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하는 韓·越(베트남) '현의 축제'. 베트남 Hue 음악대학교 및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2003 베트남 단보우 콩쿠르 1등, 2012 Bravo Asean in Korea 대회 금상을 수상한 단보우 주자 레 화이 프 영이 베트남의 전통 현악기 '단보우' 연주를 들려준다.

제23회 부산신인음악회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을 빛낼 신인 음악가와 함께하는 제23회 부산신인음악회.

- 연주/T.I.F오케스트라(지휘/이효상)
- 협연/오지은, 김우영, 김희정, 정아람, 장서희, 박하연, 강소연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10월 19일(토), 26일(토) 오후 7: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19일 바람이 가르쳐준 노래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제2회 대전일보사 주최 전국클래식기타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초청음악회.  
가을밤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기타선율을 들려준다.

▶ 26일 독일 가곡의 밤

연세대학교와 독일 에센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테너 조창후가 슈트라우스 가곡과 케르너 시에 의한 슈만의 가곡, 뢰리케 시에 의한 볼프의 가곡, 뤼케르트 시에 의한 말러의 가곡을 들려준다.

직장인 음악학원 합동 가을음악회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6:00 글로빌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글로빌아트홀(505-5995)

고단한 직장생활 가운데서 음악을 배움으로 삶의 활력을 찾고 있는 직장인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지는 직장인 음악학원 뉴라이프와 해피데이의 합동음악회.

최윤영 세번째 이야기

동백꽃을 사랑한 경상도 민요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최윤영(010-9184-9619)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민요에 R&B, 재즈,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 국악의 현대화 작업에 앞장서온 소리꾼 최민영의 세 번째 무대. 지난 3년간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채집해 직접 편곡한 경상도 지방의 토속민요를 들려준다.

폴리포니 기타듀오 정기연주회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초중고생 5천원  
문의 | 서승완(010-5198-0074)



2005년 클래식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구성된 폴리포니기타듀오는 그동안 클래식, 영화음악, 국악, 남미무곡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디어헌터, 흑인 오르페, 금지된

장난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주제곡을 들려준다.

| 국제 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녹음홀 |

글로빌아트홀

www.glovil.org 051 505 5995 / 070 8880 5995

<p>대 관 독창회/독주회/실내악/세미나/행사</p>	<p>녹 음 음반녹음/유학, 콩쿨 제출용/영화음악/개인소장</p>
<p>연주자에게는 편안함을 관객에게는 감동을 주는 글로빌아트홀</p> <p>-부양구조와 음향확산공법에 의한 최적의 어쿠스틱 연주홀 -객석 어느곳에서든 지 고른 음향 전달</p>	<p>실제 공간울림을 들으며 녹음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어쿠스틱 음향홀</p> <p>-영국 BBC 방송사와 동일한 녹음장비 보유 -클래식 녹음 전용 마이크 다수 보유 -음악전공 전문엔지니어에 의한 녹음 및 Editing, Mastering</p>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 글로빌아트홀



### 제7회 토브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단장 이낙식(010-2693-7262)



지난 2003년 찬양을 통한 복음선교를 목적으로 창단된 토브남성합창단은 그동안 6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병원, 노인복지센터, 소년원 방문공연 등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음악사랑을 펼쳐왔다.

· 지휘/김종석 · 반주/임보아



### 탄생 200주년 베르디 & 바그너

10월 21일(월), 28일(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작곡가 베르디와 바그너의 실내악 곡으로 꾸며지는 특별한 무대.

- 21일 출연/박소영(플루트), 김미현, 김지현(피아노), 한현미(소프라노), 서은아, 곽예지(바이올린), 김상철, 김민경(비올라), 서성은, 김지원(첼로)
- 28일 출연/강철주(클라리넷), 홍유리, 성민주, 이은정(피아노), 조윤환(테너), 정은미(소프라노), 이종은, 강선혜(바이올린), 손주연(비올라) 외



### 무지카 비바 제19회 정기연주회 조재혁과 함께하는 가을산책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카 비바(010-6569-4865)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해설로 가을의 서정을 들려준다.



### 정주연 플루트 리사이틀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010년 미국 듀케인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매년 독주회를 가져온 플루티스트 정주연 리사이틀.

#### ▶ 프로그램

바흐/플루트 솔로를 위한 소나타  
엘던 버튼/소나티네 등



### 2013 생명을 춤추다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일반 2만원 ·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풍물굿패 소리결(512-6153)



인간 중심의 환경을 뛰어넘어 생명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태초의 악기인 북으로 표현한 풍물굿패 소리결의

'2013 생명을 춤추다'.

풍물굿패 소리결은 지난 2000년 결성된 이후 독일 전통예술 순회공연, 프랑스 파리 뤼마니떼 공연,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부산국악챔버오케스트라 '여운' 제12회 정기연주회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악장 임채형(010-2884-6418)



영화음악, K-POP, 오페라, 가곡 등 다양한 장르와의 퓨전무대를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 유일의 민간 국악오케스트라인 부산국악챔버오케스트라 '여운'의 정기연주회.

명창 김태희가 들려주는 부산 최초의 경상도 판소리를 비롯해 가야금명인 황병기 선생, 생황연주자 김효영, 플루티스트 황미리 등이 출연, 다양한 무대를 통해 우리 음악의 다채로운 색깔을 선보인다.

· 지휘/홍희철(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39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3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연주기량이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해 연주기회를 제공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39회 청소년 협연의 밤.

#### ▶ 프로그램

김영재/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협주곡





오혁/거문고협주곡 '강상유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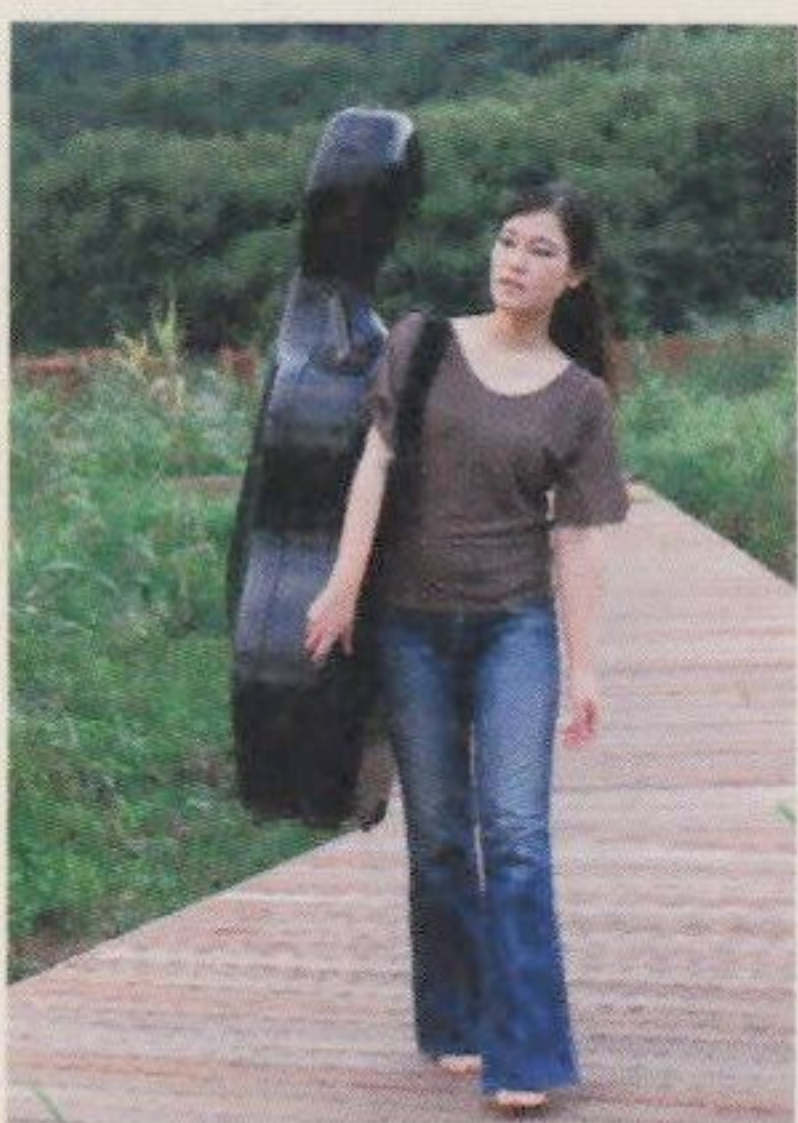
박범훈/22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새산조' 등

- 지휘/김철호(수석지휘자)
- 협연/김수빈(해금, 부산대 3년), 김고운(거문고, 부산대 석사과정), 이윤정(22현 가야금, 경북대 3년), 주정현(해금, 서울대 1년), 정주은(거문고, 부산대 4년)



현리사 귀국 첼로 리사이틀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대학교와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객원수석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현리사 귀국 독주회.

- 클래식기타/고충진
- 첼로/진승민



부산신포니에타 제81회 정기연주회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청소년 6천원  
 문 의 | 김영희(010-8519-0448)

1986년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매년 수준높은 무대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잡은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지휘자 류성규가 지휘하고 부산대학교 나광자 명예교수와 경성대학교 최윤희 교수가 협연한다.



류성규 나광자 최윤희

▶ 프로그램

레스피기/옛 춤곡의 아리아  
 모차르트/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365  
 아렌스키/차이코프스키 주제에 의한 변주곡



소프라노 강소영 귀국 독창회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예원엔기획(010-3645-7953)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음대 하계아카데미(디플롬), 린츠 안톤부르크너 음대 성악학과(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박사 과정에 있는 소프라노 강소영 독창회.



제16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최우수입상자 연주회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제16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의 각 부문 최우수입상자들이 펼치는 최우수 입상자 연주회. 이번 무대를 통해 제16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쿨 전체 대상과 특별상이 선정된다.

정희경 피아노 독주회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3천원  
 문 의 | 정희경(011-9535-7728)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귀국독주회 및 4차례독주회를 비롯 레클링하우젠 데뷔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온 피아니스트 정희경 독주회.



제70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 기금 마련)  
 문 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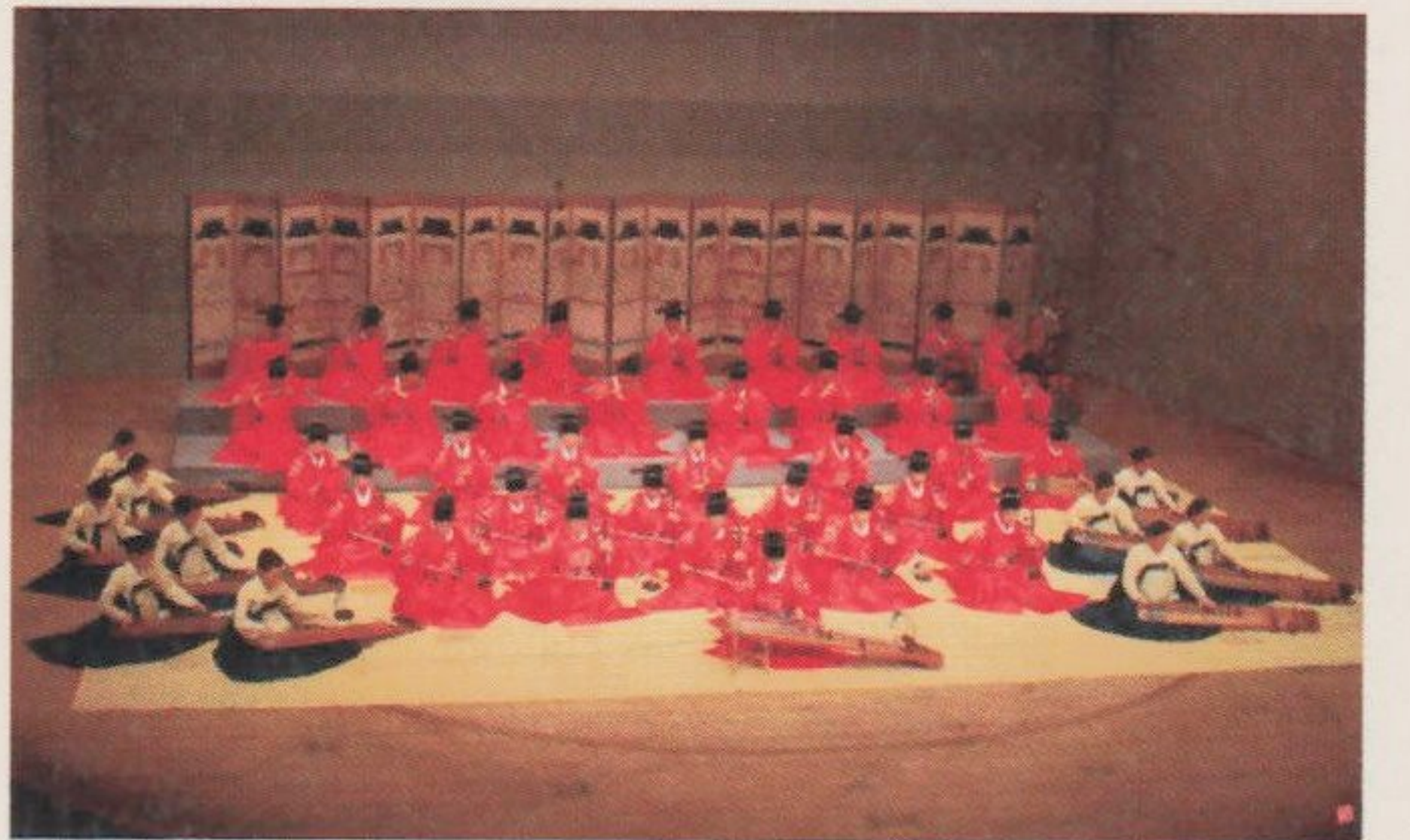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 시민들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창립 27주년 어울림국악연구회

제19회 정기연주회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어울림국악연구회(010-7300-2688)



1986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실시한 부산시민을 위한 단소무료강습회 수료생으로 출발한 어울림국악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격조있고 아름다운 정악무대를 선사한다.



### 제8회 부산색소폰콰이어 정기연주회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색소폰콰이어(010-9465-7163)

지난 2005년 창단 후 지금까지 정기연주회와 자선음악회, 프린지콘서트 등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색소폰콰이어의 제8회 정기연주회.

### 오아시스심포니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오아시스심포니오케스트라  
(010-5165-5363)



지난 2006년 음악을 사랑하는 순수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오아시스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음악나눔연주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음악봉사활동을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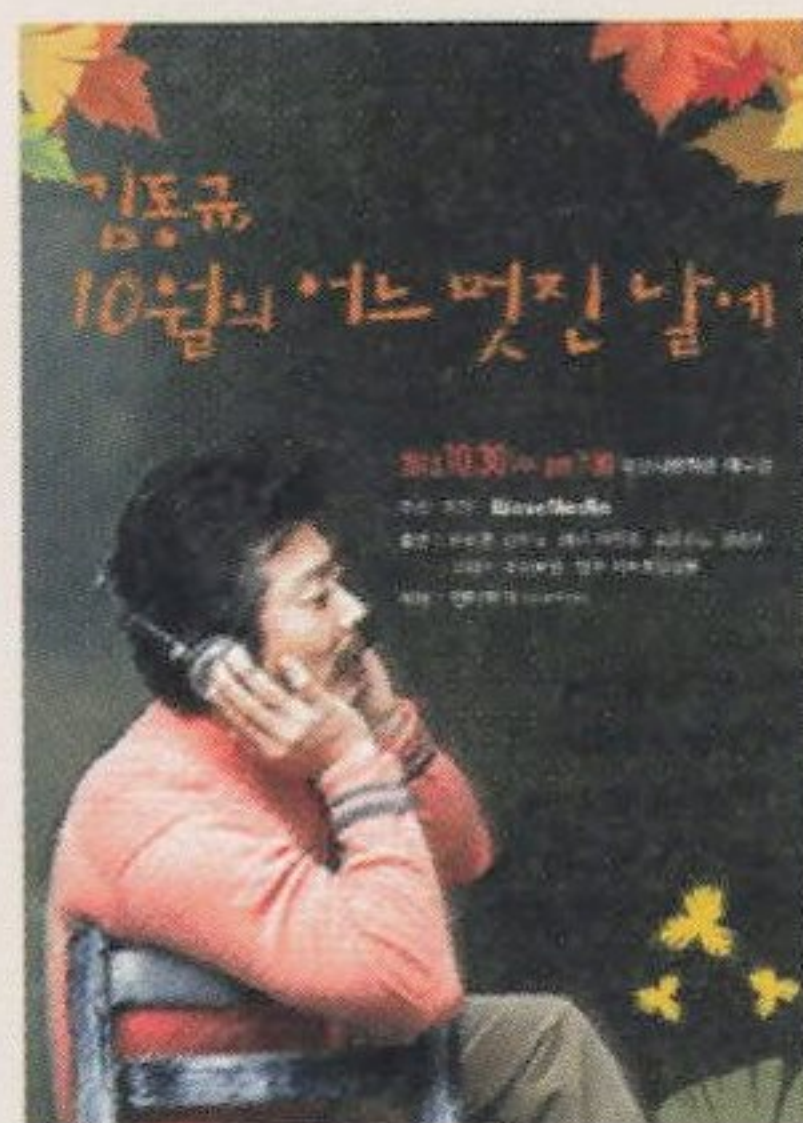
###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셰익스피어 인 클래식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65)

예술작품 속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재치있는 입담으로 소개하는 음악평론가 이현석과 떠나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햄릿, 오셀로, 한여름밤의 꿈, 로미오와 줄리엣 등 세기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와 그 작품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의 | (주)웨이브미디어(02-716-3316)



을 들려준다.

· 코러스/조이보컬 · 연주/에토레양상블

한 해 100회가 넘는 공연으로 관객과 교감하는 국내 최고의 바리톤 김동규의 무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영혼의 목소리 테너 이원용, 국내 차세대 소프라노의 선두주자 김순영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명곡들

### 부산거문고악회 제5회 정기연주회 '현금지무'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거문고악회(010-4187-7266)



2009년 3월,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문고연주자들과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거문고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들이 모여 창단한 부산거문고악회의 정기연주회.

#### ▶ 프로그램

- 태평가, 거문고 · 아쟁병주 '박대성류 짧은 산조', 거문고 3중주곡 '댄스 & 왈츠, 탕고, 여섯줄의 대화(정대석 곡)
- 거문고/권은영, 전해정, 김고운, 송다솔, 신아진, 백민정, 이진주, 김명희, 차근혜, 김아람, 이해영, 김현경, 배유경 외 부산거문고악회 단원
  - 가곡/이희재 · 장구/하정희
  - 아쟁/박애리 · 가야금/하지희, 권지현
  - 신디사이저/차민영 · 춤/오혜민

### 향사회 정기 작곡발표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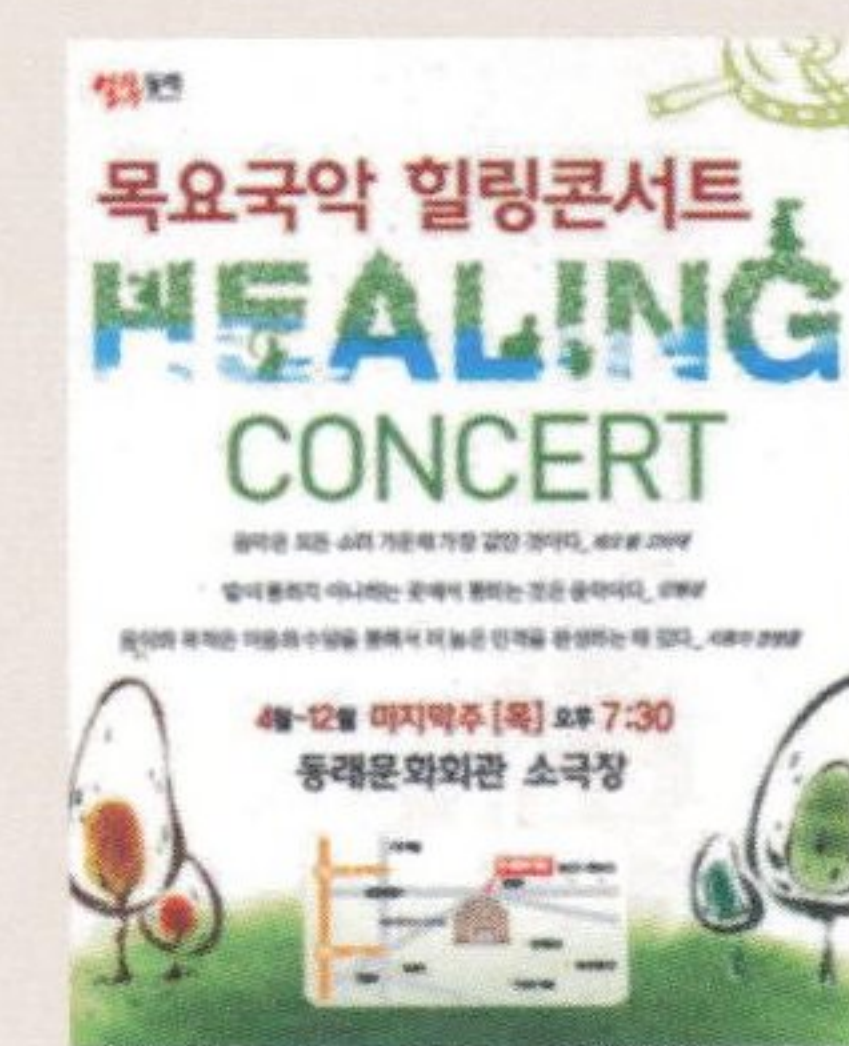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향사회(010-3139-1719)

지난 1974년 우리나라 서양음악 작곡계 2세대를 대표하는 작곡가故 이상근 선생과 그의 제자들로 결성된 후 부산을 대표하는 현대음악작곡가협회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향사회의 정기 작곡발표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테마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더불어 타 장르와 결합된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 힐링콘서트

#### Original Sound-가이아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우리 국악의 멋과 흥을 알려 온 퓨전국악그룹 '음악대륙가이아'의 무대로 마련되는 동래문화회관 목요힐링콘서트 10월 무대.

#### ▶ 프로그램

Go with us, Use it before you, 영상과 함께하는 OST 등

### 김희정 바이올린 리사이틀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청소년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열정적이면서 풍부한 음악성과 관객을 사로잡는 대범한 연주로 호평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독주회.

#### ▶ 프로그램

- 브람스/스케르초
-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등
- 피아노/박필은



## Play

### 연극 '70분간의 연애'

8월 1일(목)-10월 27일(일) 수-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공휴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매주 월-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팩토리**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주)가을엔터테인먼트(1644-0318)

남녀주인공의 15년지기 우정이 사랑으로 변하는 그 순간을 솔직담백하게 그려낸 러브 토크 '70분간의 연애'.  
 · 원작/차근호 · 연출/추상욱  
 · 출연/문성운, 김실즈, 박지훈



###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8월 23일(금)-10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9/19일 휴관)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어부산(1600-0316)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주인공과 연쇄살인범의 치밀한 추리 게임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 연극 '러브 액츄얼리'

9월 5일(목)-10월 6일(일) 평일 오후 5:00,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9/19일 휴관)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푹푹하면서도 사랑스러운 100일 커플, 얼굴만 보면 싸우는 권태기의 1,000일 커플, 친구인지 연인인지 아리송한 10년 커플을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인들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연극 '러브 액츄얼리'.

· 각색/함승희  
 · 공동연출/이성호, 박광복

### 소극장 무대공감 개관공연

#### 론더풀 투나잇(부제: 혼자 가기 좋은 술집)

9월 13일(금)-10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9/16일~19일,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공감무대**  
 입장료 | 일반 3만 5천원 ·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간판 하나 없는 허름한 동네 어귀 술집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따뜻한 감동과 재미로 풀어낸 창작극 '론더풀 투나잇'.  
 · 작/김영민 · 연출/구현욱  
 · 출연/김학준, 엄현철, 윤준기, 박현민, 안재성 외



### 연극 '서툰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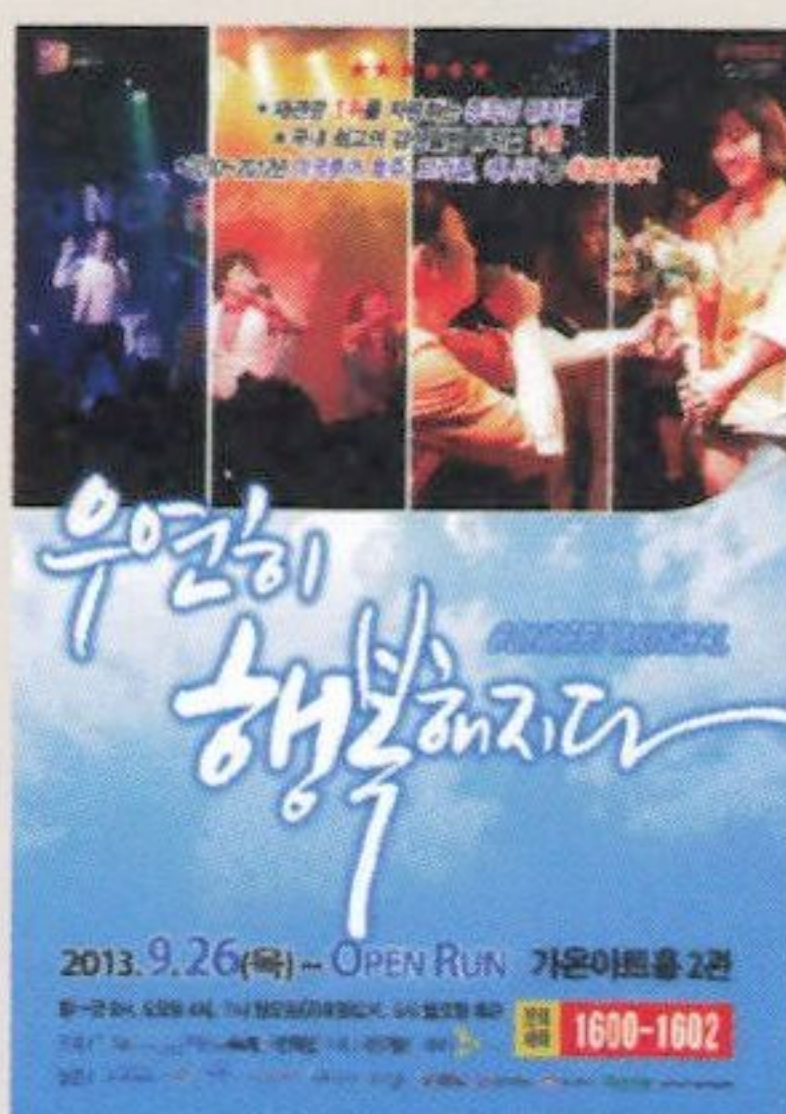
9월 24일(화)-10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5:00, 일요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 대학생 2만 5천원  
 초중고생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1588-9155)

집주인과 도둑으로 만난 어설피고도 서툰 주인공들의 하룻밤 유쾌한 소동을 그린 연극 '서툰사람들'.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박정무, 손청강, 임현준, 권수민, 양승일



### 콘서트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9월 26일(목)-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휴관)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주)문화락(1600-1602)



뒤편 참견해야 직성이 풀리는 수다남에서부터 사사건건 잘난 척하는 수상한 여자 김봉자, 무대공포증에 걸린 소심한 가수까지 한 카페에서 만난 여섯 남녀의 유쾌한 사랑이야기 '우연히 행복해지다'.

### 코믹극 '룸넘버'

9월 26일(목)-12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 비서의 스캔들을 소재로,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황당한 상황과 이를 모면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큰 웃음을 선사하는 코미극.



### 연극 '안티고네'

10월 3일(목)-1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공간소극장(611-8518)



부산의 공간소극장과 연극 놀이터 쉼, 대만 타이베이의 굴링아방가르드 극장과 신체기상관이 함께 참여한 연극 '안티고네'. 그리스 고전에 대만의 백색 테러, 중국의 천안문 사태, 한국의 광주항쟁을 결합해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는 모습을 그려낸 '안티고네'는 한국과 대만, 중국의 배우들이 한 무대에서 다중언어로 공연한다.

· 극본, 연출/왕모링  
 · 출연/홍승이, 백대현(한국), Cheng Yin-Chen(대만), He Yu-Fan(중국)



### 2013 부산 소극장연극 페스티벌 '루브(luv)'

10월 3일(목)-1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미리내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미리내소극장(504-2544)

기구한 인연의 세 남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로맨틱 코미극 '루브(luv)'.



### 2013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페스티벌

10월 11일(금)-27일(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자유바다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예매시 5천원 할인,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 (사)부산연극협회(645-3759)

#### ▶연극 '강'

11일 금요일 오후 7:30,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011 전국창작희곡 공모전 금상 수상작인 창작 초연작.

· 작/하경진 · 연출/오정국

#### ▶창작단막극 '밝혀라'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7:30,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블라인드 캣(이덕희 작, 김은희 연출), 구워먹을까요(김지  
숙 작, 김동민 연출), 분장실(김동현 작, 도정우 연출) 등  
신진작가와 신진연출가가 함께한 세 작품이 소개된다.

#### ▶명작극장 '대머리 여가수'

17일(금)-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자유바다 소극장



부조리극의 효시가 된 작품  
으로, 일상생활 속에 파묻힌  
부부생활의 무의미함과 사람  
들간의 소통의 불가능성을  
그린 이오네스코의 '대머리  
여가수'.

· 작/외젠 이오네스코  
· 연출/김만중

· 출연/호민, 구민주, 이해영, 오영섭, 강혜경, 신민호



#### 뮤지컬 '헤드윅'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00, 13일 일요일 오후 3:00  
부산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 S석 6만 6천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동독 출신의 실패한 트랜스젠더 록가수의 이야기를 그  
린 금세기 최고의 스타일리시 뮤지컬 '헤드윅'은 파격  
적인 비주얼과 심장을 멎게 하는 강렬한 퍼포먼스, 역  
동적인 락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0월 19일(토)-27일(일) 수-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10/27일은 오후 2:00, 월-화요일 공연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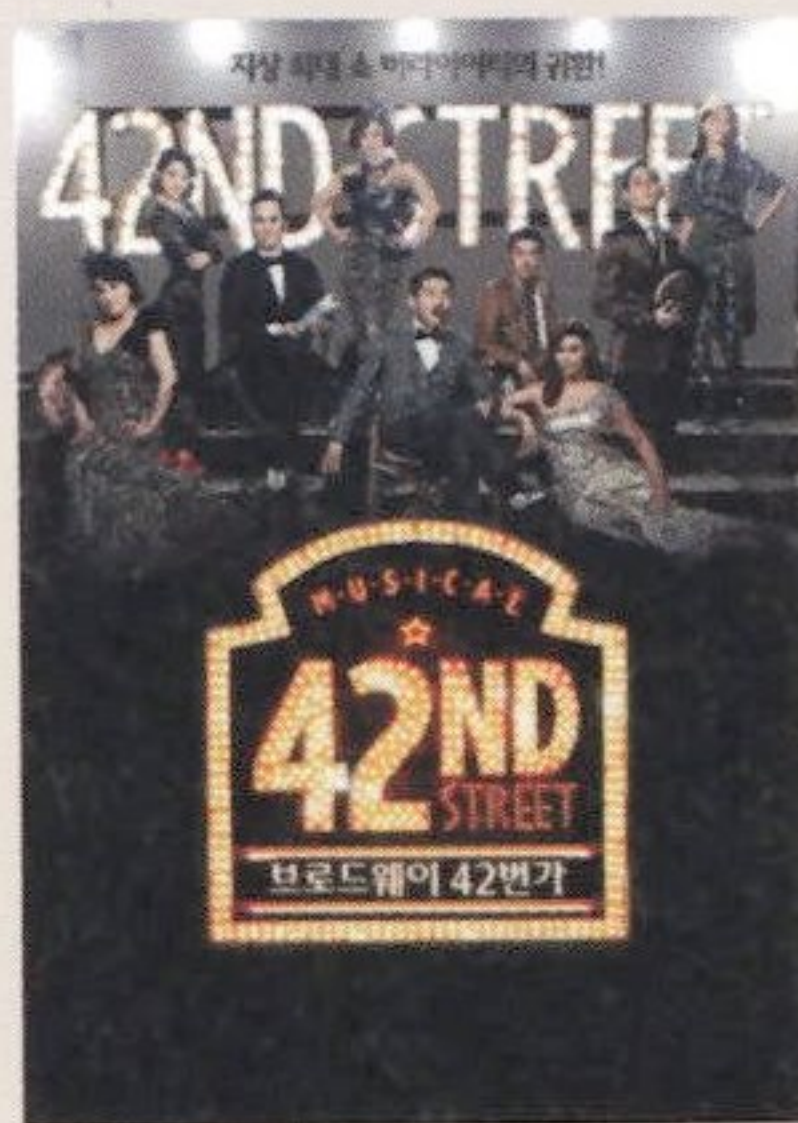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2만원 · R석 10만원

S석 7만원 · A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1930년대 대공황기, 브로드  
웨이의 중심인 42번가를 배  
경으로 무명의 뮤지컬 배우  
가 스타로 탄생하는 과정이  
화려한 군무와 흥겨운 재즈  
연주, 스펙터클한 무대 속에  
펼쳐지는 뮤지컬 '브로드웨  
이 42번가' 부산공연.

박상원, 남경주, 박해미, 홍지민 등 뮤지컬 스타들이 출  
연,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싸어?'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7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동세례를 받은 두더지의 범  
인 찾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관찰력을 키워주  
는 어린이 뮤지컬.



#### 연극 '손속의 어머니'

11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3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일제 강점기와 전쟁 속, 고난의 시절을 억척스럽게 살아  
낸 우리시대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낸 '손속의 어머니'.  
연기인생 50주년을 맞은 배우 손속이 모성애 하나로 살  
아온 삶에 자식의 죽음까지 감내해야 했던 강인하고 모  
진 우리네 어머니를 가슴 절절하게 그려낸다.

## Dance

### 아시아 민속춤 시리즈 VI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10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미숙(010-2818-7757)



경상대학교 아시아춤문화연  
구소가 지난 2010년부터 아  
시아의 다양한 춤을 주제로  
매년 경남과 부산을 중심으  
로 열어온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2013년 무대.  
한국, 중국, 인도, 부탄,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7개 국가의 전통춤을 선보인다.

· 총감독/김미숙(경상대학교 교수)



### LIG 아트 플랫폼 2013

10월 9일(수), 17일(목), 23일(수)-24일(목), 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LIG아트홀 부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LIG아트홀 부산(1544-3922)



국내외 축제, 극장의 우수공  
연 작품들을 부산에 소개하  
고 직접 제작한 작품을 타  
지역에 소개하는 'LIG 아트  
플랫폼 2013' 무대.

올해는 서울의 대표적인 세  
계무용축제인 서울세계무용  
축제(SIDance)의 대표작 3

편과 LIG문화재단이 LIG아트홀 부산에서 직접 제작해  
서울세계무용축제 폐막작으로 공연된 전인정 & 바이먼  
버커 프로젝트 신작 '문 없는 문'을 선보인다.



### 김연희의 춤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김연희(010-8191-7008)





부산시립무용단 수석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김연희 춤 예  
술원 대표, 부산무용협회 감  
사로 있는 춤꾼 김연희의 춤.

▶ 프로그램

지전춤, 교방검무, 학춤, 문둥  
이춤, 경기민요, 산조춤, 반고  
춤

## Concert

### 2013 버스커버스커 콘서트-부산

10월 3일 목요일 오후 5:00 **백스코 재1전시장**  
입장료 | SR석 11만원 · R석 8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 A석 7만 7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변진섭 가을소풍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4만원 · R석 3만원 · A석(2층) 2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재즈파크 빅밴드&유열 힐링콘서트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 2층 2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65)



### 해운대문화회관 목요미니콘서트 '골림'

#### 7080 토크 세남자 이야기-소리새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7080세대의 대표가수 소리새, 강은철, 하남석과 함께하  
는 추억의 7080 토크 세남자 이야기 첫 번째 무대 '소  
리새 콘서트'.

## Event

무지크바움 테마가 있는 음악강좌

### 우리를 적시고 간 노래들: 한국 양악세대 음악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Gallery

전국시도립미술관 네트워크

### 하정웅컬렉션 특선전 '기도의 미술'

8월 31일(토)-11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금련산갤러리 기획전

### 천 개의 목소리: 타자에게로 가는 길들

9월 4일(수)-10월 13일(일) **금련산갤러리**  
문의 | 금련산갤러리(740-4273)

### 신상호 FINAL FRONTIER

9월 12일(목)-11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 소울아트스페이스 기획전 최영욱 개인전 'Karma'

9월 12일(목)-10월 14일(월) **소울아트스페이스**  
문의 | 소울아트스페이스(731-5878)

### S.TLife\_생활광경(Sight to life)展

9월 13일(금)-10월 7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

### 원범식展 'Archisculpture'

9월 13일(금)-11월 11일(월) **토yota 포토 스페이스**  
문의 | 토yota 포토 스페이스(731-6200)

### 함께 자라는 어린이들 '빛나는 거미줄'

2013년 9월 14일(토)-2014년 2월 1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 기억으로 넘기는 페이지-나인주, 박향미

9월 23일(월)-10월 19일(토) **스페이스 움**  
문의 | 스페이스 움(557-3369)

### 2013 오픈 투 유 - 오픈 스튜디오 '이토록 뜨겁고 황 홀한 만남' 입주작가전 '산이 있어 그곳에 간다'

9월 28일(토)-10월 20일(일) **오픈스페이스 배**  
문의 |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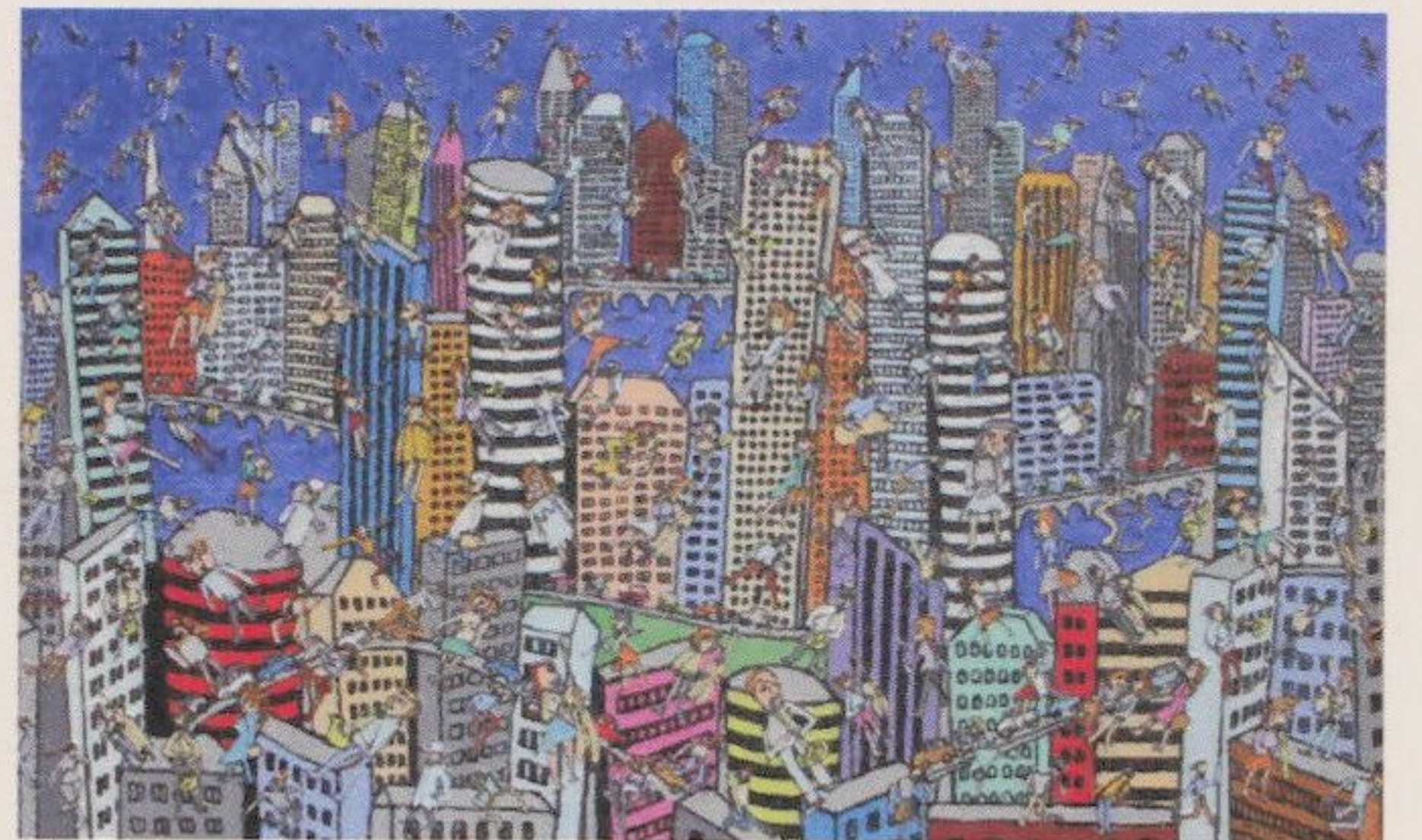
나가사기현대미술관 소장작품전

### 스페인/나가사키

9월 28일(토)-12월 1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 신흥우 展 '희망콘서트'

10월 1일(화)-11월 1일(금)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747-2612)



### 부산현대한국화작가전

10월 2일(수)-10월 10일(목)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 타워갤러리 기획 2013 자연의 음향전

10월 8일(화)-10월 19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 백성흠 제12회 개인전

10월 11일(금)-10월 18일(금)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 건축사진전 '공간 詩학-낯섬과 익숙함' -윤준환, 이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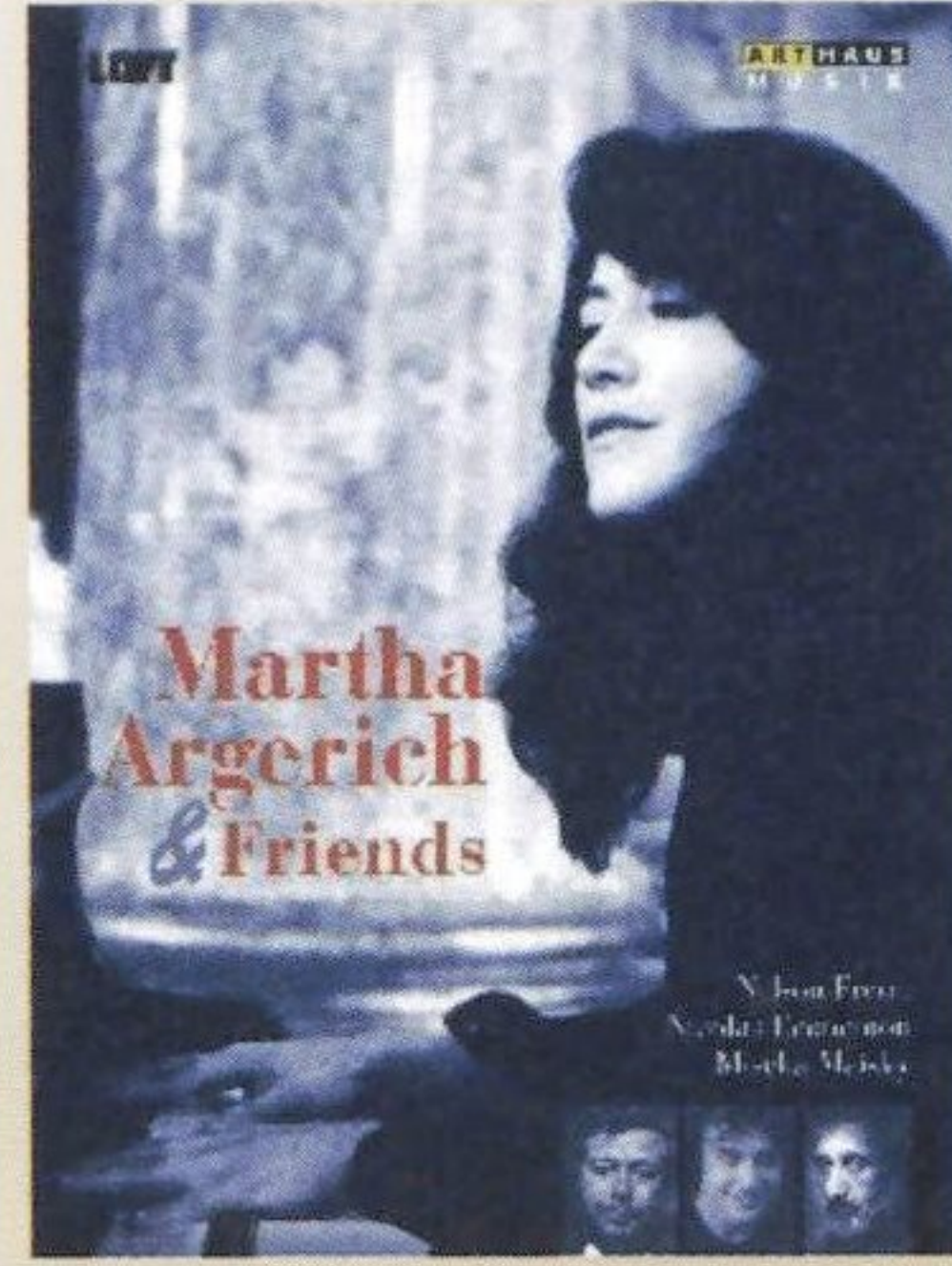
10월 21일(수)-11월 9일(토) **스페이스 움**  
문의 | 스페이스 움(557-3369)



##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친구들-넬슨 프레이레, 니콜라스 에코노모우, 미샤 마이스키

### ▶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카리스마 넘치는 전성기를 기록한 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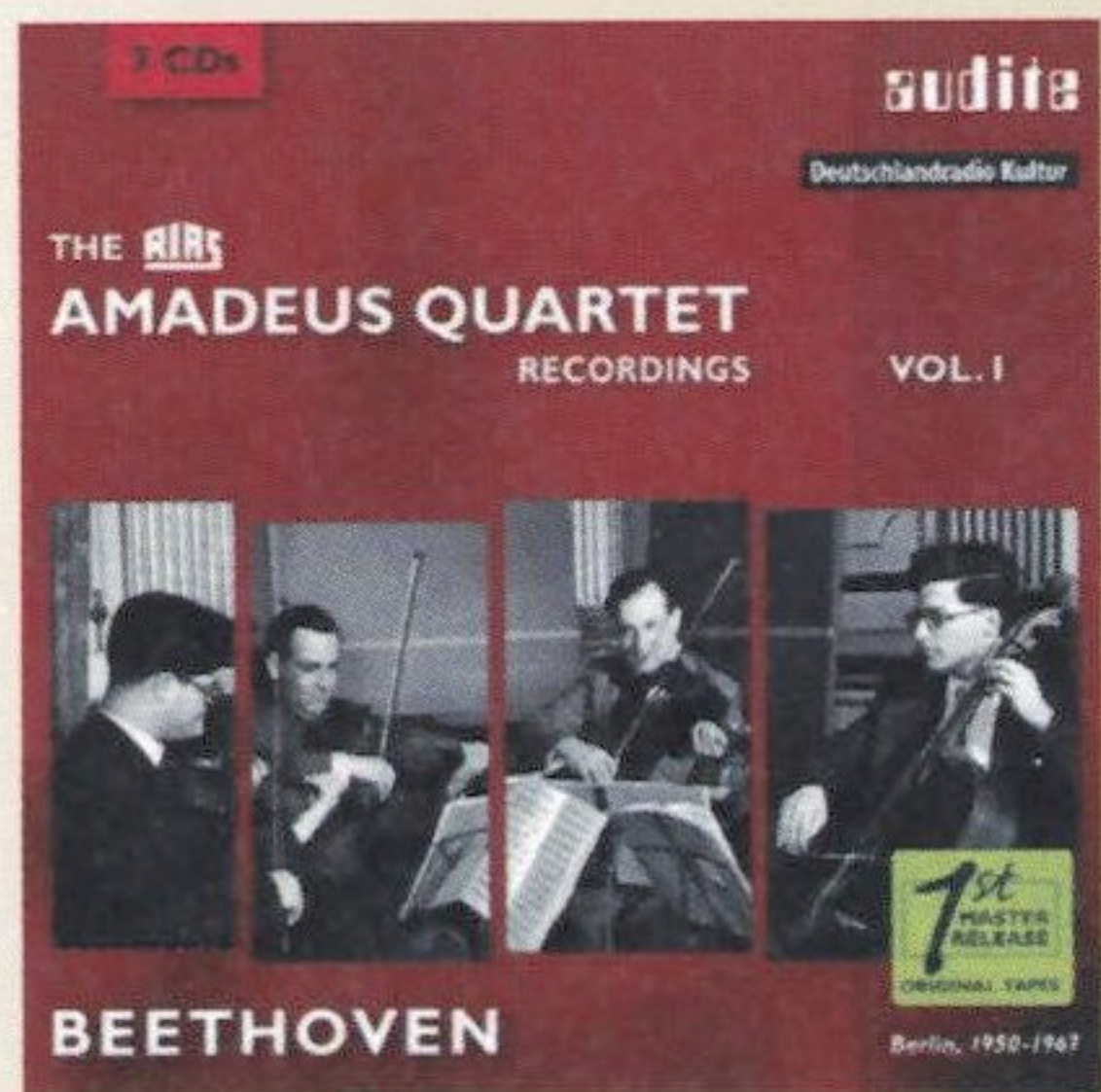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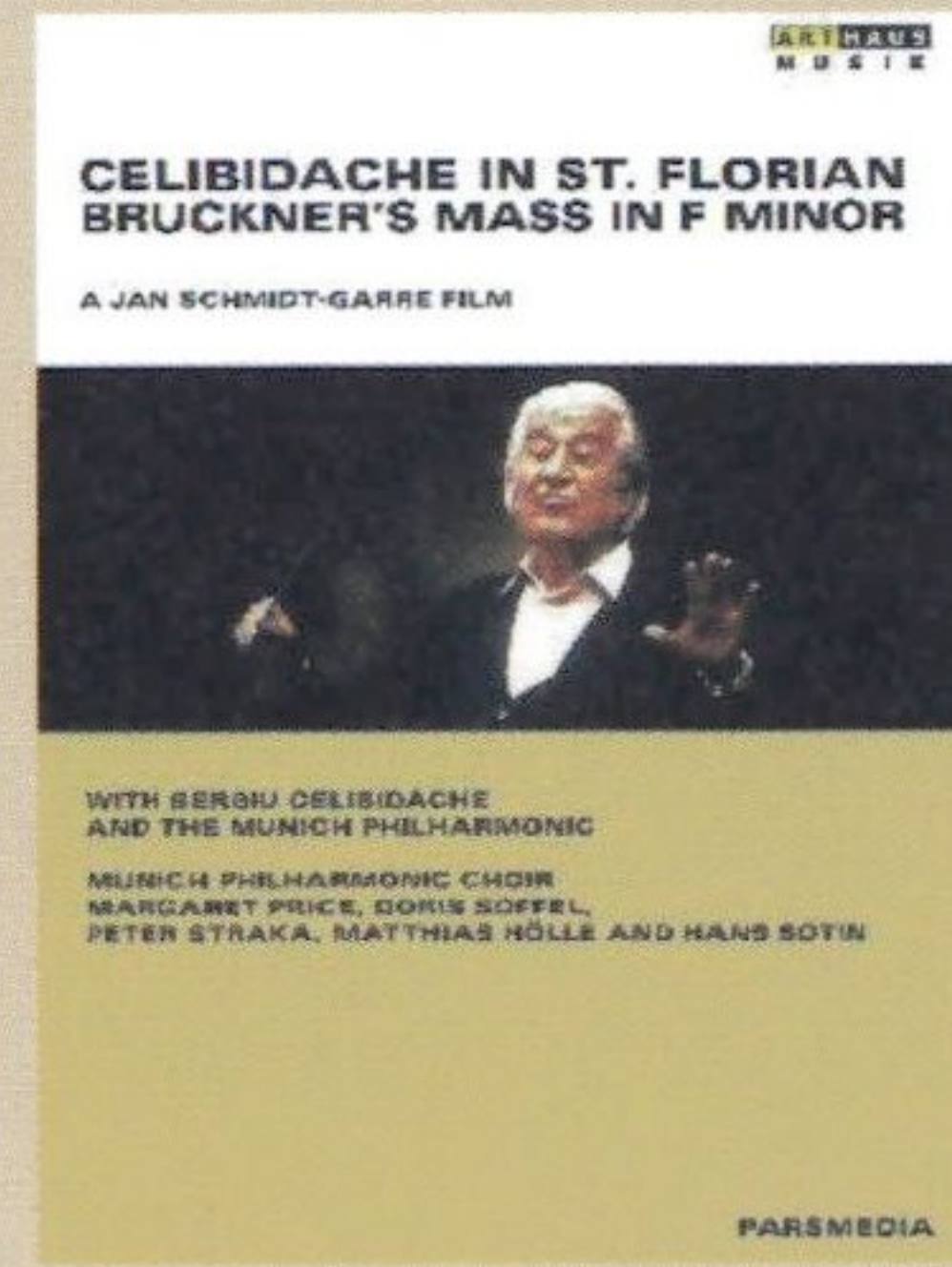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아르헤리치의 최근 모습을 담은 영상물들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한창 시절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미모를 화면으로 만나볼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1982년 뮌헨 클라비어 좀머 콘서트 실황을 담은 이 DVD는 이러한 애호가들의 아쉬움을 상당부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41세의 나이였던 아르헤리치는 여전히 매력적인 미모를 자랑하면서, 돈독한 음악동료들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넬슨 프레이레는 드뷔시의 '판화' 전곡과 쇼팽의 스케르초 2번, 에튀드 등을 홀로 연주한 이후, 아르헤리치와 함께 라벨의 '라 발스'와 라흐마니노프의 모음곡 2번을 들려준다. 클래식과 재즈 양면에서 출중한 활약을 펼치다가 1993년 교통사고로 요절했던 피아니스트 니콜라스 에코노모우와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는 각각 모차르트의 피아노 연탄을 위한 소나타 KV.381과 슈만의 환상소품 작품 73을 통해서 아르헤리치와 긴밀한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1982년에 녹화된 영상임에도 화면의 해상도는 기대이상으로 선명하다.



## 성 플로리안 성당의 첼리비다케(브루크너 미사 f단조에 대한 리허설 영상)

### ▶ 첼리비다케의 예술혼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브루크너 미사 f단조의 리허설

첼리비다케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인 1993년에 남겼던 소중한 리허설 영상이 산뜻한 디지털패키지로 재발매되었다. 브루크너리언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성 플로리안 성당에서 있었던 콘서트를 위해서 그가 브루크너의 '미사 f단조'를 리허설하는 모습을 담은 이 DVD는 노거장의 만년의 예술혼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동시에 하나의 음악작품이 실제 공연을 위해서 다듬어져나가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보여준다. 첼리비다케의 웅혼한 해석은 브루크너 교향곡의 중후한 오르간적 울림의 원천이 되는 성 플로리안 성당의 음향을 만나 너무나 인상적인 브루크너를 들려준다. 또한 이 DVD는 첼리비다케의 육성을 통해 그의 브루크너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의 수족과 같은 악단인 뮌헨 필과, 마가렛 프라이스, 도리스 조펠, 한스 조틴 등을 비롯한 정상급 성악가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나가는 거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우리에게 숙연함마저 느끼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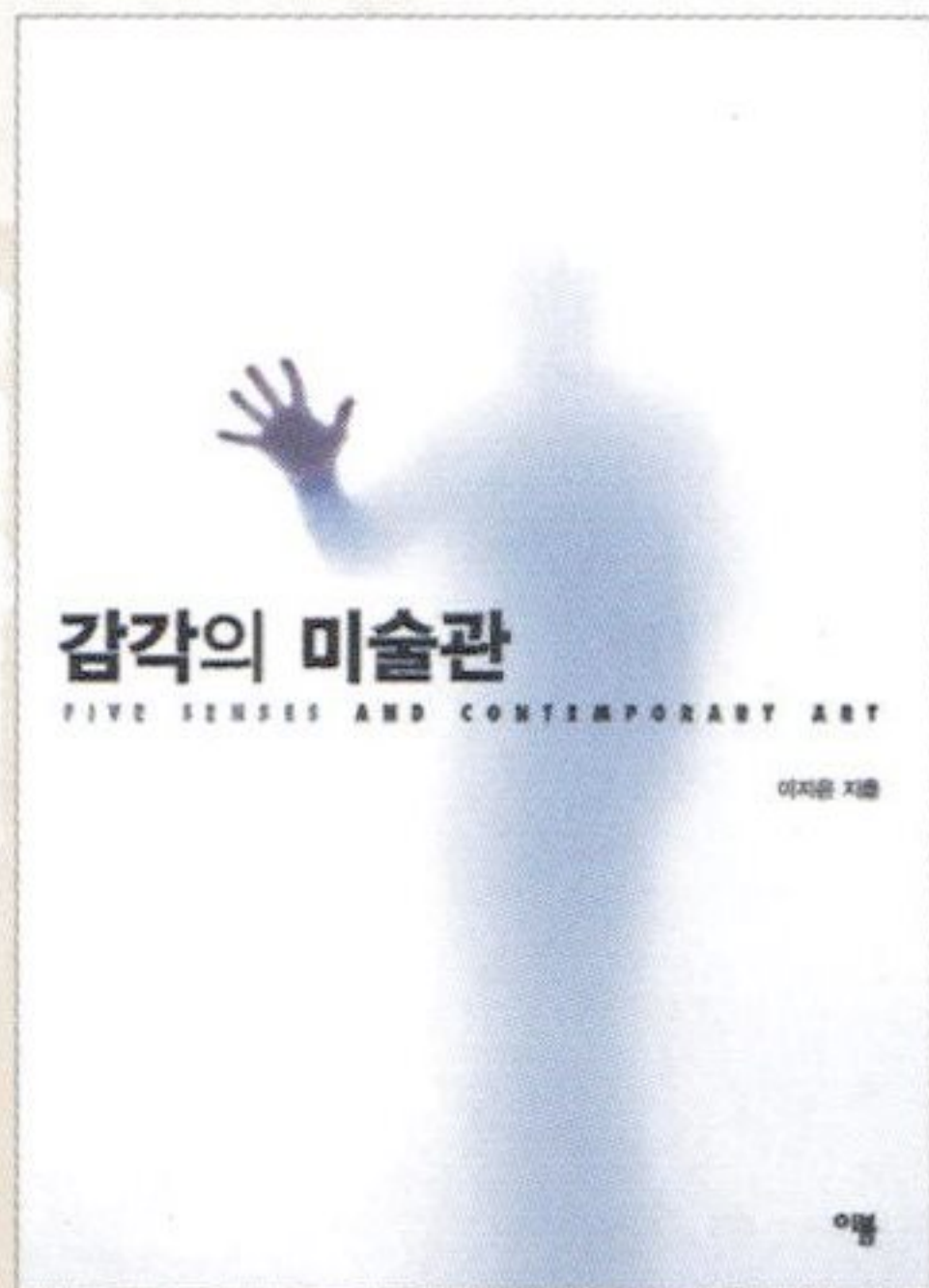


## 아마데우스 퀴르텟의 베토벤 현악사중주 모음곡

### ▶ 20세기 최고의 사중주단으로 손꼽히는 아마데우스 퀴르텟의 베토벤 현악사중주

20세기 최고의 사중주단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마데우스 퀴르텟은 견고한 테크닉, 치밀한 앙상블, 섬세한 해석으로 정평이 높다. 1950년부터 67년에 연주된 베토벤 현악사중주 모음곡(10번 제외 전곡)과 오중주가 담겨 있는 이 음반에는 끊임없는 영감으로 베토벤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아마데우스 사중주단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제1바이올린 노베르트 브라이닌의 음색은 매우 우아하며 앙상블에 화려함을 더하고 있으며 각각의 파트를 부각시켜 마치 관현악과 같은 큰 스케일의 연주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 음반은 모든 악장이 일체의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녹음된 덕분에 스튜디오 녹음이면서도 라이브를 연상시키는 역동감으로 가득차 있다. 그들의 다른 스튜디오 녹음과는 다른 감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RIAS 마스터의 최초 발매반이다.(7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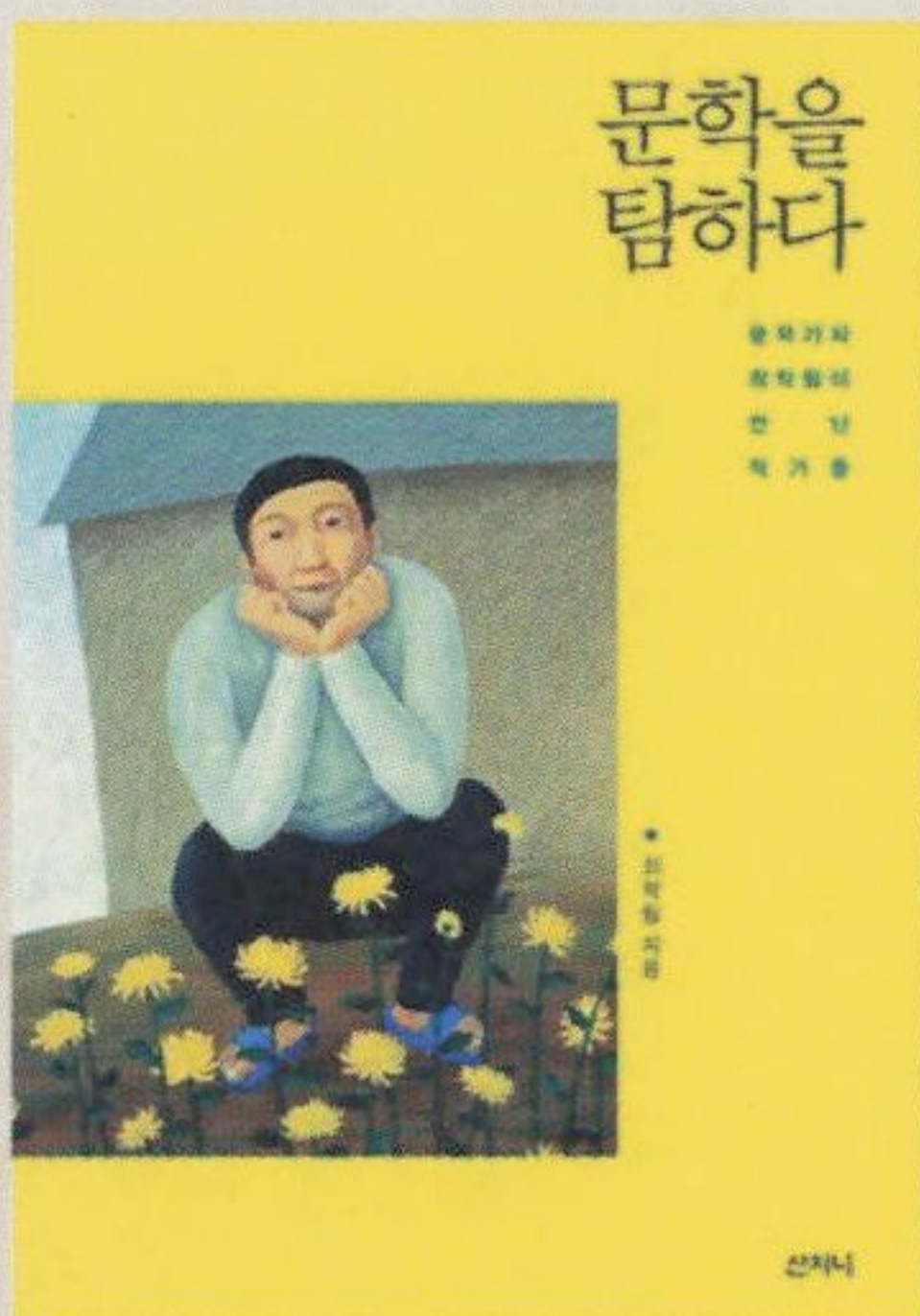




## 감각의 미술관

이지은 지음 / 이봄 / 312p / 2만 2천원

20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미술작품들, 현대미술 혹은 우리가 동시대 미술이라 부르는 작품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관객들과 멀리 있다. 시기적으로 먼 르네상스나 19세기 미술을 더 가깝게 느낀다. 이런 모습에 이 책의 저자 이지은은 '우리 시대 미술은 외롭다'고 말한다. 같은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미술이 무슨 이유로 동시대인들의 외면을 받는가. 이에 저자는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을 예로 들며, 그들 역시 당대에는 관객들의 조롱과 야유를 받았음을 상기시킨다. 마네와 모네의 그림을 사랑하게 된 데에는 당시 평론가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풀어놓는다. 현대미술이 시각중심주의를 넘어 다른 감각들로 확장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자 이지은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감각사'라는 방법론을 통해 아직도 미술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맞는 방법론으로 현대미술을 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1세기를 맞이한 우리는, 20세기 현대미술에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그 한 방법론으로 저자는 '감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 문학을 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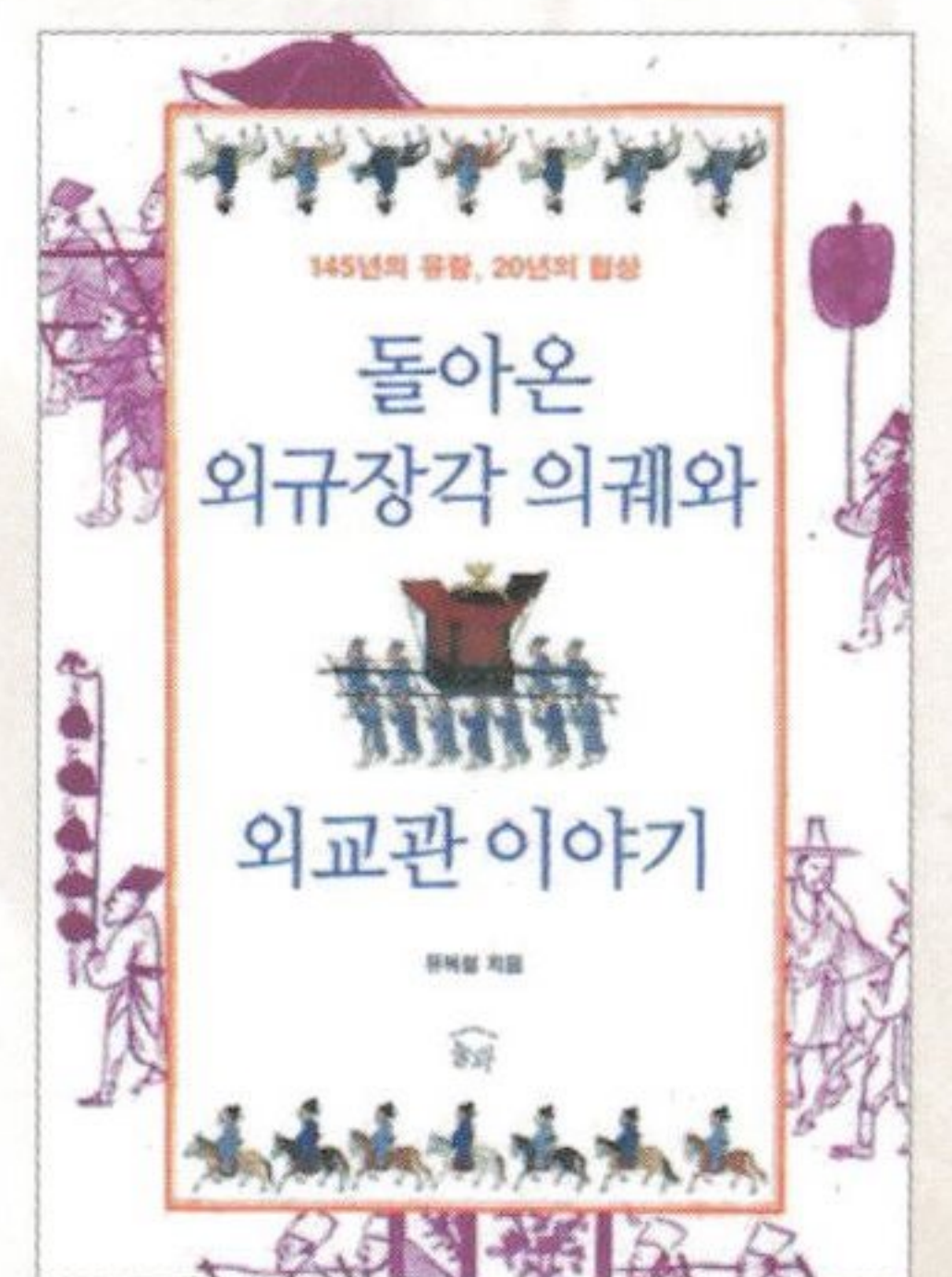
최학림 지음 / 산지니 / 304p / 1만 6천원

'언젠가는 그가 이런 책을 펴낼 줄 알았다', 혹은 '그가 아니면 누가 이런 책을 쓴단 말인가'. 최근 부산·경남의 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여기서 '그'란 부산일보의 최학림 논설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산일보의 영원한 문학담당 최학림 기자'를 말한다. 최학림 기자가 취재 중에 만난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현재 그는 부산일보 논설위원이지만, 부산·경남의 문인들은 여전히 그를 '최학림 기자'라고 부른다. '타협 없는 무서운 엽기, 시의 끝까지 내달다-시인 김언희', '도요의 자연에 이른 빛나는 야성-시인 최영철', '진중한 정신의 만형, 부산을 살다-소설가 조갑상', '꽃꽂한 사대부 자손, 모란에 이르다-시인 성선경', '합천 황강이 유장하게 흐르는 저 노래들-시인 박태일', '제국익문사로 80년대 뛰어넘는 손도장 찍다-소설가 강동수' 등 책 속의 소재목을 읽으면 해당 문인들의 평소 모습과 작품세계마저 떠오르는 듯 하다. 문인들의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문인들의 술자리도 꼬박꼬박 함께 하며 말없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비우던 최학림 기자의 모습도 함께 떠오른다. 부산·경남의 문인들은 이 책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학림거사, 일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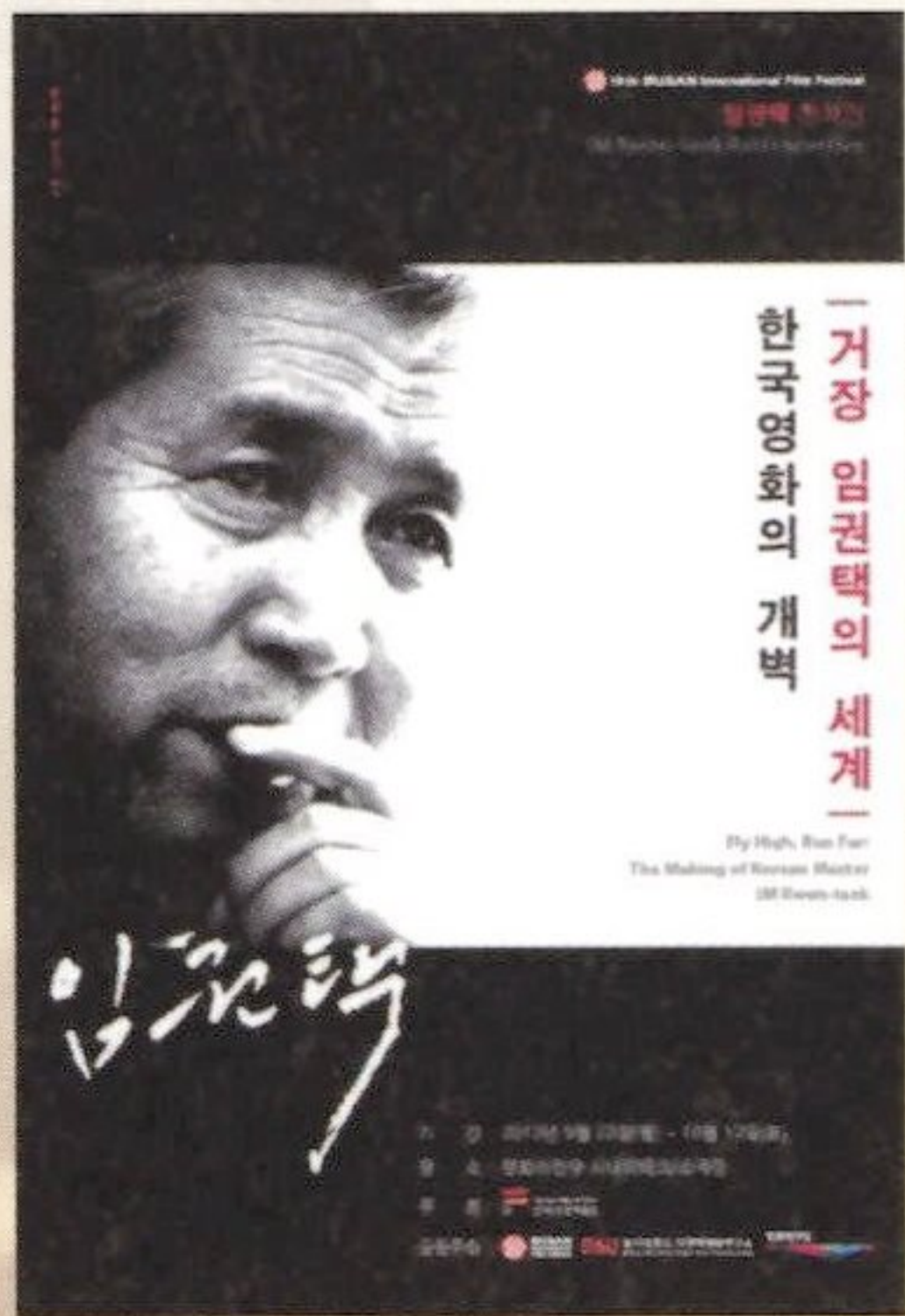
##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

유복렬 지음 / 놀와 / 232p / 1만 3천원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에 빼앗겼던 외규장각 의궤를 되찾아오는 외교 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외교관이, 그간의 협상 과정을 책으로 엮어냈다. 규장각은 조선왕조의 왕실 도서관 겸 학술연구기관, 출판과 정책 연구의 기능을 맡은 기구였다. 이후 1782년에 강화도 행궁에 또 하나의 도서관을 지었는데, 이것이 외규장각이다. 조선왕실의 중요한 자료들을 외규장각으로 옮겨서 보다 체계적이며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했다. 의궤란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다. 왕실과 국가에서 의식과 행사를 개최한 후 준비, 실행 및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그림이 실리기도 하였다. 의식이나 행사의 모범적인 전례를 만들어 후대 사람들이 예법에 맞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한편, 사업의 전말을 자세히 기록하여 이후에 참고하여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출간한 책이다. 이처럼 의궤는 철저한 기록정신의 산물로서, 예를 숭상하는 조선시대 국가의 통치 철학 및 운영체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저자 유복렬은 의궤 반환협상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으로 2011년 9월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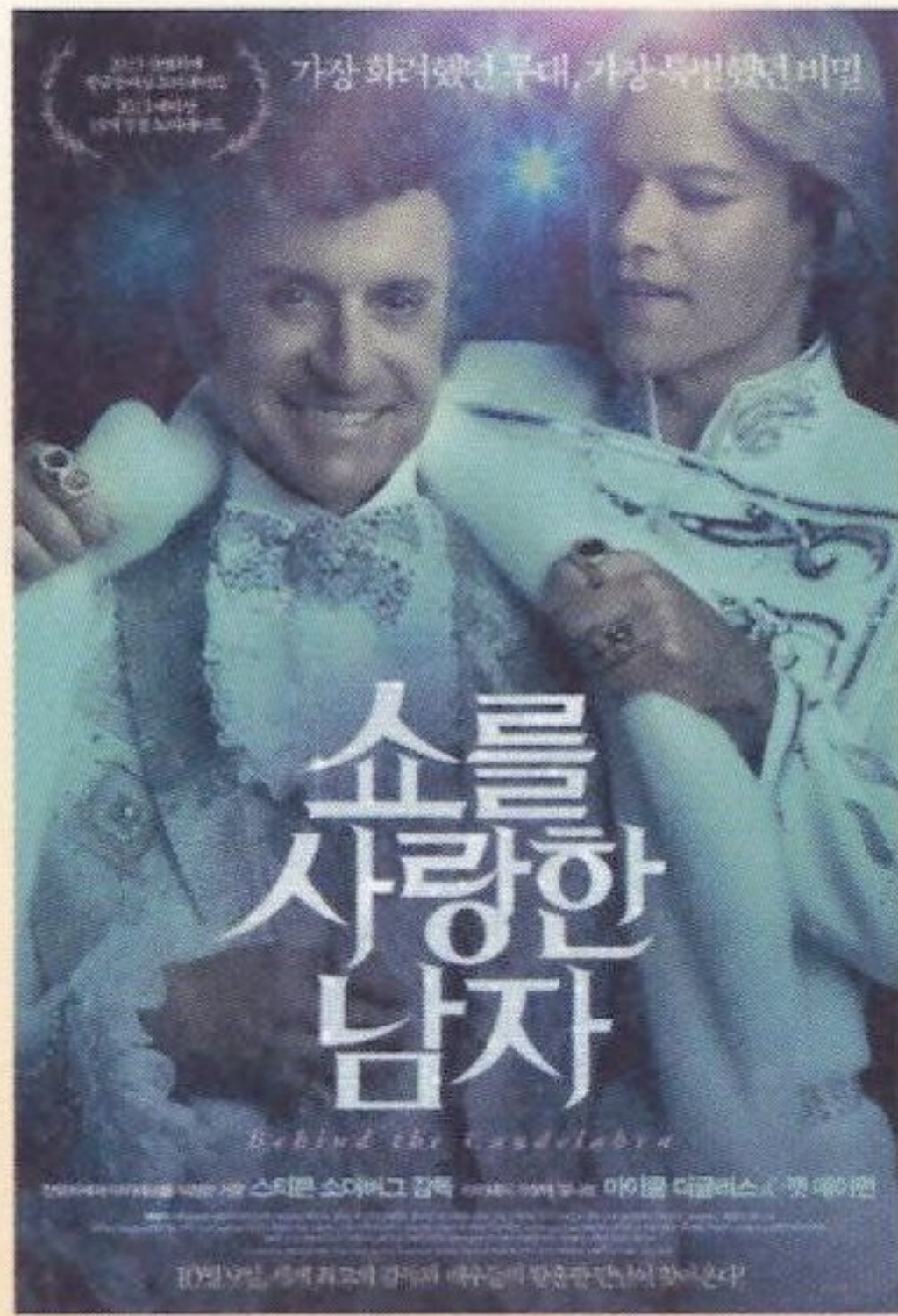


### 한국영화의 개벽 '거장 임권택의 세계'

9월 23일(월)-10월 12일(토)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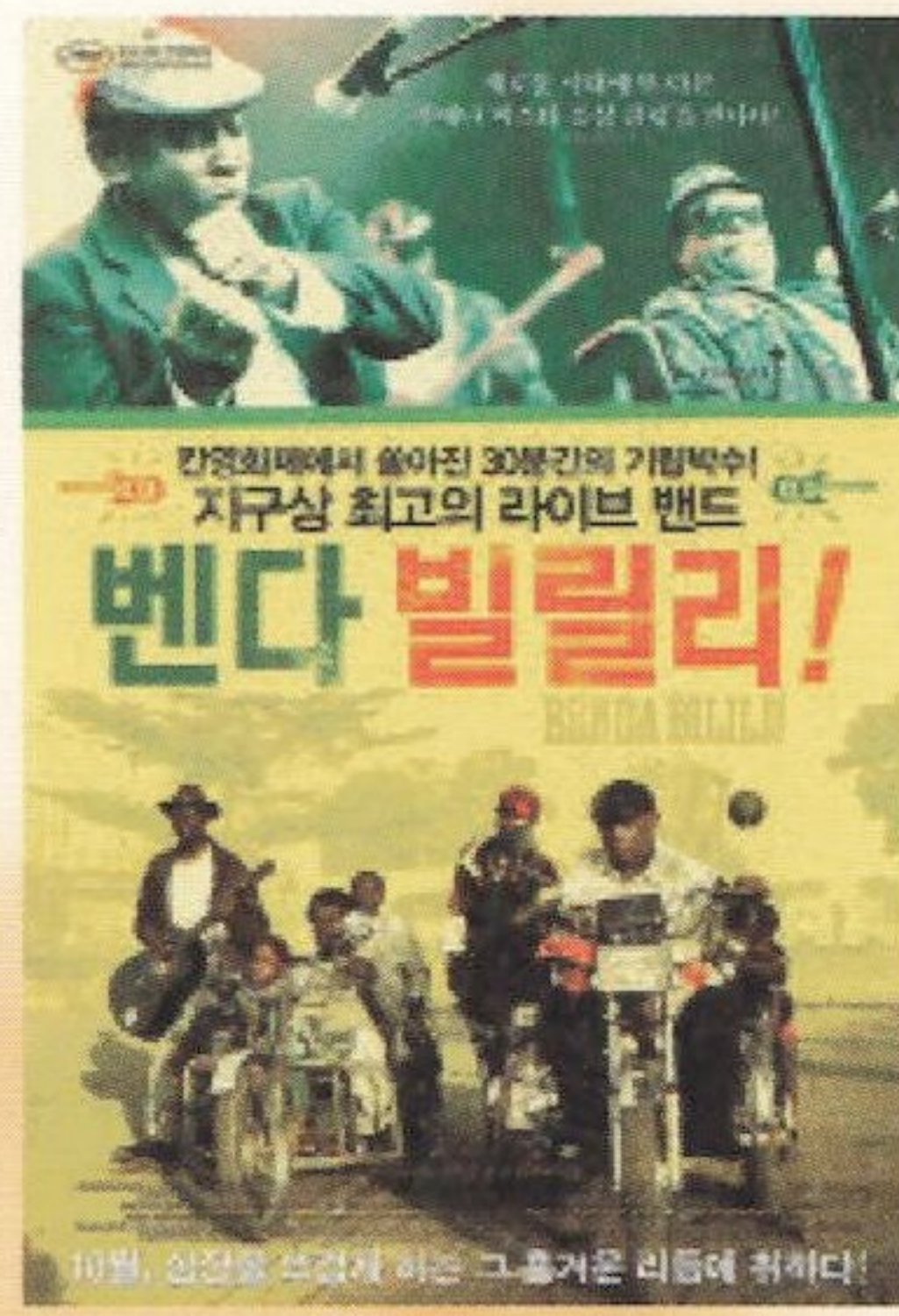
끝없는 열정과 놀라운 실험정신으로 한국영화의 미학적 고유성을 치열하게 탐색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감독 임권택 감독의 회고전이 9월 23일부터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 2013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회고전'으로 열리는 이번 임권택 감독의 회고전은 영화제 개막일인 10월 3일보다 열흘 앞선 9월 23일부터 시작해 영화제 기간동안 계속된다. 1962년 '두만강아 잘있거라'로 데뷔한 이래 지난 2011년 '달빛 길어올리기'까지 총 101편의 영화를 연출한 임권택 감독은 특히 2002년 칸영화제에서 영화 '취화선'으로 감독상을, 2005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명예황금곰상을 받으며 세계영화사에 그 이름을 새겼다. 이번 회고전에서는 현재 보존되어 있으면서 상영 가능한 기편이 모두 상영되는, 부산국제영화제 사상 최대 규모의 전작전으로, 디지털로 복원되어 처음 소개되는 '삼국대협(1972년)'을 비롯해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임권택 감독의 초기 장르영화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영화들이 대거 공개된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인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상영되는 작품들은 임권택 영화를 사랑하는 후배 영화인인 이창동, 홍상수, 김태용, 정성일, 정지우, 봉준호, 류승완, 이윤기, 지아장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으며, 추천자들은 추천작 상영 후 관객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되며, 자세한 상영일정은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biff.kr)를 참조하면 된다.



### 20세기 최고의 엔터테이너 리버라치의 삶을 그린 '쇼를 사랑한 남자'

10월 9일 개봉예정

칸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한 거장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쇼를 사랑한 남자'는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두 배우 마이클 더글러스, 매트 데이먼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이다. 영화 '쇼를 사랑한 남자'는 마돈나와 레이디 가가의 워너비 스타이자 쇼맨십의 황제로 불린 20세기 최고의 엔터테이너 '리버라치(1919-1987)'의 숨겨진 삶을 그린 영화로, 40여년에 걸쳐 미국 엔터테인먼트의 아이콘으로 군림하며 막대한 부와 명성을 누렸던 리버라치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한 남자로서의 불안과 고독을 세밀하게 담아낸다. 피아니스트이자 엔터테이너였던 리버라치는 1950년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가 미국 전역에 방송되면서 톱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무대 위에서는 가장 화려하게 빛났지만,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도 외롭고 고독했던 한 남자의 숨겨진 삶에 대한 비밀을 그린 이 영화에서 영화배우 매트 데이먼은 '리버라치'의 숨겨진 연인으로 한 시대를 살아간 '스콧 토슨' 역을 맡아 기존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쇼를 사랑한 남자'는 올해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후 해외 언론과 평단으로부터 '최고의 감독과 최고의 배우들, 그리고 최고의 제작진의 조합이 이루어낸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감독인 스티븐 소더버그가 스스로 '나의 마지막 장편영화'라고 밝히면서 개봉 전부터 전 세계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 새로운 시대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벤다 빌릴리'

10월 17일 개봉예정

지난 2010년 칸영화제 감독주간 오프닝 작품으로 초청된 리노드 바렛, 플로렌 드 라 툴라에 감독의 '벤다 빌릴리'는 콩코 키샤샤 빈민가에서 결성된 장애인 음악밴드의 이야기를 장장 5년에 걸쳐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이다. 프랑스의 음악 취재기자였던 리노드 바렛과 플로렌 드 라 툴라에가 우연히 콩고의 거리 악사인 '벤다 빌릴리'의 자신들의 삶을 녹여낸 가사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운 리듬에 매료되면서 이 두사람은 당장 이들을 후원하여 음반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스튜디오 녹음 날, 숙소에 불이 나고 '벤다 빌릴리'는 거리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음반 발매는 불가능해진다. 그로부터 1년 후, 세상의 편견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벤다 빌릴리'를 다시 찾은 기자들은 멤버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고 마침내 기적과도 같은 첫 번째 앨범 'Tres Tres Fort(강인한 사람들)'을 발매한다. '벨포트유라켄 페스티벌'에서 첫 선을 보인 이들의 공연은 순식간에 전세계 음악팬들을 매료시키고, 이후 '벤다 빌릴리'는 유럽, 일본, 미국 등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공연을 하며 월드뮤직의 슈퍼스타로 떠오른다. 새로운 시대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으로 화제를 모은 '벤다 빌릴리'. 레게, 소울, 록, R&B, 그리고 지구상 단 하나뿐인 악기 '사통계' 연주로 전세계 음악팬들을 감동시킨 '벤다 빌릴리'의 감동 실화를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다.



## 씨네해운대 프로젝트

해운대구에서는 영화도시 해운대를 알리기 위한 '씨네해운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 첫 번째로 '스토리 인 해운대'에서는 해운대를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한 장편영화 시나리오를 전국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대상 1편에 상금 5백만원 등 총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슈팅 인 해운대'는 실질적인 영화제작 프로젝트인 '단편영화 제작지원 공모전'으로, 해운대를 소재로 한 단편영화 제작기획안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9월말까지이며, 공모전에서 뽑힌 3팀에게는 6백만원의 제작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수상팀은 영화 '이웃사람'을 감독한 김휘 감독의 멘토링을 통해 영화제작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완성된 작품은 12월 31일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2013 해운대구 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된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영화학교 '이지 원 클릭 편'에서는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대학생 포함)로 나뉘어 영화 이론에서부터 자신의 영화를 실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기간은 10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영화의전당 강의실과 편집 교육실, 녹음실 등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홈페이지(blog.naver.com/haeundaefilm)를 참고.

## 시민아카데미 '변두리 인문학'

일상 속 인문학적 가치의 확대를 위해 올해 3년째 개최되고 있는 시민아카데미가 10월 한달간 우리 삶의 '변두리'를 주제로 한 인문학강의 '변두리 인문학'을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점필재연구소와 함께 마련하는 강좌로 문학, 언어, 역사 분야 등 총 8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10월 8일 1강 '한국 문학의 중심과 변두리, 그 경계를 넘다(김성환 교수)'를 시작으로 10일 2강 '변방의 문학사, 지역문학과 산동네 문학관(문재원 교수)', 15일 3강 '기호의 변두리들, 언어의 변두리성(서민정 교수)', 17일 4강 '언어의 자투리인가. 은유, 인간을 말하다: 인간=식물·새·기계(박수경 교수)', 22일 5강 '변두리 텍스트, 광고로 읽는 프랑스(이은령 교수)', 24일 6강 '한국사 속의 주변, 부산, 왜관 그리고 일탈(양홍숙 교수)', 29일 7강 '만세전, 관부연락선 타고 온 부산(김용철 교수)', 그리고 31일 마지막 8강 '변두리 사람들과 버려진 기억: 국제시장과 밀수(차철욱 교수)' 순서로 진행된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방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인문학적 관점으로 풀어 나갈 '변두리 인문학'은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금정구 예술공연지원센터와 중앙동 모퉁이극장에서 개최된다. 시민아카데미는 부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1일까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bsarte.or.kr) 참여마당에 있는 신청접수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부산시립미술관 2013 하반기 시민강좌

깊이 있는 내용으로 유명한 부산시립미술관 2013 하반기 시민강좌가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시립미술관 강당에서 펼쳐진다. '예술에서 찾아낸 한국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9월 26일 이영혜(주) 디자인하우스 대표의 '디자인, 거시기 머시기'를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강의에서 이영혜 씨는 디자인의 역할과 디자인 분야에서의 경영인, 발행인, 전시기획자로서의 성공담을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준다. 이어서 10월 10일과 17일에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초대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홍익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신상호 작가와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배병우 작가를 초빙, 현대도자와 사진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작품제작과정을 이야기한다. 10월 24일에는 도서출판 열화당 이기웅 대표의 '나의 미술이야기', 한양대학교 교수이자 금속공예작가인 추원교의 '옛 금속공예와 여성 장신구(10월 3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채화 기능보유자인 황수로의 '아름다운 한국채화(11월 7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섬유미술가인 박수철의 '실 그리고 천의 아름다운 세상(11월 14일)', 홍익대학교 교수이자 아트퍼니처 작가인 최병훈의 '아트 퍼니처-미술과 디자인의 새로운 조형(11월 21일)', 건축가이자 이로재 대표이사인 승효상의 '오래된 것들을 다 아름답다(11월 28일)' 순서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든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은 부산시립미술관 홈페이지(art.busan.go.kr)에서 가능하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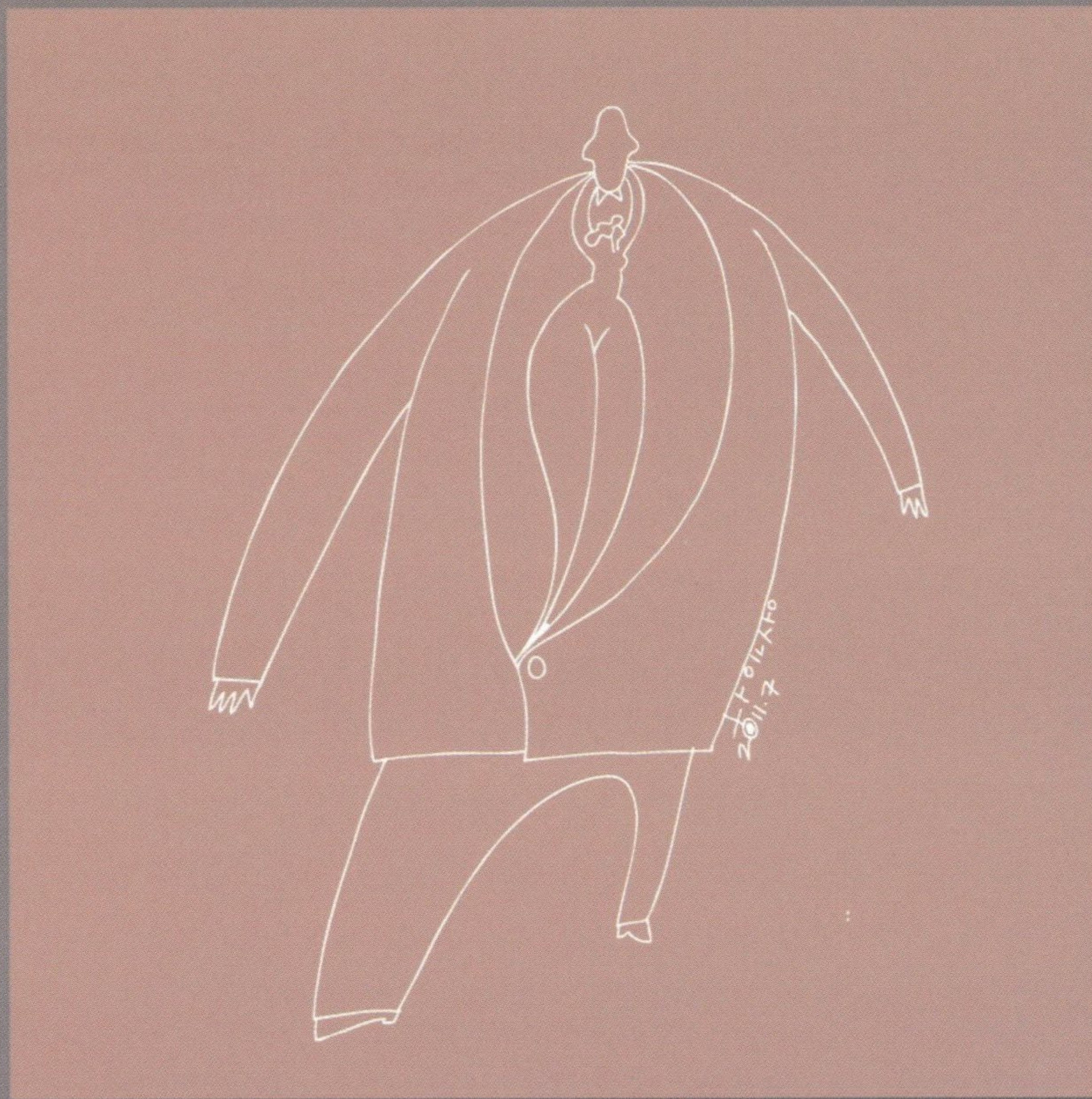
유인상의  
생각그림

# Metaphortoon

## 목메달

누구에게 짐착할 수 있다는 건 불행보다는 행복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자신을 낮춰 상대를 돋보이게 하는 마법을 연출하는 그들이 부럽기만 하다.

메타포투니스트 · 시인





## 지난호정답

엘	리	자	벳			체	게	바	라
가		화		야	누	스		이	
	공	자		수			비	올	라
이		찬	기	파	랑	가		린	
수			타			면			이
현	총	일		부		무	랑	수	전
		대	동	여	지	도			투
국		종				회			배
자		사	물	놀	이				수
감	기			부			황	진	이

### 9월 퍼즐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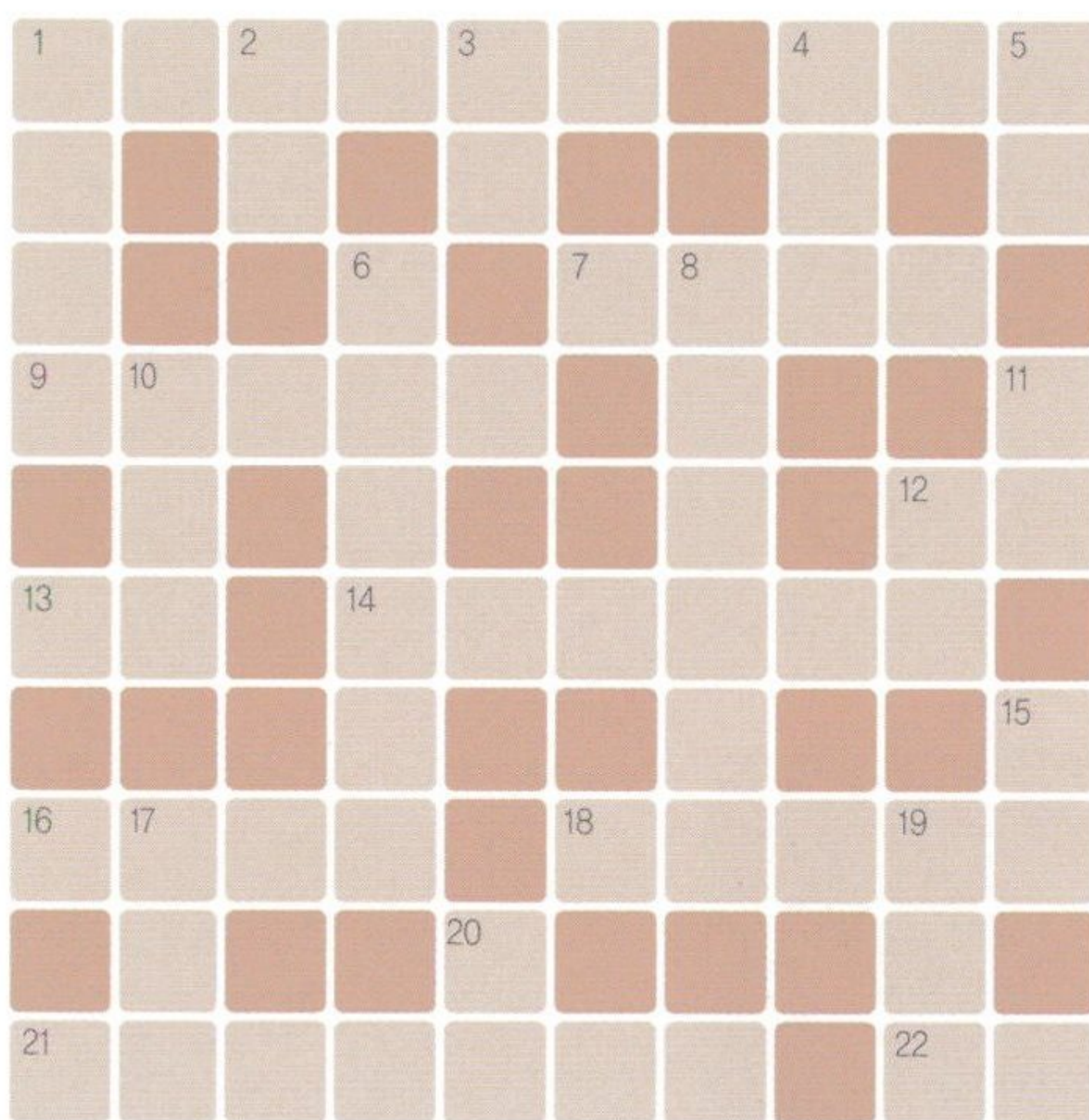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초대권** 강연숙(연제구 거제2동)  
이인재(부산진구 부전동)  
양치홍(연제구 연산5동)  
장미정(남구 대연동)  
최진화(연제구 거제1동)

**조은극장 초대권** 박은정(금정구 장전동)  
백지민(사하구 하단동)  
장은주(사하구 당리동)  
전미숙(연제구 연산8동)  
최지은(양산시 북부동)

**큰집 식사권** 김양섭(사하구 당리동)  
김연주(사하구 괴정동)  
이해경(사하구 하단2동)  
최영신(서구 동대신동)  
하옥근(서구 토성동)

**도서 감각의 미술관** 김은주(연제구 거제3동)  
우정화(동래구 명륜2동)  
윤신주(영도구 대교동)  
이종순(연제구 망미동)  
정화애(연제구 거제1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3년 10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가로열쇠]

- 1 국내 뉴에이지 음반 최초 200만장 판매기록을 세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의 거장.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10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내한공연을 갖는다.
- 4 부산의 가장 큰 섬으로, 최고봉은 459m의 연대봉. 현재 부산 제2의 신항만 건설이 진행중이다.
- 7 폴리네시아계의 해양종족으로 뉴질랜드의 원주민. 조각, 직물, 음악, 무용 등에서 독특한 문화를 창조했는데, 특히 목공예는 다른 폴리네시아인들보다 뛰어나다.
- 9 제미니 8호의 선장으로 아제나 위성과 최초의 도킹에 성공하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로 인류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미국의 우주비행사.
- 12 처마 끝에 달기 위해 문양을 새겨 장식한 기와.
- 13 동심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해 쓴 산문 문학의 한 갈래.
- 14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5막 희극.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 [세로열쇠]

- 1 미국의 극작가. 그의 저서 가운데 처음으로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된 '지평선 너머'로 풀리처상을 받았으며 1936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해 미국 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
- 2 인터넷 검색엔진 분야의 최고로 평가받는 인터넷 검색업체로, 1998년 스탠퍼드 대학원생이었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 의해 설립됐다.
- 3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인상파 양식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 '인상, 일출'에서 '인상주의'라는 말이 생겨났다.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으며, 연작을 통해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했다.
- 4 이별의 정한(情恨)을 노래한 서정시로, 가사가 애절하고 간결하여 서 순박한 맛이 역대 이별가 중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작가, 연대 미상의 고려가요.
- 5 일본의 수도.
- 6 바이올린족 뿐 아니라 모든 악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음역을 지닌 악기로, 경음악이나 재즈에서도 흔히 애용된다.
- 8 프랑스의 추리작가 가스통 르루의 소설을 영국의 작곡가 앤드루 L 웨버가 뮤지컬로 만든 작품. 파리 오페라극장을 무대로, 천사의 목소리를 타고 났지만 사고로 흉측하게 변한 기형적인

- 16 사일룩에 맞서 지혜를 발휘하는 현명한 여인 포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16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이어 제38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초청받는 등 세계 영화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두 차례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뒤 3분 가량을 덜어내고서야 겨우 상영이 가능하게 된 김기덕 감독의 신작.
- 18 작가 천명관의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송해성 감독, 박해일, 윤제문, 윤여정, 공효진 주연의 영화.
- 21 르네상스기(期) 프랑스의 의사, 철학자, 점성가. 그의 4행시의 예언서 '제세기(諸世紀)'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후원자인 앙리 2세의 죽음, 생바르텔미의 학살, 프랑스혁명, 나폴레옹의 등장까지 예언하면서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 22 disrespect의 줄임말로, 주로 다른 그룹이나 사람을 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행동 혹은 노래를 일컫는 힙합 용어.

-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괴신사가 아름답고 젊은 프리마돈나를 짝사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 10 바위의 면을 칠하거나 쪼아서 새긴 그림.
- 11 가톨릭의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곳.
- 12 잘 익은 포도의 당분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로 프랑스어로는 Vin(뱅), 이탈리아어로는 Vино(비노), 독일어로 Wein(바인)이라고 한다.
- 15 산간 계곡의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쫓는 일. 전통적으로 선비들의 피서법이다.
- 17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미(美)와 풍요(豊饒)의 여신. 원래 로마 여신의 이름이었으나 이후 아프로디테와 동일시되면서 모성과 아름다운 여성성을 상징하는 말로 폭넓게 사용되었다.
- 19 스페인의 천재적인 건축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 즉 성가족교회는 그가 죽을 때까지 미완으로 남아 더욱 유명해진 건축물로 그의 천재성이 응축된 OOO 건축의 백미(白眉)로 꼽힌다.
- 20 1977년 조지 루카스 감독이 만든 공상과학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제다이의 정신적 스승.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강한 존재에 의존하는 현상을 'OO이즘'이라고도 한다.



##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재단 업무 협약 및 공연장 신사숙녀 어린이 아카데미 실시



부산문화회관과 부산문화재단이 지난 8월 26일 부산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동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그 첫 행사로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연장 신사숙녀' 어린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공연장 신사숙녀'는 부산문화회관과 부산문화재단이 미취학 어린이들의 공연에

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미취학 어린이의 공연 예절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취학 어린이(만 5세~6세)들에게 공연 예절에 대한 기초 교육과 현장 견학을 통해 공연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어린이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공연 기본예절을 동화구연, 음악공연, 연극 등으로 교육하고 공연장 백스테이지 투어를 함께 진행해 공연장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 어린이는 물론 함께 한 보호자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았다.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이번 첫 아카데미에서는 28명(7세 13명, 6세 11명, 5세 4명)의 어린이가 5일간 10시간의 교육을 수료, 부산문화회관 공연 관람이 가능한 '공연장 신사숙녀 카드'를 발급받았다.



어떤 지식보다는 기본 예절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어 '공연장 신사숙녀'를 신청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가 될 일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쉽게 설명해주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갈까? 제 걱정은 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생겼습니다.

첫째 공연을 보는 이유는 재미있는 동화로 설명해 주기. 정말 공연을 보는 이유가 '감동'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가슴으로 알았을 것 같습니다.

둘째, 공연 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배우분이 나와서 연기하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연기자분의 연기에 의아해하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이들도 정말 몸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셋째, 공연장을 둘러보고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난 것. 사실 저도 처음으로 무대 뒤도 가보고 분장실도 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다음에 공연을 볼때는 다른 시선으로 보겠지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조명, 음향, 무대 감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 지, 공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 박준이 보호자 하영분

5학년 첫째는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성인으로 키우리라 다짐하고 7세이전부터 토요일마다 나 연극, 클래식, 뮤지컬 등 수업 중 언급하셨던 좀 극성스런 교육방식으로 아이를 이끌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스마트폰으로 클래식을 듣고 시험 끝나면 공연선물을 해달라는 이쁜 딸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악기연주도 즐기고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아들, 공연장에서 엄마가 앵콜을 외치면 경기를 하고, 놀이터가 더 좋다더군요. 저도 어떻게 하면 아들이 공연을 좋아할까 고민 중에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일등으로 신청을 했어요.

놀랍게도 하루가 다르게 악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에서는 누나 플루트도 불러보고 바이올린도 꺼내어 폼 잡는 등 달라짐을 느꼈어요. 입장할 때 마다 환영받지 못하는 관객, 공연 중 불쑥 내뱉는 말들로 엄마를 조마조마하게 했던 아들 준영이가 이제는 공연을 반짝이는 눈으로 감상하는 신사로 변신했습니다.

- 박준영 보호자 곽순애



## 부산시립무용단 사할린 한국주간 행사 참가



■ 부산시립무용단 '천고'

부산시립무용단이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부산시, 주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 한인회가 주최하는 제2회 K-TRADITIONAL MUSIC FESTIVAL 사할린 한국주간에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참가한다.

K-TRADITIONAL MUSIC FESTIVAL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

는 K-POP의 인기와 함께 한국문화에 관심이 높은 만큼 우수한 우리 전통을 사할린지역에 소개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기획된 행사이다.

홍경희(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를 비롯해 20명의 공연단을 구성, 사할린 공연길에 오르는 부산시립무용단은 10월 11(금)~13(일)까지 열리는 K-TRADITIONAL MUSIC FESTIVAL 마지막날인 13일 사할린국립대 대강당에서 정가악회와 함께 한국의 전통춤과 음악을 선사한다.

1부 무대를 장식할 부산시립무용단은 부채를 이용해 원과 선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며 추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춤 '부채춤'과 고고하고 우아한 학의 자태를 담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신명나는 장고 가락의 음악에 손에는 경고를 들고 다양한

춤사위를 구사한 흥겨운 '경고춤', 북춤과 소고춤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장단과 생동감이 넘치는 '천고'로 사할린에 우리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 10월 찾아가는 예술단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문화회관의 찾아가는 예술단 10월 일정이 확정되었다. 노인의 날, 부산시민의 날, 한글날, UN의 날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10월은 행사의 깊은 뜻을 새기며 자긍심을 심어주는 내사랑 부산공연 4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2회가 펼쳐진다.

10월 2일(수)	11:00	시민회관 대극장	무용단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노인의 날 기념공연'
10월 2일(수)	15:00	시민회관 소극장	합창단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인권위원회 이주민 초청 공연'
10월 4일(금)	17:00	시민회관 대극장	합창단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의날 기념행사'
10월 9일(수)	10:30	시청 1층 대강당	무용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내사랑 부산공연 '한글날 기념행사'
10월 23일(수)	12:30	시청 1층 로비	교향악단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10월 24일(목)	11:30	UN기념공연	소년소녀합창단	내사랑 부산공연 'UN의 날 기념식'



UNIVERSAL BALLET The Nutcracker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2013. 11. 29(금) ~ 30(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주최 부산광역시 K 국제신문

주관 부산문화회관

세상을 감동시킨 13년의 올림  
그 행복한 두드림으로의 초대

MANIA

SINCE 1997



2013. 12. 7 SAT ~ 8 SUN

토요일 3시, 7시 / 일요일 2시, 6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 5천원 · S석 4만 4천원  
A석 3만 3천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주)KnP엔터테인먼트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b>전시실</b></p> <p>한국해양대학교 해양건축공학과 제17회 졸업작품 전시회-대전시실 10월 1일(화)-10월 2일(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건축공학과(410-4580), 정용진(010-2999-7177)</p> <p>한국미술교육연구회전 및 부산중등미술교육연구회전-중전시실 10월 2일(수)-10월 7일(일) 개막식 2일 오후 5:30 부산중등미술교육연구회(526-3451, 010-7504-4565)</p>		<p><b>1</b></p> <p>제6회 피아노그랜드피스티벌 협주곡의 밤 19:30 균일 1만원/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p> <p>제17회 한국가곡연구회 정기공연 19:30 균일 1만원/우리아트(010-5555-3825)</p>	<p><b>2</b></p> <p>에르노 페허 피아노 리사이틀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제7기 문화대학 '오페라의 역사' 14:00 부산문화회관(607-6057)</p>	<p><b>3</b></p> <p>제8회 나사함 한마음 뮤지컬페스티벌 19:30 무료/나사함(627-8521)</p> <p>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 발표회 18:30 신라대학교 무용학과(969-5301, 010-2674-3471)</p>	<p><b>4</b></p> <p>제12회 한미음경로대전처 10:00 무료/부산시노인복지협회(502-6663)</p> <p>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9:30 20만원 15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뉴아시아오페라단(624-8399, 1600-6867)</p>	<p><b>5</b></p> <p>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4:00, 19:00 20만원 15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뉴아시아오페라단(624-8399, 1600-6867)</p> <p>제8회 우리 시 우리 노래-이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19:00 초대/한국창작가협회(010-4541-8576)</p> <p>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16:00 무료(8세 이상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p><b>6</b></p> <p>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9:00 20만원 15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뉴아시아오페라단(624-8399, 1600-6867)</p> <p>제17회 부산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14:30 초대/원음합창단(245-0717)</p>	<p><b>7</b></p>	<p><b>8</b></p> <p>아이미티에 성악연주회 제22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아이미티에 성악연주회(010-7503-6564)</p>	<p><b>9</b></p> <p>부산색소폰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색소폰오케스트라(900-9429)</p> <p>제7기 문화대학 '국립오페라단 운영을 중심으로 한 오페라 이야기' 14:00 부산문화회관(607-6057)</p>	<p><b>10</b></p> <p>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오페라 인 콘서트-리콜레토' 19:30 3만원 2만원 1만원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p> <p>제36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한국 작곡가의 밤' 19:30 균일 1만원/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010-2009-1090)</p>	<p><b>11</b></p> <p>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오페라 인 콘서트-리콜레토' 19:30 3만원 2만원 1만원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p> <p>제36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솔로와 듀오의 밤' 19:30 균일 1만원/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010-2009-1090)</p> <p>2013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페스티벌 '강' 19:3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b>12</b></p> <p>제6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14:00 무료/(사)부산피리티청소년합창회(513-4306)</p> <p>제14회 부일성악콩쿠르 예선 13:00 부산일보사 문화사업부(461-4436)</p> <p>2013 부산예술제 부산연극페스티벌 '강' 16:00 균일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b>13</b></p>	<p><b>14</b></p> <p>2013 부산무용예술제 19:30 부산무용협회(632-5116)</p> <p>제14회 부일성악콩쿠르 예선 13:00 부산일보사 문화사업부(461-4436)</p> <p>4인 음악회 19:30 초대/김경미(010-2395-9876)</p>	<p><b>15</b></p> <p>제30회 KBS부산무용콩쿠르 본선 13:00 초청공연 18:00 KBS(620-7327)</p> <p>제14회 부일성악콩쿠르 예선 13:00 부산일보사 문화사업부(461-4436)</p> <p>아동학대 및 폭력예방을 위한 인형극 '난 알아요' 10:30, 11:30 (사)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851-1854)</p>	<p><b>16</b></p> <p>2013 부산국제합창제-개막식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 개막 초청공연' 20:00 5만원 3만원 2만원/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p>	<p><b>17</b></p> <p>2013 부산국제합창제 경연 13:00, 15:30, 19:0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p>	<p><b>18</b></p> <p>2013 부산국제합창제 경연 13:00, 15:00, 19:0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p>	<p><b>19</b></p> <p>2013 부산국제합창제 경연 및 대상결선 09:30, 13:00, 19:00 균일 1만원(폐막), 경연은 무료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콘서트 Vol.38 음악인형극 '해지는 아프리카' 14:00, 19: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b>20</b></p>	<p><b>21</b></p> <p>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46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만원/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6531-0307)</p>	<p><b>22</b></p> <p>부산시립합창단 제147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7천원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p> <p>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46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만원/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6531-0307)</p> <p>제24회 대학무용제 '대학춤, 르네상스를 꿈꾸다' 19:30 균일 1만원/강아름(010-8234-2342)</p>	<p><b>23</b></p> <p>제26회 부산합창제 19:30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41)</p> <p>제14회 부일성악콩쿠르 본선 13:00 부산일보사 문화사업부(461-4436)</p> <p>제7기 문화대학 감성법 14:00 부산문화대학(607-6057)</p>	<p><b>24</b></p> <p>제26회 부산합창제 19:30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41)</p>	<p><b>25</b></p> <p>제26회 부산합창제 19:30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41)</p>	<p><b>26</b></p> <p>제27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7:00 무료/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p>
<p><b>27</b></p> <p>클라리네티스트 줄리안 밀키스 부산연주회 19:00 7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코리아무지카(02-2272-6516)</p>	<p><b>28</b></p>	<p><b>29</b></p> <p>2013 유카구라모토 기틀콘서트 19:30 7만원 5만원 3만원/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b>30</b></p> <p>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제31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510-1739)</p> <p>플루트의 향연 19:30 최낙주(010-4536-2351)</p> <p>제7기 문화대학 한국 오페라의 발전방향 14:00 부산문화대학(607-6057)</p>	<p><b>31</b></p> <p>백해선 피아노 리사이틀 19:30 5만원 4만원 3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p> <p>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3 웰빙콘서트 4 '라보엠'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김정강 Piano Class 연주회 19:30 무료/오은정(010-2833-2660)</p>	<p><b>전시실</b></p> <p>부산시예협회 회원전-대전시실 10월 5일(토)-10월 6일(일) 부산시예협회 윤종철(010-9753-0718)</p> <p>제13회 한국문화대전 입상작 전시회-대, 중전시실 10월 10일(목)-10월 11일(금) (사)대한민국서예인연합회(869-5236, 011-864-3698)</p> <p>GoEun Photo 1826 청림총회전-대전시실 10월 10일(월)-10월 21일(월) 이정규(605-6242, 016-636-0851)</p>	<p>부산예술제 '부산미술의 젊은 시전전'-중전시실 10월 14일(월)-10월 19일(토) 부산미술협회(632-2400)</p> <p>2013 (사)한국서도예술협회 회원전-중전시실 10월 21일(월)-10월 22일(화) (사)한국서도예술협회(010-5160-5291)</p> <p>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작품전시회-대, 중전시실 10월 23일(화)-10월 25일(토) 이준혁(010-4484-3356), 김다예(010-9140-3638)</p>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를 클릭하세요.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 October 2013 Program Guide

# 10

2013  
October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P.Y.O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 B.M.J.C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p>📍 Piano Grand Festival 19:30 10,000/The Music Association of Busan(634-1295)</p> <p>📍 The 17th Regular Concert of Korea Song Study Group 19:30 10,000/Uri Arts(010-5555-3825)</p>	<p>📍 Erno Fehér Piano Recital 19:30 20,000/Busan Arts Management(740-5833)</p>	<p>📍 Unison Concert 19:30 Invitation/Nasaham(627-8521)</p> <p>📍 Graduate Work Of Dance Department College of Arts, Silla University 18:30 Dance Department College of Arts, Silla University(999-5301, 010-2674-3471)</p>	<p>📍 The Festival for Senior 10:00 Free/Busan Association Senior Welfare(502-6663)</p> <p>📍 200th Anniversary of Verdi Opera 'La Traviata' 19:30 200,000/150,000-100,000/80,000/60,000/40,000 New Asia Opera Company(624-8399, 1600-6867)</p>	<p>📍 200th Anniversary of Verdi Opera 'La Traviata' 14:00, 19:00 200,000/150,000-100,000/80,000/60,000/40,000 New Asia Opera Company(624-8399, 1600-6867)</p> <p>📍 Korea Poem, Korea Song 19:00 Invitation Creative songs Association of Korea(010-4541-8576)</p> <p>📍 Saturday Regular Stage-Busan Metropolitan Chorus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6	7	8	9	10	11	12
<p>📍 200th Anniversary of Verdi Opera 'La Traviata' 19:30 200,000/150,000-100,000/80,000/60,000/40,000 New Asia Opera Company(624-8399, 1600-6867)</p> <p>📍 The 17th Regular Concert of Woneum Choir 14:30 Invitation/Woneum Choir(245-0717)</p>		<p>📍 The 22th Regular Concert of Amiteie 19:30 Amiteie Vocal Study Group(010-7503-6564)</p>	<p>📍 The 6th Regular Concert of Busan Saxophone Orchestra 19:30 Free Busan Saxophone Orchestra(900-9429, 010-2568-8193)</p>	<p>📍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Opera in Concert-Regolotto' 19:30 30,000/20,000/15,000/Busan Philharmonic Orchestra(607-3113)</p> <p>📍 The 36th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ist Club 19:30 10,000/Busan Pianist Club(010-2009-1090)</p>	<p>📍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Opera in Concert-Regolotto' 19:30 30,000/20,000/15,000/Busan Philharmonic Orchestra(607-3113)</p> <p>📍 The 36th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ist Club 19:30 10,000/Busan Pianist Club(010-2009-1090)</p> <p>📍 2013 Theater Festival in Busan-The River 19:30 20,000/Busan Theatre Association(645-3759)</p>	<p>📍 The 6th Korea Youth Harmony Festival 14:00 Free/Busan Pramita Youth Association(513-4306)</p> <p>📍 The 14th Busanilbo Voice Competition 13:00 Busanilbo(461-4436)</p> <p>📍 2013 Theater Festival in Busan-The River 16:00 20,000/Busan Theatre Association(645-3759)</p>
13	14	15	16	17	18	19
<p>📍 2013 Theater Festival in Busan-The River 16:00 20,000/Busan Theatre Association(645-3759)</p>	<p>📍 The 14th Busanilbo Voice Competition 13:00 Busanilbo(461-4436)</p> <p>📍 4 Concert 19:30 Invitation/Kim Kyungmi(010-2395-9876)</p>	<p>📍 Busan Dance Concours -Final 13:00 KBS(620-7327)</p> <p>📍 The 14th Busanilbo Voice Competition 13:00 Busanilbo(461-4436)</p> <p>📍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Violence Puppet 'I Know' 10:30, 11:30 Busan Nursery Association(851-1854)</p>	<p>📍 2013 Bus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amp; Competition-Opening Concert 'Philippines Madrigal Singers' 20:00 50,000/30,000/20,000/Korea Choral Institute(622-0534)</p>	<p>📍 2013 Bus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amp; Competition 13:00, 15:30, 19:00 Free/Korea Choral Institute(622-0534)</p>	<p>📍 2013 Bus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amp; Competition 13:00, 15:00, 19:00 Free/Korea Choral Institute(622-0534)</p>	<p>📍 2013 Bus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amp; Competition-Final 09:30, 13:00, 19:00 Free/Competition/Awards Ceremony 10,000/Korea Choral Institute(622-0534)</p> <p>📍 The Concert, Under the Sky Vol.38, 'AFRICA' 14:00, 19:00 30,000/Busan Cultural Cental (607-6057)</p>
20	21	22	23	24	25	26
	<p>📍 The 46th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o Duo Association 19:30 20,000/Busan Piano Duo Association(010-6531-0307)</p>	<p>📍 The 147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19:30 10,000/7,000/5,000/Busan Metropolitan Chorus(607-3141)</p> <p>📍 The 46th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o Duo Association 19:30 20,000/Busan Piano Duo Association(010-6531-0307)</p> <p>📍 The 24th Regular Performance of College Dance Festival 19:30 10,000/College Dance Association(999-6286)</p>	<p>📍 2013 Busan Chorus Festival 19:30 Free/B.M.C(607-3141-2)</p> <p>📍 The 14th Busanilbo Voice Competition 13:00 Busanilbo(461-4436)</p>	<p>📍 2013 Busan Chorus Festival 19:30 Free/B.M.C(607-3141-2)</p>	<p>📍 2013 Busan Chorus Festival 19:30 Free/B.M.C(607-3141-2)</p>	<p>📍 2013 Busan Youth Harmony Festival 17:00 Free/B.M.Y.C(607-3161-2)</p>
27	28	29	30	31	11/1	2
<p>📍 Julian Milks Clarinet Recital 19:00 70,000/50,000/30,000/20,000/Korea Musical(02-2272-6516)</p>		<p>📍 2013 Yuki Kuramoto Piano Recital 19:30 70,000/50,000/30,000/Busan Culture Center(607-6058)</p> <p>📍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19:30 2,000/B.P.Y.O(607-3111-3)</p>	<p>📍 The 31st Regular Concert of Korean Music Department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19:30 Free/Pusan National University(510-1739)</p> <p>📍 Feast of Flute 19:30 Choi Nakju(010-4536-2351)</p>	<p>📍 HaeSun Paik Piano Recital 'Into the Variations' 19:30 50,000/40,000/30,000/Busan Arts Management(740-5833)</p> <p>📍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Well-being Concert' 'La Boheme' 11:00 10,000/B.P.O(607-3111-3)</p> <p>📍 Kim Jeonggang's Piano Class Concert 19:30 Oh Eunjeong(010-2833-2660)</p>	<p>📍 The 10th Regular Concert of Busan Chorus Choir 19:30 Invitation/Busan Chorus Choir(010-2551-7542)</p> <p>📍 Letter Conveying the Earth V 19:00 Ain Ensemble(010-5423-7460)</p>	<p>📍 Simone Dinnerstein Piano Concert 19:30 Invitation/EAGON(02-547-5707)</p> <p>📍 The 10th Regular Concert of Korea Music Association, Haneol 18:00 Invitation/Haneol (635-0176)</p> <p>📍 Saturday Regular Stage-Bus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 2013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L.v.Beethoven  
- Symphony No.9 'Choral'

‘합창’



지휘 리 신차오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하석배  
베이스 함석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2013. 12. 12 목\_ 13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 5천원 ·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MBC

주관 부산문화회관

# 2013

## 제야음악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3. 12. 31 화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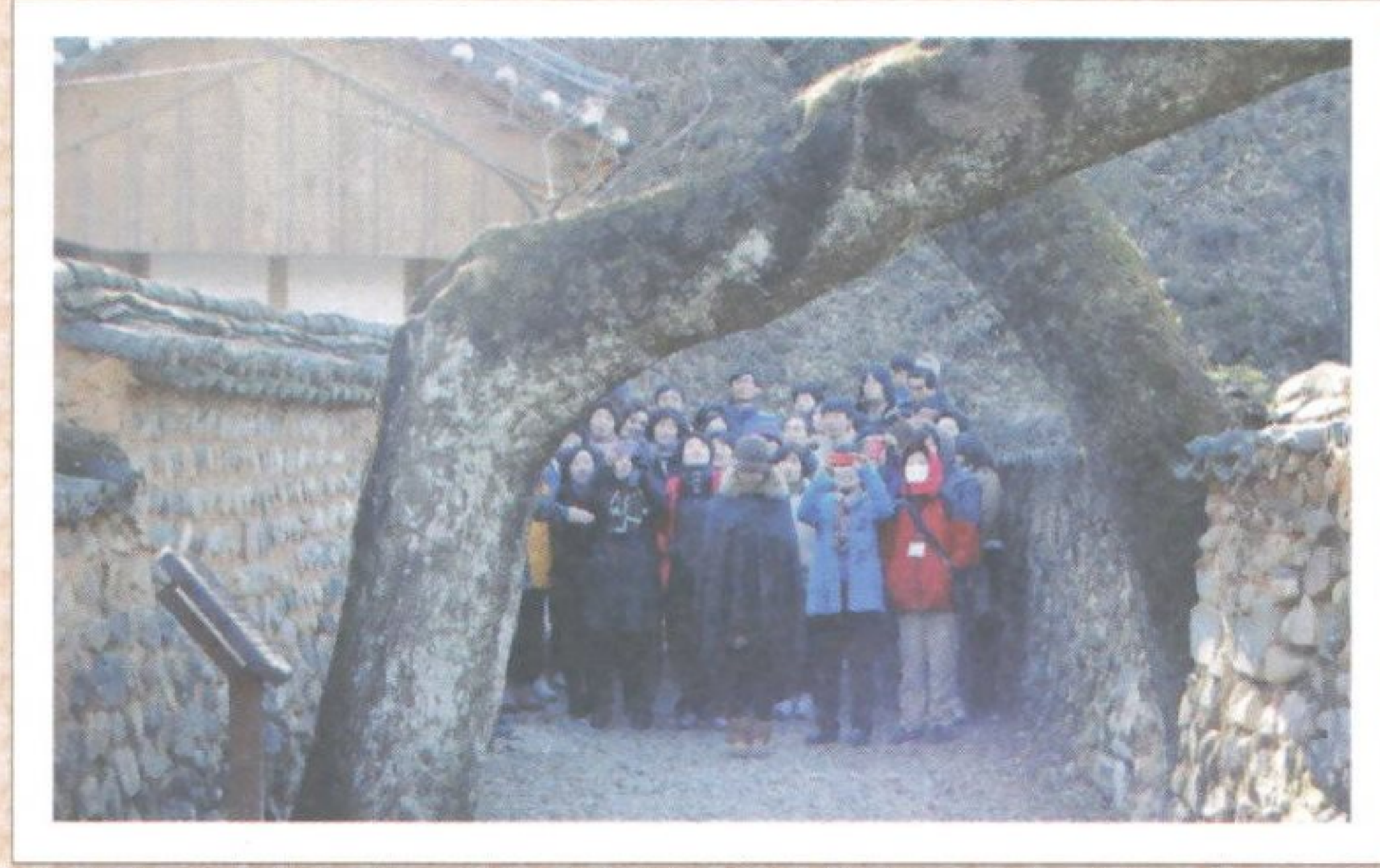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청정고을산청

2013년 11월 8일(금)

지리산을 품고 있는 청정골 산청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고려말 공민왕 때 문익점(文益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면화(棉花)를 재배한 목면시배유지를 시작으로 해 묵은 담장 너머 엿볼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산청 남사예담촌 등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30 산청도착, 목면시배유지, 성철대종사 생가(겉외사) 등 방문
- 12:30 중식
- 13:30 남사예담촌 도착, 마을 투어, 농촌체험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 사천

2013년 12월 13일(금)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사천 대나무 마을 비봉내에서 즐기는 건강체험, 김동리 선생의 소설 등신불이 탄생한 다솔사, 별주부전의 무대인 비토섬에서 즐기는 굴구워 먹기로 건강한 겨울을 맞는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다솔사 도착, 문화해설사와 1500년 고찰 다솔사 역사탐방
- 11:00 사천 비봉내 마을 도착, 대나무 숲 산책, 전통놀이 체험
- 12:00 중식
- 13:00 대나무 비누 만들기(성인), 대나무 악기만들기(어린이)
- 13: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4:30 비토섬으로 이동, 굴구워 먹기
- 16:30 부산으로 출발



## 2013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e.busan.go.kr

#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October Vol.262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10.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62호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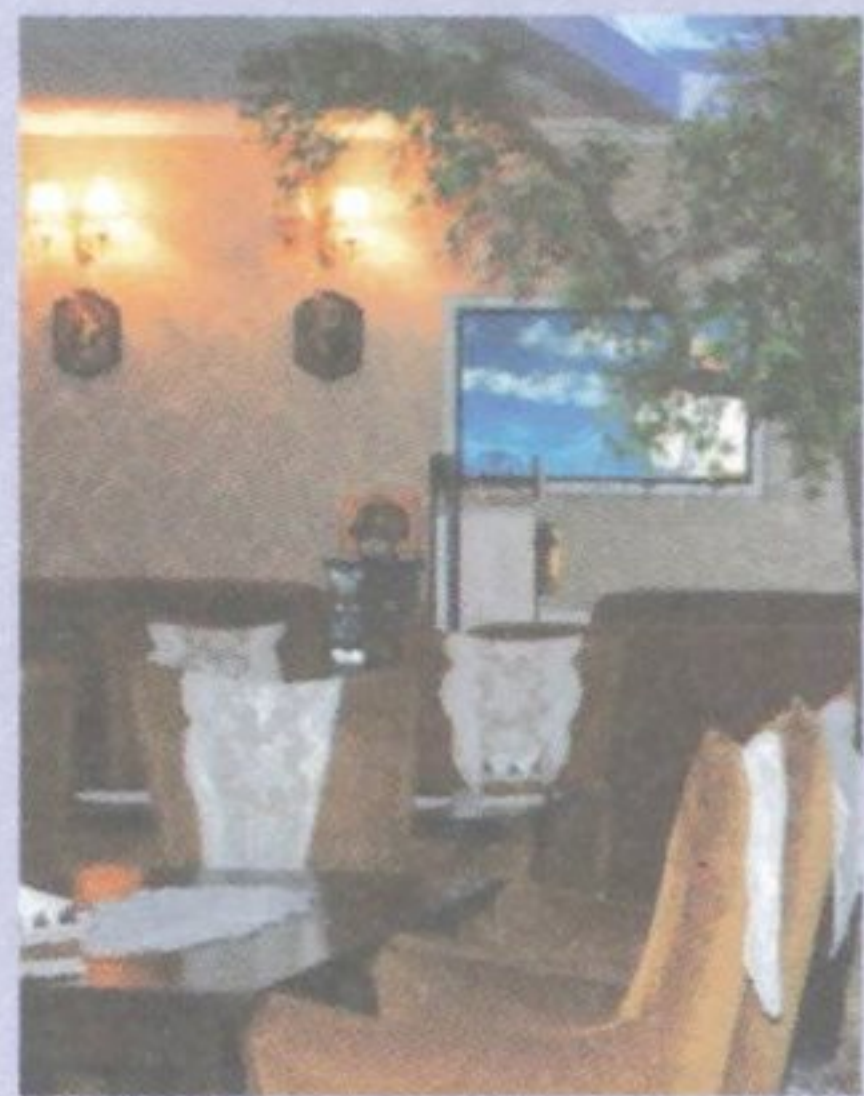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10.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62호

20%  
Discount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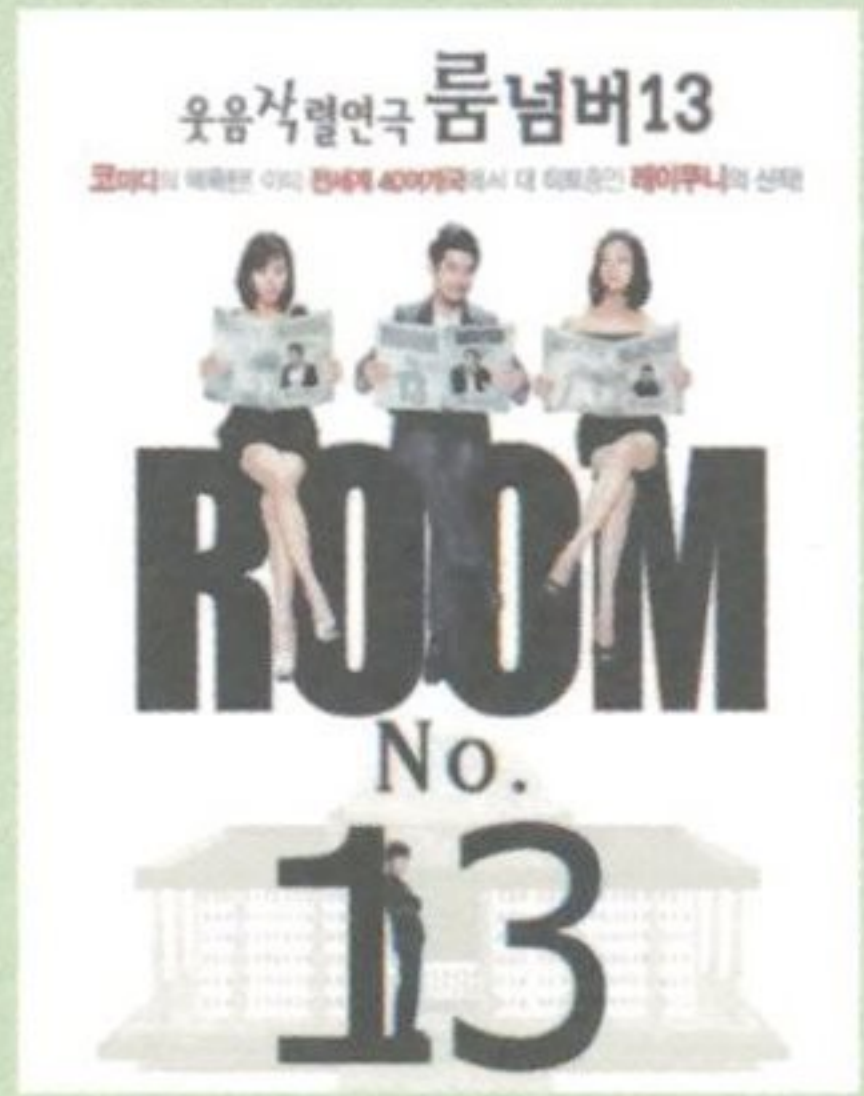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20%  
Discount



연극  
룸넘버 13

20%  
Discount



연극  
안티고네

# vin cent

핸드 드립/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Tel. 051-623-0772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10% 할인(커피에 한함)

# 송림정

Tel. 051-624-2270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5% 할인



### 토다이 센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터점에 한합니다.

###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2-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운대 뉴탑치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부산 해운대구 우동 602-5  
051)744-280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극 '롬넘버13'

2013.9.26(목)-12.1(일)  
평일 오후 5시, 8시, 주말·공휴일 오후 4시, 7시(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 연극 '안티고네'

2013.10.3(목)-13(일)  
평일 8시/주말, 공휴일 5시(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소극장(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October Vol.262

culture.busan.go.kr

2013년 11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깊는다  
?!

# 광고 하나로 천냥 빛 깊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OPERA IN CONCERT

# 리골레토

# Giuseppe Verdi

지휘·연출 리 신차오

*Rigoletto* 제 상 철

*Gilda* 김 정 은

*Mantova* 김 지 호

*Sparafucile* 함 석 헌

*Maddalena* 김 수 현

*Count Monterone* 유 형 광

*Count Ceprano* 김 태 우

*Giovanna* 박 성 희

*Matteo Borsa* 송 현 정

*Marullo* 이 태 영

*Court Usher* 최 범 석

*Page* 배 주 향

부산오페라합창단

합창 지휘 이 성 훈

조연출 김 미 정

오페라 코치 손 소 향

## 2013. 10. 10<sub>목</sub> ~ 11<sub>금</sub>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2013

# 유키 구라모토 내한공연

## 유키 구라모토!!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 14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공연계의 스테디셀러!
- 국내에서 발매된 1집~8집 플래티넘 기록, 뉴에이지 음반 최초 200만장 판매 기록
- 1999~2012년 매년 공연 전석 매진 기록

2013. 10. 29(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연 : 유키 구라모토(피아노), 디토 챔버 오케스트라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주관 : 부산문화회관

티켓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청소년 30%(A석, 본인 한함)]

예매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리켓링크, BS 부산은행 전지점 • 티켓오픈 : 2013년 9월 3일(화) 14:00